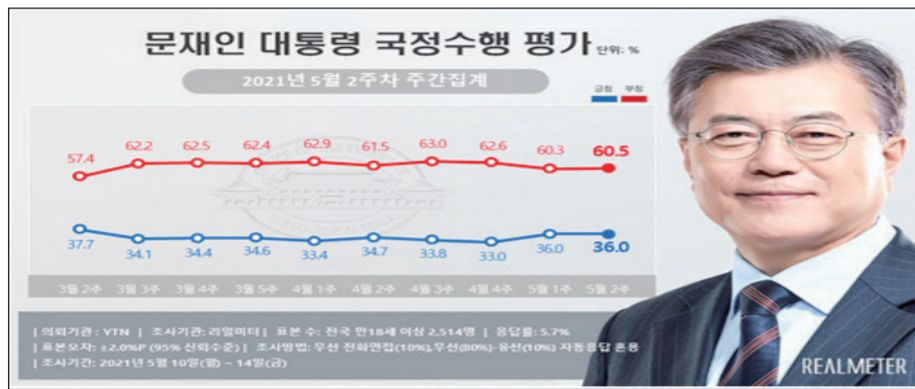


문대통령 '긍정 평가' 36% 유지-민주당 지지율 하락해 29.9%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변동이 없는 반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7일 나왔다. 최근 장관 후보자들 임명 논란으로 불거진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응답이 소폭 많았다.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10~14일 전국 18세 이상 251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문 대통령 지지율(긍정 평가)은 36.0%로 지난주와 같았다. 부정 평가는 60.5%로 지난주보다 0.2%포인트 상승했다. 모름·무응답은 3.5%였다. 권역별로 보면 긍정 평가는 대전·세

중·충청(33.5%)에서 4.8%포인트 상승했고, 인천·경기(39.3%)에서 4.3%포인트 올랐다. 반면 부산·울산·경남(27.9%)에서는 5.6%포인트 하락했고, 광주·전라(59.8%)에서도 4.5%포인트 떨어졌다. 대구·경북(22.7%)에서는 3.0%포인트 하락했다. 성별로는 여성의 긍정 평가(40.0%)가 1.1%포인트 오른 반면 남성(31.9%)은 1.1%포인트 떨어졌다. 연령대별로는 30대(43.6%)가 6.0%포인트 상승했다. 60대(27.0%)와 50대(40.8%)는 각각 2.1%포인트와 1.6%포인트 하락했다. 70대 이상

(24.4%)에서는 1.2%포인트 떨어졌다.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29.9%)이 0.3%포인트 하락해 30% 밑으로 떨어졌다. 국민의힘(35.4%)이 0.1%포인트 올라 1위를 유지했다. 국민의당(6.6%)은 0.7%포인트 떨어진 반면 열린민주당(5.8%)과 정의당(4.8%)은 각각 0.2%포인트와 0.3%포인트 상승했다. 인사청문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해 공감한다는 응답이 소폭 높게 나온 것으로 조사됐다.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14일 전국 18세 이상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공감한다'(47.9%)가 '공감하지 못한

다'(45.5%)보다 2.4%포인트 높았다. 문 대통령과 여당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해양수산부·국토교통부장관 후보자 임명 과정에서 청문회가 신상털기식으로 변질됐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주장했다. 문 대통령 및 정당 지지율 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포인트다. 인사청문제도 개선 필요성 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최광수기자

2021 경기 정책로드 투어, 포천 한탄강 지질공원에서 17일 출발

경기도의 정책을 명소에서 알아보는 '2021 경기 정책로드 투어', 5월 17일부터 3주간 추진

도보여행으로 떠나기 좋은 경기도 명소에서 인기연예인과 전문가가 도의 주요 정책과 관광지를 동시에 홍보하는 '2021 경기 정책로드 투어'가 17일 오후 2시 포천 한탄강 지질공원에서 시작된다. 도는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수칙을 준수해 비대면으로 이번 행사를 진행하며 행사페이지 및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도민과 소통하고 경기도청 유튜브를 통해 생방송한다. 1편 '기본소득 로드'는 코미디언 박명수와 방송인 김태진, 한탄강지질공원사업소 최동원 학예연구사가 한탄강지질공원에 대해 안내한다. 또 서정희 군산대학교 교수가 기본소득의 필요성부터 세계의 기본소득 실험까지 기본소득 정책에 대해 짚어

본다. 이어 도민 소통과 이해도 증진을 위한 기본소득 쿼츠를 통해 유튜브 온라인 댓글을 남긴 시청자들에게 깜짝 선물을 선사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기본소득 로드'에 이어 3주간 '야생 및 반려동물 로드'와 '경기지역화폐 및 배달특급 로드'를 이어갈 계획이다. 오는 24일 남양주 평해길 다산생태공원에서 열리는 두 번째 투어에서는 코미디언 박성광이 반려견 '공복이'와 함께 출연해 야생 및 반려동물과 관련된 경기도 정책을 알아본다. 코미디언 오나미와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의 전진경 대표가 출연한다. 31일 마지막 투어에서는 수원화성 방화수류정에서는 방송인 황광희와 슬리피의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시연이 있다. 이석훈 경기도

주식회사 대표도 출연해 경기지역화폐와 배달특급을 직접 소개한다. 도는 생방송 이후에도 해당 장소에서 한 주간 동안 정책 전시회를 이어가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인 한탄강지질공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수원화성 등을 방문하는 도민들이 쉽고 편하게 정책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며 전시회 방문 인센티브 또한 진행할 예정이다. 이강희 도 홍보콘텐츠담당관은 "코로나19로 지쳐있는 도민들께 2021 경기 정책로드 투어를 통해 경기도의 아름다운 경관도 보여드리고 도움이 되는 정책도 소개해 지친 마음을 털어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광수기자



경북도, 해양수산 활성화 심포지엄 개최

경상북도는 지난 14일 영덕 로하스 수산식품지원센터 대강당에서 '경북 해양수산 활성화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경상북도와 영덕군이 주최하고 영남일보가 주관한 심포지엄에 강성조 경상북도 행정부지사, 임영훈 해양수산부 해양수산생명자원과장, 김경태 영덕부군수, 군의원, 대학교수, 지역 수산인 등이 참석하였다. 최근 경북의 해양수산은 기후 변화로 동해안에 난류성 해양생물의 우점화와 한류성 해양생물의 감소 등 어업어건에 많은 변화가 있으며, 이러한 현실에 경북 동해안의 어업자원을 지속적으로 관리·보존하고 어업소득을 올릴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해양생물 종 보존과 해양바이오산업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마련된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동해의 해양생물군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실현방안과 지속 가능한 수산자원 보호·관리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날 심포지엄에서 임영훈 해양수산부 해양수산생명자원과장은 '해양바이오산업 활성화 전략', 안용락 국립해양생물자원관 기획조정실장은 '해양생물자원 보전 및 산업적 활용'을 발표하였다. 이어 김진규 부경대학교 자원생물학과 교수가 '한국의 해양어류 분포도', 강도형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제주연구소장이 '해양수산 소재를 이용한 바이오산업 육성 필요성과 현황'을 발표하였다. 패널토론에서는 김종성 서울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 교수가 좌장을 맡아 황인서 해양환경공단 해양생태팀장, 차형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자원생물학과 교수, 이충일 강릉원주대학교 해양자원육성학과 교수와 함께 '해양생물 종 보존과 해양바이오산업 활성화'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펼쳤다.



한편, 이번 심포지엄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생활 속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참여하기 위해 참여인원을 대폭 축소하였으며, 로하스수산식품지원센터와 유튜브 등 온·오프라인을 병행하여 진행하였다. 강성조 행정부지사는 "계속되는 코로나19로 동해안권 경제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경북도는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도출된 해양생물 종 보존과 해양바이오산업 활성화 방안을 도정시책으로 적극 추진해 동해안 해양수산자원 관리와 경제 활성화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세기기자

[칼럼] 아집과 소신의 차이

인간관계에서 피해야 할 몇 가지 요소가 있는데 자신만이 옳다고 여기는 독선, 남의 눈치나 견해를 듣지 않고 죽어라 우기는 아집,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만 보는 편견, 그리고 뜻대로 안되면 표정관리를 못하고 티를 내는 분노, 옳고 그름보다는 자기중심적 사고가 가져오는 폐단은 결국 부메랑처럼 자신을 향하는 인과응보의 진리를 벗어나지 못한다. 실상가상 이전의 것은 죄다 부정하여 역적으로 단죄하고 자신만이 최고의 선정을 베풀 것으로 자위한다면 진정한 문제는 그러한 당사자가 아니라 간신 나라 충신만 있을 뿐 충신 나라 충신이 없음을 반증하는 셈이다. 무릇 사람이란 아니라 해도 누구나 화장실 갈 때와 울 때가 다르다. 달라야 맞는 것이다. 하지만 그건 일반 백성들의 이야기고 일국의 정승판서나 임금이라면 경우는 다르다. 어떤 경우든 초심을 잃지 않아 백성들의 신뢰를 얻을 것이며 용상에 앉을 때는 백성을 위하여 무슨 짓이라도 할 것처럼 감격하다가 막상 앉고 나니 무슨 짓을 해도 된다는 착각에 빠지게 된다. 과거 처럼 자손 대대로 왕위를 계승해 줄 수도 없고 기껏해야 국회의원 4년, 대통령이래도 5년 남짓한 기간 동안 국정을 알면 얼마나 알고 국가경영이라는 엄청난 공무에 날 때부터 신이 아닌 이상 꿈에 그리던 태평성대와 국민대안을 이루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래서 그 다음 방법이 인재의 등용이다. 풍부한 경력자와 덕망이 있는 자를 뽑아 함께 국가의 흥망성쇠를 논하고 부국강병의 길을 위한 심도 깊은 정책을 펼치는 게 임금의 권한이자 국민을 위한 의무다. 물론 뜻에 맞는 사람을 선택할 수도 있겠지만, 뜻은 개인의 정이요, 전문성이 뛰어난 능력에 맞는 사람을 기용해야 사사로운 정을 떠나 해당분야를 통제할 수도 있고 조직 장악은 물론 발전을 기대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일국의 살림을 운영하는 정부는 개인의 친분을 나누는 친목단체가 아니라 오직 국민만을 위한 정승판서를 기용하여 다음 임금의 미래까지 염려해주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인사가 활용되어야 한다. 어찌 한 나라의 분야별 수장을 경험도 부족하고 말도 탈도 많은 인물을 내정하여 번번이 야당의 반발을 사고 심지어 무작정 편들던 여당마저도 어정쩡 원주추천 모습을 보일까. 상황이 이렇다 보니 얼핏 보면 야당이 대통령 인사권에 사사건건 트집 잡는 모습으로 비취고 보란 듯이 강행하는 문대통령은 소신을 강행하는 의지력의 지도자로 비춰진다. 과연 그럴까. 청와대의 입장대로 그렇다 치자. 누가 심판할까. 소신일지 독선과 아집일지는 누구도 모른다. 후보자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그 자질과 업무적 능력에 대해 속으로 심판하고 훗날 표로 결정하면 되는 것이다. 얼마 전 보궐선거에서 이미 적색 경고등이 켜졌음에도 중단 없는 전진은 계속되고 있다. 이어서 '권불심년'이란 말이 나온 것인가. 반대로 경쟁이라는 과정을 거친 소신을 참으로 훌륭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것이 고기잡이 선장이라면 만선의 기쁨을, 농부라면 풍작을 가져올 것이며 장사치라면

큰 돈을 벌 수 있다. 세 사람이 길을 걸어도 한 사람의 스승이 있다 했다. 독선 대신 야당이나 국민들의 의견을 귀담아 들을 수 있는 경청, 아집 대신 폭넓게 민의를 수렴하는 배려, 편견 대신 상대방의 의견도 인정할 수 있는 아량, 때로는 뜻대로 되지 않더라도 분노 대신 용서를 할 수 있는 덕의 정치야말로 군주가 행해야 할 길인 것이다. 누가 누굴 탓하랴. 지금까지도, 앞으로도 근절되지 못할 폐단이 있을 때, 이유는 바로 국민들의 표심에 달려있기 때문이며 온 국민이 깨어나 옥석을 구분할 줄 안다면 한 번의 선거만으로 나라가 바뀔 수 있으며 우리 후손들까지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 수 있음을 공언한다. 석유 한 방울 안 나오는 나라가 가진 게 뛰어난 민족혼과 위·아래가 반듯한 질서 아니겠는가. 어찌다 애·어른이 없는 나라, 돈이면 안 되는 게 없는 유전 무죄 무전유죄, 인권을 외쳐도 진실이 시도 때도 없이 묻혀 버리는 세상이 되었을까. 승용차 몰고 휴대전화 들고 다녀도 500년 전 조선시대와 비교해 볼 때 그리 행복하지 않은 세상이다. 남자들의 무능력으로 해마다 몽골에 수십만 명씩 조선 여자들을 공녀로 보내고도 모자라 일제식민지에서도 수십만의 어린 여성들을 전쟁터 성 노리게 감으로 보낸 과거가 불과 같아 전이다. 그 때는 이미 정해진 임금이라 치자. 지금은 국민들 손으로 대통령을 뽑을 수 있는 시대가 도래했음에도 여전히 판을 짜고 동등거리는 언론의 북소리와 온갖 인맥에 질질 끌려 자신과 가정과 이웃과 나라의 미래를 맡아 치르는 어리석은 국민수준을 못 벗어나는 것이다. 누가 누굴 탓하랴. 선조들이 목숨 바쳐 지킨 나라의 국경일에 태극기조차 걸지 않는 국민이 있기에 위정자들의 신명나는 세균 나뭇잎기가 가능한 것이다. 지난 14일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마지막 개각을 단행했다. 김부겸 국무총리와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임명안을 모두 재가했다. 물론 야당의 반발이 있었지만 이제 반대에 대한 감각은 사라진지 오래다. 야당의 동의 없이 장관이 임명된 것은 이번이 32명 째다. 이쯤되면 국회의 청문회 제도는 국민의 눈치를 보지 않는 정치쇼에 불과한 것이며 무능한 야당도 제대로 털든가 아니면 아예 개회 장소에 나오지 말았어야 어용이란 소리를 안 듣는 것이다. 같은 날 한국여성단체협의회 60개 회원단체 전국 500만 회원 일동은 여성이라는 이유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임혜숙 후보의 장관임명을 규탄한 다며 적극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랴. 이미 선장은 항의를 떠났다. '삼탁수 하부정'이라 했던가. 윗물이 이러니 아랫물은 얼마나 대놓고 원 없이 4년 짜리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남용하고 있는지 돈을 쓰고, 인사권을 남용한 흔적만이 말할 것이다. 강 위에 배가 지나면 흔적이 없을 것 같지만 강이 알고 배가 알고 사공이 안다. 덕담/김균식

이낙연 전 대표, 문재인 대통령 방미 정상회담 앞두고 외교 대안 모색 세미나 개최

‘바이든 시대 동북아 전망과 한국의 역할’ 주제로 미·중 갈등, 한반도 평화, 한·미동맹 등 다양한 외교·안보 현안 논의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선 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는 ‘바이든 시대 동북아 전망과 한국의 역할’을 주제로 17일(월) 하이서울유스호텔 대강당에서 송실평화통일연구원과 공동으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미·중 갈등, 한반도 평화 정착 등 다양한 의제가 논의될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 정상회담(21일) 직전에 개최한다는 점에서 더 의미가 있다. 유력 대선 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와 대표적인 외교·안보 분야 전문가들이 모여 외교·안보 현안에 대한 현실적인 해법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 정부 통일외교안보특별보좌관을 역임한 문정인 세종연구소 이사장이 기조발제에 나선다. 문 이사장은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정책 기조, 북핵에 대한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 기조와 방향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우리의 대응 방향을 제언할 예정이다.

토론에 나선 김준형 국립외교원장은 미·중 갈등의 핵심은 기술추격 견제와 체제 경쟁임을 지적하며 “한·미동맹을 기본으로 하되 한중관계를 손상하지 않는” 원칙을 강조할 예정이다.

이 전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 정상회담은 한반도 평화, 백신, 한일관계 등 다양한 외교·안보 현안에서 미·바이든 행정부와 공감대를 넓히고 한미 협력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한 중요한 일정”이라며, “이번 학술대회가 방미 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에서 대표적인 전문가들이 모여 주요 의제들을 점검하고 의미 있는 제언을 도출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학술대회의 의의를 평가했다.

또한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중국과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유지하는 ‘한·미동맹에 기초한 신외교’ 전략을 제안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단계적 비핵화 프로세스’에 대한 한·미 합의 필요성 등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 이번 행사는 이 전 대표를 비롯한 정치인과 학계,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함께 참석할 예정이다.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 현장 참석자가 제한된 만큼 ‘Zoom’을 통한 온라인 참석과 유튜브 생중계도 진행될 예정이다.

최만식/기자

송실평화통일연구원/이낙연 국회의원실 공동학술대회

바이든 시대 동북아 전망과 한국의 역할

일시 | 2021. 5. 17.(월) 1시 30분
장소 | 하이서울유스호텔 대강당

시간	내용	진행
13:00~13:30	등록	
13:30~14:00	개회사 이낙연(국회의원) 환영사 장병석(송실평화통일연구원) 축사 정세현(안보연구원)	전수미 교수 (송실평화통일연구원)
14:00~14:30	기조발제: 문정인(세종연구소 이사장)	
14:30~16:00	현미정상회담 의제와 전망 발제: 문정인(세종연구소 이사장) 토론: 김준형(국립외교원), 김준형(국립외교원), 위정석(전 외교부 한반도평화본부장)	김성배 원장 (송실평화통일연구원)
16:10~17:20	우리의 과제(미중갈등과 한일관계 대응 방안) 발제: 김준형(국립외교원), 위정석(전 외교부 한반도평화본부장) 토론: 남기정(서울대 통일연구소 교수), 이영환(이화대 통일연구소 교수), 이영환(고대 아시아문제연구소), 송국영(고대 통일연구소)	배귀희 부원장 (송실평화통일연구원)



김부겸 "철저하게 통합지향... 여야모두에 도와달라 할 것"

국무총리 임명 후 첫 출근... "우리 함께 모두라는 정신으로 돌아가야"

김부겸 신임 국무총리는 14일 "철저하게 통합을 지향하는, 그런 총리가 되겠다"는 취임 일성을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8시경 정부서울청사에 첫 출근하며 만난 취재진에게 이같이 말한 뒤 "여야 모두에게 성심성의껏 상황을 설명 드리고 도와달라고 하겠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 일하는 자세나 앞으로 바라보는 그런 일하는 방식도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방법으로 해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한테 이렇게 일할 기회를 주신 대통령님, 동의해주신 국회에 감사드립니다"고 했다.

이어 "무엇보다도 코로나19라는 감염병과의 싸움이 많이 힘들고 국민들이 지쳐있다는 것 잘 알고 있다"며 "이 어려운 싸움과정에서 '각자 자기 힘으로'라는 그런 어떤 부류가 있었다면 이제는 '우리 함께 모두'라는 정신으로 되돌아가야만 대한민국이 본래의 모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와 모든 공직자들이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이 어려움을 국민과 함께 극복하고 이후에 새로운 대한민국, 여러 가지 도전적 과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준비하겠다"며 "국민 여러분, 잘 부탁드린다"고 했다.

한편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경제정책의 우선순위를 묻는 질문에는 "국민들의 삶이 일상이 정상으로 돌아가야만 여러 가지 경제정책이 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준비를 차분히 해서 국민들이 해볼 수 있겠다는 마음이 들 수 있도록 준비를 해보겠다"고 말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7시께 김 총리의 임명안을 제안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김 총리 임명동의안을 무기명 투표에 부쳐 재석 176명 중 찬성 168명, 반대 5명, 기권 1명, 무효 2명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8시30분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첫 일정을 소화한다.

오전 11시20분 취임식을 가진 뒤, 오후 2시30분 첫 현장점검 일정으로 서울 서대문구 백선 예방접종센터를 방문할 예정이다. 오후 3시30분에는 서울 종로구 보건소에서 백신 접종을 한다.

최경수/기자

이용호 의원, 리얼돌체험방 주거지역 설치금지법·대표발의!

리얼돌 체험방 등 성인용품 판매점, 주거지역에 설치 못하도록 법적 근거 마련

리얼돌 체험방을 위락시설에 포함시켜 주거지역 인근에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이용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북 남원·임실·순창)은 13일, 인체형상성기구를 판매하거나 체험하는 업소를 포함한 성인용품 판매점을 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에서는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리얼돌체험방 주거지역 영업금지법」(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건축물의 용도를 구분하여 각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위락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에서는 설치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 최근 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 인근에서 이른바 성인용인형(리얼돌)을 이용하여 체험하는 시설이 생겨남에 따라 거주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 보호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고, 나아가 청소년 등 이보호받지 못하는 등 사회적 우려

과 관련한 상당한 일들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용호 의원은, "리얼돌 체험방에 대한 규제책이 없어 우리 일상생활과 청소년 보호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를 조속히 바로 잡는 것이 필요하다. 더 늦기 전에 범정부 차원의 리얼돌 체험방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학교나 주거지역 인근에서의 이들 영업행위에 대한 관리·감독도 조속히 뒤따라야 한다"면서, "당장은 학교나 주거지역 등에서 리얼돌 체험방이 영업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급선무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리얼돌 체험방 등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위락시설에 포함되어 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에 설치할 수 없게 되는 만큼, 주거지역의 안녕과 청소년 보호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남출/기자

양기대 의원, '소통과 공감의 정치' 특강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이 13일 대구 소재 영남일보 지방자치아카데미에서 '마음이 통하다, 양기대의 소통정치'라는 제목으로 특강을 진행했다.

영남일보는 지방자치아카데미를 통해 정치지방생들을 대상으로 지역 선출직 공직자에게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와 주요역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분야별 전문성과 명망이 갖춘 인사들의 특강이 예정되어 있다.

이날 양 의원은 진심과 공감, 공유, 동행 등의 네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한 '양기대의 소통정치'에 대해 밝혔다. 특히 국민을 향한 진심을 가지고 공감, 공유하는 소통정치를 통해 이뤄낸 사례들을 생생하게 얘기해 큰 호응을 받았다.

또한 기자와 국회의원 두 번 낙선의 경험을 전하면서 '준비된 도전'을 강조했다며, 선출직 공직자들이

갖춰야 할 자세와 각오 등을 강조하기도 했다.

"진심을 통해서는 전형적인 베드타운이었던 광명시에 변화의 씨앗을 심고자 했던 마음을 전했다. 특히 40년 동안 방치됐던 폐광을 개발해 세계적인 관광지로 만들어내며 기적의 이룬 경험을 나눴다."

아울러 이해 관계자들과 '공감'하며 허허벌판이던 KTX광명역세권 개발을 진행했던 경험도 설명했다. 양 의원은 "코스트코, 이케아, 롯데프리미엄아울렛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생존권이 걸린 중소기업들이 반발했으나 진심으로 설득하여 상생을 이뤄냈다"며 "나중에는 중소기업들에게 감사패를 받기도 했다"고 밝혔다.

세 번째 키워드는 '공유'다. 더불어민주당 남북고속철도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이기도 한 양 의원은 광명시장 시절부터 남북을 잇고 나아가 중국, 러시아, 유럽을 통과하



는 유라시아평화화도를 추진해왔다. 양 의원은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가치를 공유하며 새로운 시대를 열어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양 의원은 소통정치의 마지막 키워드로는 '동행'을 꼽았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대표 발의, 베를린 평화의 소녀상 철거반대 기자회견

전순희/기자

소병훈 의원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우리나라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가설기 자체 대여대금 체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설기 자체 대여대금에 대한 지급보증제도 도입과 상습 체불 건설사업자에 대한 명단 공개가 필요하다"며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2019년 기준 우리나라 건설현장 임금 체불액은 3,168억 원으로 우리나라 전체 산업에서 발생한 임금 체불액의 18.4%를 차지하는 등 건설현장의 임금·대금 체불 문제는 매우 고질적이고 심각한 문제로 여겨지고 있다.

특히 건설현장에서 근로자의 추락, 낙하, 붕괴 등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설치·사용하는 가설기 자체 시공에 있어 대여대금 체불이 발생하여 정부가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처럼, 가설기 자체 대여대

금에 대해서도 지급보증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이에 개정안은 우리나라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가설기 자체 대여대금 체불을 근절하기 위하여 가설기 자체 대여대금에 대한 지급보증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건설사업자의 명단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담았다.

소병훈 의원은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임금·대금 체불 문제는 건설업의 고질적인 병폐"라며 "가설기 자체 대여대금 지급보증제도 도입을 시작으로 우리나라 건설현장에서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는 임금·대금 체불 문제가 이제는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도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일에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소병훈 의원을 비롯해 강득구, 김두관, 김승원, 문정복, 양정숙, 오영환, 이상만, 최중훈, 홍정민 의원 등 10인이 발의했다.

최만식/기자

http://www.dailyculture.kr/ 문화매일 facebook.com/wawa105sujin

우편번호 : 08333 서울 구로구 개봉로 12길 9-19 105동 201호
우편번호 : 14222 광명시 시청로7 흥신에이스텔 701호

발행, 편집인: 최수진 / 회장: 문기주 / 부회장: 박유석 / 사장: 임석경 / 편집국장: 최재은
청소년 보호 책임자: 최수진

대표전화: 1899-9659 e-mail: ekwk44@naver.com sujin004344@daum.net

2009년 4월 12일 창간 정 치 부: 내선 (112) 문 화 부: 내선 (116)
2009년 3월 12일 등록번호: 서울.가50146 사 회 부: 내선 (113) 부 동 산 부: 내선 (117)
본지는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한다 경 제 부: 내선 (114) 오 피 니 언 부: 내선 (118)
대표전화: 1899-9659 경 제 부: 내선 (115) 지 방 부: 내선 (119)
편 집 국 : 02) 2612-2959 스포츠부: 내선 (115)
팩 스 : 02) 2060-4147 구독신청, 배달안내 : 1899-9659 구독료 : 월 15,000 1부 800원

장욱현 영주시장, '2021 한국의 영향력 있는 CEO' 선정

새로운 100년 미래 먹거리 마련으로 지속가능경영 부분 수상

장욱현 영주시장이 14일 서울 더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2021 한국의 영향력 있는 CEO' 지속가능경영 부문에 선정됐다.

올해로 9회째를 맞는 '2021 한국의 영향력 있는 CEO'는 TV조선이 주관하며, 지속가능 경영, 글로벌 경영, 윤리경영, 상생경영 등 총 15개 부문에 걸쳐 대한민국의 경영선진화를 이뤘던 기업과 기관의 최고경영자에게 매년 상을 수여하고 있다.

장 시장은 이번 시상식에서 첨단 베어링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 중앙선복선전철화·중부권 동서 횡단철도 건설 추진의 철도물류 인프라 확충, 활발한 기업 투자유치, '2022년 영주세계풍기인삼엑스포' 개최 등 지역의 미래를 책임질 새로운 성장 발판을 마련한 부분에서 높게 평가받아 지속가능경영 부문 수상자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장 시장은 그동안 탁월한 추진력과 다양한 시책발굴을 통해 경제,

문화관광, 농업 등 시정 전반에 많은 변화를 주도해왔다.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영주첨단베어링국가산업단지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통과, 하이테크베어링 시험평가센터 준공 등 산업기반 조성과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통한 대규모 투자유치 사업을 추진해 지역에 큰 발전을 이뤄왔다.

또한 부석사와 소수서원이 차례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고, 국립산림치유원이 웰니스 관광 25선, 죽계구곡이 국립공원 힐링로드 10선에 선정되는 등 '치유'와 '힐링'을 접목한 치유산업으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힐링관광도시로 비상하고 있다.

특히 선비정신의 도시 영주의 역사성을 이어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2022년 대한민국 한(韓)문화의 중심지가 될 '선비세상' 개장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장 시장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2022 영주풍기세계인삼엑스포'를 개최해 영주의 대표 특산품인 풍기인삼의 해외 경쟁력을 강화하고, 고려인삼 중추국으로서의 위상을 높일 계획이다.

엑스포 개최를 통한 생산유발효과 3,479억원, 부가가치 100억원, 취업유발효과 2,700명 등의 경제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외에도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고 아동의 목소리와 의견을 행정에 반영하는 '아동친화 도시 조성'에 힘써 소멸 위기에 있는 지역사회를 구하기 위한 인구증가 노력을 펼쳐왔으며, 전국의 모범사례가 되는 공공건축, 도시재생 사업 추진으로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구현해 나가고 있다.

장욱현 영주시장은 수상 소감을 통해 "이번 수상은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고 함께 해준 직원들의 뜻과 노력의 결실이며, 변화 없는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시는 시민



들의 상이라 생각한다."며, "지금까지의 변화와 발전을 되짚으며 앞으로 오직 시민만을 위한 지속가능한 희망의 도시 영주를 위해 달려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기현기자

익산시 정현을 시장, 국가 예산 확보 연일 '강행군'

정치권과 공조, 중앙부처 예산안 반영에 전방위적 총력 대응

정현을 시장이 연일 중앙부처와 국회를 방문하며 내년도 국가예산 최대 확보를 위한 강행군을 이어가고 있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14일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을 찾아 현안 사업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정부 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특히 글로벌 식품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와 푸드파크 조성, 그린바이오 신산업 육성을 위한 △동물질병치료제 시제품 생산지원 플랫폼 구축 사업의 필요성과 예산반영을 당부했다.

앞서 정 시장은 지난 12일에도 국토교통부 도로국장과의 면담에서 동-서로 단절된 △백제왕궁 인접 국도(1호선) 선형개선 사업이 국가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건의했다.

국토 균형발전과 효율적인 교통물류를 위한 △서부내륙 고속도로 2단계(부여-익산) 조기착공, △오산 신지-영남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사업, △국도27호 대체우회도로(서수-평장) 개설사업 등 대규모 SOC사업에 대한 관심도 당부했다.

이어 국토교통부 철도국장을 만나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 반영돼 있는 유라시아 대륙철도 연결을 위해 △국제철도 거점역사 개발·정비 방안과, 향후 새만금 신항을 통한 물류와 국가식품클러스터·완주

산단 대규모 물동량의 원활한 처리를 위한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선 철도 건설 사업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한 바 있다.

오택림 부시장은 13일 이원택 국회의원, 한병도 국회의원실 박재현 보좌관 등을 만나 △국립 금강 청소년 디딤센터 설립, △국립김갑병 연구소 분원 유치, △국립회귀질센터 유치 협조 요청 등 전방위적인 활동을 펼쳤다.

이와 함께 문화체육관광부 총무 2담당, 국토교통부 도로건설 과장, 산업입지정책과장 등 실무부서 담당자들을 만나 익산시의 입장을 설명하고 지원을 당부하기도 했다.

이번 방문은 이달 말 중앙부처 예산안이 확정되기 전 시장과 부시장이 함께 국회, 중앙부처 실·국장부터 과장 등 실무진까지 면담을 진행하며 현안 사업 추진 의지를 전방위적으로 전달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정현을 시장은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에 사활을 걸고 중앙부처와 국회를 수시로 방문해 지속적으로 건의할 예정이다"며 "남은 기간 세종 사무소를 중심으로 전북도는 물론 김수환·한병도 지역 국회의원 등 정치권과 긴밀한 공조 시스템을 구축해 전방위적인 총력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이선수기자

김영록 지사, "코로나 확산 엄중...접촉 최소화"

13일 도민 호소문 통해 마스크 착용의심 접촉 시 진단검사 등 당부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13일 동부권에 코로나19 감염이 확산하고, 이중 절반여가 무증상자여서 추가 감염 확산 우려가 커짐에 따라 도민 호소문을 통해 "외출·이동을 자제하고, 사적모임은 취소하는 등 접촉을 최소화할 것"을 당부했다.

이는 지난 2일 여수·순천·고흥에서 20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이날까지 동부권에만 166명의 확진자가 발생한다 따른 것이다. 여수의 한 유흥주점에서 현재까지 37명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특히 순천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29명의 확진자가 대량으로 발생해 위중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여수시, 고흥

군에 이어 순천시와 광양시 전 지역에 대해 13일 오후 2시부터 23일 자정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했다. 이에 따라 5인 이상 사적모임이 금지되고, 유흥시설은 집합이 금지되며, 식당·카페·노래연습장·실내체육시설·목욕장 등은 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영업을 제한된다. 종교활동도 좌석 수의 20% 이내에서만 참석이 가능하고, 공공체육시설 등 일부 공공다중이용시설은 폐쇄된다.

특히 전남도와 시군이 순천시에 공동협력대책상황실을 운영한다. 여수시, 순천시, 광양시에 임시선별검사소를 추가 설치하고, 역학조사관도 추가 배치하며, 이동버스를 운

영해 신속한 진단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전남지역 모든 유흥시설 종사자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시군별로 14일부터 시행한다. 익명이며,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앞으로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한 달 동안, 모든 유흥시설 종사자는 1주일 단위로 진단검사를 받게 된다.

전남도는 또 시군, 경찰과 합동으로 다중이용시설과 유흥시설 등에 방역수칙 위반사항 특별합동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집단감염을 막기 위해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나 시설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무관용 원칙이 적용된다.

김 지사는 "지난 9일 유흥시설 종사자 일제 전수검사서 모두 음성이었으나, 삽시간에 아주 빠르게 확산해 번이 바이러스를 포함한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겠다"며 "5월 들어 무증상 확진자는 92명으로 전체 확진자 중 절반에 육박해 본인도 모르게 감염시키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하루라도 빨리 지금의 위기를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가도록 도민의 협조와 참여가 절실하다"고 당부했다.

김영안기자



김기현기자

하남시 김상호 시장, '세 가지 정당성' 밝히며 GTX-D 강동-하남 경유 반영 촉구

시민 삶의 질 향상, 균형발전, 광역철도 제대로 된 기능·역할 등 위해 강동구-하남시 경유 노선 반영돼야

하남시 김상호 시장은 지난 12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D)와 관련된 국토교통부를 향의 방문, GTX-D 노선에 강동구-하남시 경유를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시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 발표에서 시가 경기도 등과 공동건의한 GTX-D 노선이 김포~부천으로 대폭 축소된 것을 항의하기 위해, 이날 김상호 시장·이정훈 강동구청장 등 '강동구·하남시 GTX-D노선 공동유치위원회'(이하 '유치위원회')가 국토교통부를 방문했다.

김 시장 등 유치 위원회는 'GTX-D 노선 강동구-하남시 경유 반영 촉구 결의문'을 낭독하고, 의견 등을 개진하며 항의 집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김 시장은 GTX-D 노선의 강동구-하남시 경유 반영을 주장하는 3가지 정당성을 밝혔다.

그는 "첫째, 수도권 서부와 동부를 잇는 김포·강동·하남시 125만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균형발전이라는 타당한 이유가 있다"며, "둘째는 광역철도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시와 경기도 등이 공동건의한 68km 노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마지막은 GTX-D노선의 타당성 조사 핵심인 B/C(비용 대비 편익)가 1.02가 나와 사업성이 있다는 결론이 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토부가 GTX-D 노

선 강동구-하남시 경유 반영을 수용할 때까지 하남시와 강동구 시민, 이정훈 구청장, 지역 국회의원 등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상호 하남시장, 이정훈 강동구청장, 하남시·강동구 지역 국회의원 및 주민대표로 구성된 '유치위원회'를 지난해 8월 발족, 국회에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공동대응 해 오고 있다.

최근수기자

신동헌 광주시장, 교육 발전을 위한 학부모와의 열린 시장실 운영

신동헌 광주시장은 교육 발전과 교육경비 지원 방향을 정하기 위한 '학부모와의 열린 시장실'을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학부모와의 열린 시장실'은 양적 성장 위주의 교육경비 지원 사업을 지양하고 코로나19 상황에 맞춰 급변하는 교육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학부모와의 대화를 통해 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했다.

기간은 5월부터 7월까지 관내 50개교(초등 31, 중등 11, 고등 8) 학부모운영위원 대표와 학교장 등 학교별로 15명 내외가 참석할 예정이다.

'학부모와의 열린 시장실'에서 시는 2020년 광주시 학교지원 사업과 학교별 교육경비 지원 실적을 설명하고 학교 주요사안 및 교육경비 지원 사업 관련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교육경비에 대한 사

업별 지원규모와 교육프로그램의 촘촘한 분석을 통해 이듬해 신규 사업 발굴 제안 등을 건의 받고 교육지원 사업 추진현황 및 지원방향에 대한 안내를 통해 학부모의 교육정책 이해도를 향상시킬 방침이다.

신 시장은 "학부모와의 열린 시장실 운영을 통해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교육정책 소통 및 의견 수렴의 장을 마련해 공공교육 신뢰도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수기자



김포시 정하영 시장, 학부모들과 교육현안 논의

정하영 김포시장이 고촌, 풍무, 사우, 길포 등 6개 지역 30개 학교의 학부모들을 만나 교육여건 개선 등 현안을 논의했다.

12일 오전, 오후로 나눠 진행된 이날 정담회에서 정 시장은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도시를 만들기 위해선 학부모님들과 교육현안을 위심坦회하게 이야기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소통을 강조했다.

학부모들은 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의 횡단보도 및 신호체계 변경, 주차차 단속 및 과속카메라 설치 등 교통안전에 대한 개선을 가장 많이 건의하였으며, 안전한 등하굣길 확보를 위한 공사현장 인근의

통학로 정비, 과속방지턱 설치 및 도로 보수와 낡고 위험한 학교 시설 개보수에 대해서도 건의하였다.

또한 최근 몇 년 사이 아파트 입주 주로 학생 수가 급증한 지역은 학교 증축 및 신설 등 교육 여건을 개선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날 정담회에는 교통과, 도로관리과 등 건의사항이 몰린 주요 부서의 직원들도 참석해 학부모들의 건의사항을 접수했다.

정하영 시장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철도망 확충, 교육여건 개선 등 해결할 일이 많다"며 "아이들이 안전하게 등하교 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교육청과 역할분담을 잘하고 정책에 반영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포시는 6월초까지 지역별 학부모 정담회를 갖고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현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정동희기자



서울특별시서대문구, 감동과 위로 전하는 어르신들의 특별한 그림 전시회

'추억 속 내 고향 산천' 주제로 한 작품 25점, 주민들에게 감동 선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남가좌1동 주민센터(모래내로15길 37) 내부 공간에 소감문과 함께 어르신들이 직접 그린 그림들이 전시돼 이곳을 방문한 주민들의 시선을 모으고 있다.

“크레파스와 도화지를 받으니 어렸을 때가 생각나 가슴이 뛰었다. 눈에 일하러 나가시는 아버지와 어머니, 또한 따라가는 강아지를 그리려고 하는데 어려웠다.”

“크레파스로 색칠을 하려니 손에 힘이 필요했다. 그래서 이런 그림 그리기가 노인들에게 좋은 프로그램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어릴 적 사라진 시골 초가집과 뛰놀던 마을을 그리며 옛날로 돌아간 것 같은 행복한 시간이었다.”

남가좌1동 마복협의회는 가정의 달을 맞아 최근 '제5회 어르신 그림 그리기 대회'를 열고 다음 달 30일까지 동주민센터에 입상작을 전시한다고 14일 밝혔다.

협의회는 어르신들이 유년시절을 회상하고 고향 풍경을 그림으로 표현하며 정서적인 안정과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2016년부터 '추억 속 내 고향 산천'이란 주제로 매년 대회를 개최해 오고 있다.

올해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비대면으로 열렸다. 70여 명의 참여자들은 크레파스와 도화지를 받아 각자 집에서 그림을 그린 뒤 완성된 작품을 제출했다.

이번 전시에서는 2016년부터 올해까지 대회에서 입상한 우수작 25점을 감상할 수 있다. 특히 올해 작품들은 수상자의 사진 및 소감과 함께 전시되고 있다.

동주민센터를 방문한 한 주민은 “1층 계단을 오르며 작품을 구경하다가 3층까지 올라왔다”며 “어르신들이 그린 그림을 보니 부모



님 생각도 나고 어릴 적 고향도 떠올라 감회가 새롭다”고 말했다. 정종미 남가좌1동장은 “어르신들의 추억과 삶이 묻어나는 그림들이 주민 관객들에게 감동과 위로를 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마복협의회'란 동 단위 민

관 복지협력 조직인 '서대문구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명칭으로 '이웃의 마음과 마을을 돌본다'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서대문구 14개 모든동에 구성돼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조상순/기자

도봉구 돌리뮤지엄, 찾아가는 박물관 '고길동 집에는 누가 살고 있을까? 참여기관 모집

5월 14일부터 '고길동 집' 제작 및 역할극 키트 선착순 600개 배부

도봉구 돌리뮤지엄이 「2021 찾아가는 박물관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고길동 집에는 누가 살고 있을까?' 스토리텔링형 콘텐츠에 참여할 기관을 모집한다.

돌리뮤지엄은 작년 진행했던 '열려라! 돌리뮤지엄 이야기 놀이상자'에 이어, 코로나19로 인해 외부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어린이들을 위해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의 기관에 교육용 역할극 놀이 체험 키트를 제공한다.

체험 키트는 '아기공룡 둘리'의 다양한 캐릭터와 함께 어린이들이 창의적인 역할극 놀이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가이드북 ▲고길동 집 종이 DIY 키트 ▲아기공룡 둘리 캐릭터 종이 6종 ▲꾸미기 스티커 ▲영상 매뉴얼로 구성했다.

활동 인증 이벤트도 함께 진행된다. 6월 15일까지 SNS 후기 인증과 설문조사에 참여한 30개의 기관에 추천을

통해 소정의 돌리뮤지엄 MD상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신청은 5월 14일부터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600세트 소진 시 마감된다. 신청대상은 활동 후기 인증과 설문조사 참여가 가능한 강북 3구(도봉구·강북구·노원구) 지역 유치원, 어린이집, 다문화센터 등의 기관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돌리뮤지엄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쌍문동 돌리뮤지엄이 코로나19 시기에도 개관 6주년을 맞아 지역 아이들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있다. 금번 준비한 체험키트가 아이들로 하여금 지역 문화자원을 만나 '아기공룡 둘리'에 대해 알아보고 캐릭터 박물관인 돌리뮤지엄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최광수/기자

관악문화재단, '독립책방의 메카 관악구' 온·오프라인 책문화 축제 개최

독립책방의 메카 관악구가 책문화 축제 '우리동네 별책부록'을 개최한다.

'우리동네 별책부록'은 관악문화재단과 관악구 독립책방이 함께 기획·운영하는 축제로, 도서 큐레이션과 전시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동네 이웃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담아냈다.

이번 축제는 '우리 동네 숨은 이웃 찾기'라는 주제로 예술가, 1인 가구, 성소수자, 미혼모·부자 등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이웃들의 이야기를 단편영화, 사진 전시, 북 큐레이션, 응원 북 제작, 챗봇지 공유회 등 다양한 형태로 담아냈다.

이번 축제는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진행되며, 재단 측은 소규모 오프라인 프로그램 운영과 방역수칙 준수를 통해 시민들이 안전하게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독립책방 살롱드북 강명지 대표는 “이웃이란 지리적으로 가깝고 아니고를 떠나서 정서적으로 연대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축제를 통해 정서적으로 연대할 수 있는 좋은 이웃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관악문화재단 차민태 대표이사는 “이번 '우리동네 별책부록' 축제를 통해 지역 내 다양한 삶의 형태가



포용되고, 여러 이웃들과 공존하기 위한 과정이 많은 시민들에게 전달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이러한 지역문화 사업을 적극적으로 확대하

여 모두가 함께 상상하는 문화도시를 만들어가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강성원/기자

성동구, 생계형 서민채납자 찾아 복지연계하고 경제재기 지원 나서

서울 성동구는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서민 채납자'를 찾아내 경제재기 지원에 나선다.

'생계형 서민 채납자'란 과거 성실히 지방세를 납부해왔지만 건강악화나 사업실패 등 피하지 못할 사정으로 채납자가 됐거나, 채무액 탕감을 위해 노력한 사실이 확인된 채납자를 말한다.

구는 무재산, 저소득, 실의없는 처분 불가재산 소유 등 경제적 어려움으로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대상자의 생활실태 등을 조사하여 종합적으로 판단, 이들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였다.

먼저 급여 압류기준액을 기존의 185만원에서 서울형생활임금 기준을 적용한 224만원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상반기 급여압류 대상자 428명 중에서 90명의 채납자가 급여압류 면제를 지원받게 된다.

또한 실의없는 압류재산으로 인하여 복지혜택 수급을 못 받는 생계형 서민채납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생활실태와 지원이 필요한 사항 등 조사내용을 복지 담당기관에 연계, 채납자가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성실 분납자 등 납부의지가 있는 생계형 채납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공공기록등록, 명단공개 등 행정제재를 유예한다. 또한 채납자의 압류재산 중 10년 이상 장기 압류된 1,145건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실의가 없다고 판단되는 압류 재산에 대해서는 심의를 거쳐 적극적으로 채납처분 중지를 결정할 예정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앞으로도 성실 분납자 등 납부의지가 있는 생계형 서민채납자에 대하여 관행적인 채납정수 방법을 탈피하여 채납액을 정리하고 경제재기를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하였다.

강성원/기자



서울시, 인쇄골목 1,100여개 업체정보도 '세운맵' 온라인 지도로 한눈에 본다

인현동 인쇄업체 정보 1,100여개 추가...총 4,100여개 도심산업체 정보 망라

서울 을지로 3가역과 총무로역 사이, 인현동 인쇄골목에 밀집한 1,100여개 인쇄소 정보를 온라인 산업지도 '세운맵'에서 한눈에 볼 수 있다. 업체명, 주소, 연락처, 전문분야, 업체사진 등을 클릭과 검색만으로 빠르고 쉽게 찾을 수 있다.

인현동은 인쇄·출판물 기획부터 제작, 후가공까지 모든 인쇄공정이 이뤄지는 인쇄산업 밀집지역이다. 중소 규모 인쇄소가 몰려 있어 '인현동 인쇄골목'이라 불린다.

서울시는 세운상가 일대의 산업생태계를 담은 온라인 지도 '세운맵'에 인현동 인쇄업체 정보를 추가했다고 밝혔다. 작년(2020) '세운맵'을 오픈하며 기계·전자·디자인·음향 등 3,000여개 제조업 정보를 제공한데 이어 인쇄업까지 총 4,100여개의 도심산업체 정보를 망라해 담았다.

'세운맵'은 도심산업을 활성화하고 사용자와 도심산업체를 보다 쉽게 연결하기 위해 사업체 정보 및 사례 콘텐츠를 구축한 온라인 플랫폼이다. '20년 4월 28일부터 본격 운영했다. 예지동, 임정동, 산림동, 장사동 등 세운상가 일대 3,000여개 도심제조업체의 품목, 전화번호, 위치 등을 제공하고 있다.

더불어 '세운맵'에 등록돼 있는 업체의 특징과 정보를 시각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사진자료도 대폭 보강했다.

서울시는 지난 1년여 간(2020.~21.4) 약 1만여 명이 '세운맵'을 찾았으며 '세운맵'이 도심제조업에 관심 있는 20~30대 젊은 층을 폭넓게 유입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고 분석했다. 시는 '세운맵'이 세운 일대의 업체 정보는 물론, 장업자, 디자이너, 메이커들에게 영감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 이들과 제조·유통자원을 연계하는 기회도 마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세운맵'은 제작사레, 칼럼, 동네열전, 기술용어, 테마지도 등 도심제조업과 관련된 다양한 콘텐츠를 소개해 단순 지도 서비스와 차별화했다. 특히 제조업 밀집지역의 특성을 살린 정보를 점목시켜 세운상가 일대를 처음 접하는 시민도 수월하게 업체를 탐색, 이용할 수 있게 했다.

별도의 회원가입 절차 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세운맵'에 업체 등록을 원하는 경우 홈페이지를 통해 요청하면 된다. 세운·청계천·을지로 일대에 있는 업체라면 무료로 신규등록하거나 정보를 수정할 수 있다.

세운맵 오픈 쪽 하단에 있는 '문의하기'를 통해 신규업체등록, 지도정보 수정, 기술중개 신청, 기타 문의사항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별 업체정보에서 등록된 정보의 수정을 요청할 수도 있다.

양용택 서울시 재생정책기획관은 “'세운맵' 온라인 산업지도 확대 운영을 통해 세운일대 도심제조업에 대한 정보 제공의 다양성을 높이고, 젊은 창업자들이 서비스를 통해 제조·유통업체들과 만나길 기대한다.”며 “또한 협업하는 기회를 확대해 세운상가 일대 도심제조업 활성화를 지원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광수/기자

중랑구, 묵동천 생태하천 복원 탄력...집나간 물고기 돌아온다!

총 54억 원 투입해 묵동천을 자연형 생태하천으로 복원, 올해말 준공



중랑구 묵동천이 올해 말 맑은 물과 생명을 품은 자연형 생태하천으로 거듭나 주민들에게 새롭게 선보인다. 묵동천은 신내동부터 중랑

천 합류부까지 총 2.94km 구간으로 일부 구간은 평상시 물이 흐르지 않고 수질도 좋지 않아 환경 정비를 요청하는 주민들의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구는 총 5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2019년부터 묵동천의 생태적 기능 회복을 위한 생태하천 조성사업을 실시해왔다.

2019년 7억 원을 투입해 묵동천 진출입로 4개소를 정비한 데 이어 2020년에는 10억 원을 투입해 풍부한 유량확보를 위한 유지용수관로 매설을 시작했다.

상반기까지 매설이 완료되면 매일 1만톤의 물이 묵동천에 방류돼 수질이 향상될 전망이다. 올해는 37억 원을 투입해 하천 내 공사를 집중 실시한다. 먼저, 산란기 물고기가 상류로 원활하게 올라갈 수 있도록 하는 구조물인 여울형 어도를 설치해 어도 기능을 회복한다. 곳곳에는 자생초화를 심고

하천의 흐름을 방해하는 퇴적토도 준설한다.

더불어 하천 가장자리에는 식생블럭과 스톤넛트를 시공해 말끔하게 단장하고 웅벽에는 인공덩굴, 담쟁이, 능소화 등 식물을 심어 다채로운 환경을 연출한다. 주민들이 하천 양쪽을 가로지를 수 있도록 구간마다 징검다리도 설치한다.

공사를 마치면 묵동천은 수생식물과 다양한 어종이 서식하는 생태하천으로 재탄생하여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공간으로 변모할 것으로 기대된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공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여 건강하게 회복된 자연환경을 주민들에게 돌려드리겠다”며 “삭막했던 묵동천이 맑고 깨끗한 모습을 되찾아 주민들이 편하게 산책과 운동을 즐길 수 있는 휴식공간으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만식/기자



이재명 “대북전단 불법 살포, 사법당국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해야”

경기도, 사법당국에 대북전단 불법살포에 대한 신속 수사 및 엄정 처벌 촉구...14일 성명서 발표

경기도가 최근 한 탈북민단체에서 주장하고 있는 대북전단 불법살포에 대하여 신속 수사 및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 대처를 사법당국에 요청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대북전단 불법 살포에 대한 엄정 대처를 강력히 촉구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번 성명서는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대표 박상학)이 지난 달 30일 언론을 통해 비무장지대(DMZ)와 인접한 경기·강원 일대에서 2차에 걸쳐 대북전단 50만장을 살포했다고 주장하는 동영상 공개한 데 따른 것이다.

이 지사는 성명서를 통해 “이번 대북전단 살포 주장이 사실이라면 정부와 사법기관을 우롱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험에 빠뜨리고 한반도 평화에 역행하는 무책임한 행위”라며 “대북전단 불법 살포가 재발하지 않도록 자유북한운동연합 관계자 등에 대한 신속한 수사와 엄정한 대처를 사법당국에 강력히 촉구한다”는 뜻을 밝혔다.

특히 이 지사는 경기도가 접경지역을 품고 있어 남북 긴장 격화와 충돌에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지역인 만큼, 그간 남북 간 무력 충돌을 야기하여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대북 전단 불법 살포 행위를 막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음을 역설했다.

아울러 이번 대북전단 불법 살포 문제는 “남북 정상 간의 합의를 깨뜨리고 꺼져가는 전쟁의 불씨를 되살리는 위험천만한 불법·과격행위”임을 강조했다.

남과 북은 지난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선언을 통해 상대방에 대한

모든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제2장 제1조).

또한 올해 3월 30일부터 시행 중인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는 전단 살포 등 남북합의서 위반 행위를 하는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대북전단 살포를 강행해온 극소수 탈북민 단체들은 표현의 자유 침해 등의 명분으로 대북전단금지법을 악법으로 폄하하면서, 국내·외에 정부와 경기도의 대북전단 살포 대응노력을 공공연하게 비난해 왔다.

이에 이재명 지사는 올해 1월과 2월, 미 의회와 유엔(UN) 등 국제기구, 주요 외교사절들에게 대북전단 금지법의 정당성을 설명하고, 지지를 호소하는 서한을 발송한 바 있다.

최근에는 5월 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대북전단

살포 문제의 경우, 남북관계를 악화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도민의 안전과도 밀접해 도 차원의 활용 가능한 법령으로 막아보고자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엄중하게 대처해야 함을 재차 강조했다.

최근수/기자



광명시, 노인위원회3개 분과2차회의 개최

현장의 의견수렴을 통한 실효적 복지정책 발굴로 어르신 맞춤형 복지사업 추진



광명시는 13일 평생학습원에서 '광명시 노인위원회 3개 분과(건강증진분과·일자리분과·사회안전망분과) 2차 회의'를 개최했다.

광명시 노인위원회는 급격한 고령화 사회를 대비해 지역실정에 맞고 실효성 있는 노인복지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자문기구로 지난해 11월 전국 최초로 출범했다.

노인위원회 3개 분과는 ▲노인의 건강증진 및 여가문화 활성화를 위한 건강증진분과와 ▲노인의 사회활동 지원을 위한 일자리분과 및 노인의 고독사 예방과 ▲돌봄사업의 다양한 방안 모색을 위한 사회안전망분과로 나누어 활동하고 있다.

지난 4월 1차 분과회의에서 노인복지정책의 포괄적 방향을 제안했다면, 이번 분과회의에서는 구체적인 사업 제안 및 토론이 이루어졌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사람을 귀하게, 돌봄으로 생활기본권 보장이라는 2021년 시정방향에 맞춰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에 대해 항

상 고민하고 있다”며, “노인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시니어클럽 설치, 복지사각지대 홀몸노인 돌봄 확대, 다양한 정보제공 및 접근차이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에 집중할 것이며, 어르신들이 제안한 내용을 정책에 최대한 반영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명시는 광명시니어클럽 신설, 어르신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단 운영, 노인 전동휠체어·스쿠터 보편가입 지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확대, 화성 함백산 추모공원(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 행복가득 경로당 활성화사업, 소하 의료시설 용지 기부채납 공공시설물 설치, 무료 경로식당 지원, 시립노인요양센터 확충, 경로당 및 사회복지시설 공기업화 추진 등 다양한 노인 복지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전순희/기자

윤화섭 안산시장, '2021 한국의 영향력 있는 CEO' 선정

돋보이는 리더십 경영...‘모든 시민의 삶이 빛나는 안산 만들기’ 공적 인정



윤화섭 안산시장은 14일 서울 소재 더플러호텔에서 열린 ‘2021 한국의 영향력 있는 CEO 선정식 및 출판 기념회’에서 리더십경영 부문에 수상했다.

TV조선이 주최하는 ‘한국의 영향력 있는 CEO’는 치밀한 기초 조사와 공정한 평가를 통해 고객만족·글로벌·리더십·ESG경영 등 15개 부문에 걸쳐 서로 다른 분야와 상황에서 경영 선진화를 이뤄낸 대한민국 대표 CEO를 선정·수상하는 최고 권위의 상이다.

올해로 제9회를 맞은 이번 선정식 및 출판 기념회에서 윤화섭 시장은 경제·복지·혁신·친환경·다문화·안전 등 다방면에 걸쳐 가시적인 성과를 이루며 ‘모든 시민의 삶이 빛나는 안산을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받아 리더십경영 부문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특히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 지원 ▲외국인 영유아 보육료 지원 ▲임신부 100원 행복택시 운영 ▲임신부·신생아 품안애(愛) 상해 안심보험 ▲도심순환버스 도입 ▲상호문화도시 지정 등 전국 최초로 시행한 창의적이

고 차별화된 정책을 통해 지역 인지도 및 브랜드 가치를 높이며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에 주력한 것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경기도 최초 수소시범도시 조성, 국제안전도시 인증 추진, 생존수영 체험 전용수영장 신설 등 혁신적인 정책 추진도 돋보였다.

윤 시장의 구체적인 경영사례와 활동사례는 한국의 영향력 있는 CEO 기록집 ‘물고기를 잡으려면 물고기처럼 생각하라’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3년부터 매년 출간되고 있는 경영사례집은 자신의 영역을 발전·변화시키며 위기를 기회로 활용한 대한민국의 적극적인 도전자와 개척자들을 알리기 위한 것으로, 윤 시장의 경영스토리와 함께 다양한 사례가 수록될 예정이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이번 수상은 안산시 공무원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불철주야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시민 눈높이에 맞는 공감 정책으로 살맛나는 생활도시 안산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최정부/기자

김포시학교밖청소년, 자기계발 원예활동 '꽃과 함께' 배워가요!

김포시청소년재단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학교 밖 청소년의 다양한 자립 및 자기계발 지원을 위한 원예활동 '꽃과 함께' 프로그램 참가자를 13일부터 모집한다.

센터는 폭넓은 자립 및 자기계발 지원을 위해 총 여섯 가지 자격증반과 두 가지의 자기계발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 그중 '원예활동-꽃과 함께'는 식물을 도우며 하는 창작활동을 통해 자기 탐색 및 자기 이해를 도우며 전문적 원예 교육을 통해 플로리스트 양성 및 사회진출을 목적에 두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김포시 사우동 '꽃이 되는 시간' 전문 작업장에서 진행되며 프로그램 완료 후 작품전을 진행하여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에 도움을 줄 예정이다. 운영 기간은 5월 31일(월)~6월 30일(수) 매주 월, 수 14:00 ~ 17:00로 총 10회 진행된다.

5월 13일부터 모집이며 대상자는 만 16세 이상 만 24세 이하 관내 학교 밖 청소년 10명이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 신청 및 전화로 신청 가능하다. 신청 인원 초과 시 신청자와 면담을 통해 선발될 예정이다.

한영기/기자

자기계발 원예활동
'꽃과 함께' 모집

• 자기계발프로그램 • 지역지원사업신청 • 플로리스트

10회기 동안 '꽃과 함께' 만들어가요.

신청기간: 5.13(목)~5.21(금)
운영기간: 5.31(월)~6.30(수) 매주 월·수 14:00~17:00
모집대상: 만 16세~24세 학교 밖 청소년 10명
※ 1단계 '자립준비교섭' 이수 필수

신청방법: 네이버폼 신청 접수

운영장소: 꽃이 되는 시간(김포시 사우동)
만 16세 이상 자기계발 전회 계획 예정(7월초)
문의전화: 031-980-1695 북은원선생님

오산시, 고교 진로진학지원 '리더교사' 27명 위촉

오산교육재단은 지난 12일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여 '2021년 오산교육재단 오산시 진로진학지원단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전했다.

오산시 진로진학지원단은 지역맞춤형 진로·진학지도도를 위한 전문 인력 확보 차원에서 2020년부터 시행했다.

오산교육재단은 진로 및 진학 지도에 관심과 전문성이 있는 화성·오산교육지원청 소속 경기도 리더교사와 관내 고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총 27명의 리더교사를 선발했다.

이날 위촉장을 수여받은 진로진학지원단 리더교사는 위촉 기간(2021. 5. ~ 2022. 2.)동안 20시간 이상의 내실있는 역량강화연수를 통해 진로 진학 지도 역량을 강화할 뿐 아니라 자체 스터디를 통해 전문성을 함양하며 2021년 오산교육재단 찾아가는 진로진학박람회, 경기도교육청 길찾기사업, 오산시진로진학상담센터 진로·진학상담 등에서 활약할 예정이다.

오산 지역 학부모와 학생들은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고 오산시 진로진학상담센터에서 제공하는 1:1 진로·진학·학습 컨설팅, 자기소개서 지도, 모의면접을 통한 면접고사 대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진로 진학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김남주/기자



광주시 곤지암읍, 태극기 거리 '호국의 길' 조성

광주시 곤지암읍은 '애국 도시'곤지암읍을 널리 알리기 위해 태극기 거리인 '호국의 길'을 조성하기로 했다 14일 밝혔다.

곤지암읍은 조선시대 왜군에 맞서 나라를 구하기 위해 싸운 신립장군과 일제강점기 민족대표 33인 중 한 명인 정암 이종훈 선생의 고장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곤지암읍은 선열들의 호국정신을 받들고 역사도시로서 안전한 도시 이미지를 공고히 자리매김할 계획이다.

태극기 거리인 '호국의 길'은 예계교(곤지암역)~건업리(여주시 경계)구간 (국지도 98호선 도로공사

진행 중)에 걸쳐 추진되며 1차 예계교~열미교, 2차 열미교~오향교, 3차 오향교~만선리, 4차 만선리~건업리 동곤지암TG 등 도로확장 공사가 완료되는 오는 2023년까지 연차적으로 확대 추진할 예정이다.

이용호 곤지암읍장은 “호국 관광자원 확대를 위해 무궁화동산 조성, 이종훈 선생 생가 복원, 역사인물 동상 조성 등의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풍부한 역사자원을 바탕으로 '호국 관광 벨트'를 조성해 곤지암의 또 다른 관광 자원인 '소머리국밥 축제'등과의 연계를 통해 관광 효과를 극대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정근/기자

서로에게 전하는 진심 '선생님 덕분에' 성남교육지원청, 스승의 날 영상 응원 메시지 전달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은 5월 13일 관내 유·초·중·고·특수학교 교원에게 '선생님 덕분에'영상 메시지를 전달하였다.

이번 영상 메시지는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코로나 19 상황에서 아이들의 안전과 학습을 위해 노력하시는 교사들에게 위로와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하여 제작하여 성남교육지원청 유튜브 채널로 전하였다.

영상 메시지는 동료 선생님들이 서로에게 전하는 진심을 담은 메시지와 함께 교사 스스로 교사의 길을 되돌아보는 내용을 담았다. 학생이 선생님께

감사의 마음을 담은 짧은 영상 메시지도 함께 실었다.

이법희 교육장은 영상 메시지에서 "살아있는 아이들과 함께하는 선생님들의 모습을 해녀이야기로 전하고자 한다.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다독이며 함께 가자"며 선생님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였다.

한편, 성남교육지원청은 유튜브 채널 등을 활용하여 성남교육의 따뜻한 연대, 아름다운 동행의 공감대를 이어가고자 한다.

이성용/기자

부천시,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국제 숙련도 시험 평가 5년 연속 '적합'

부천시 정수과는 미국에 본사를 둔 국제공인검증기관 'Sigma-Aldrich RTC Inc.'의 국제분석능력 검증시험에 응시한 결과, 먹는 물 시험항목 17개 전 항목을 통과해, 수질 분석 능력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

'Sigma-Aldrich RTC Inc.'는 전 세계 환경 관련 실험실의 분석 능력 숙련도를 검증하는 기관으로, 미국 환경보호청(US EPA), 국제시험기관 인정협력기구(ILAC) 및 국제표준화기구(ISO/IEC)가 인증한 국제 숙련도 시험기관이다.

국제숙련도 시험(Proficiency Test, PT)은 국제적 수준에 맞는 분석 능력과 투명한 결과 확보를 위해 측정분석기관의 능력을 국제적으로 검증하는 제도다.

평가방법은 일정농도의 물질이 함유된 미지 시료를 배분 받아 분석 후 검증기관에 제출하면, 세계 각 분석기관에서 내놓은 분석 결과를 통해 그 상관성을 조사하고 평가하는 방식

으로 진행됐다.

검사항목은 농약류, 중금속, 휘발성 유기화합물, 음이온성분 등 총 17개 미지시료 항목을 분석, 제출했으며 평가결과 응시 항목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

시는 이번 시험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물 수질검사에 대한 측정 및 분석 능력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 기관임을 입증했다.

부천시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은 검증된 수질검사능력을 바탕으로 부천시민이 사용하는 수도물에 대해 먹는물 법정 수질 기준 60개 항목, 지침상 감시 항목, 자체감시 항목 등 170개 항목에 대한 철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윤기태 정수과장은 "지속적인 수질검사 장비 현대화와 분석담당자들의 숙련도향상을 위하여 노력할 것"이라며 "시민이 믿고 마실 수 있게 안전하고 깨끗한 수도물생산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전순희/기자



제29회 경기도청소년종합예술제 평택시 예선 참가자 모집

평택시 위탁기관인 평택시청소년 문화센터(센터장 이종규)는 청소년들이 문화예술 끼와 재능을 마음껏 펼치고 소통할 수 있는 제29회 경기도청소년종합예술제 평택시 예선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다.

경기도청소년종합예술제는 경기도와 평택시가 공동 주최하고 청소년문화센터가 주관하며 경기도평택교육청이 후원하는 청소년 경연대회이다. 올해 경기도청소년종합예술제는 비대면으로 접수된 영상을 심사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예년과는 다르게 학교장 추천 없이 참여를 원하는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고, 서양음악 기악부문이 시범종목으로 신설됐다.

평택시 예선은 6월 18일 문학, 사물놀이, 무용 부문을 시작으로 6월 23일 한국음악 기악·성악, 6월 24일 서양음악 합창·기악독주, 6월 25일 댄스, 대중음악까지 진행된다.

모집대상은 평택시 거주 초3~고3 재학 청소년 또는 10세~19세 청소년이면 개인과 팀 어느 형태로든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서류접수는 5월 18일부터 5월 29일, 영상접수는 6월 1일부터 6월 12일까지이다.

접수 방법은 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 접수이며 평택시 예선에서 각 종목별 최고득점 팀은 10월 경기도청소년종합예술제 본선에 참여할 수 있다.

김남주/기자

제29회 경기도청소년종합예술제 평택시 예선 <비대면>

참가대상
평택시 관내 청소년(초3~고3) 또는 10세~19세 청소년

참가자 모집 기간
신청접수 : 2021년 5월 18일(금) 09:00 ~ 5월 29일(토) 18:00
영상접수 : 2021년 6월 1일(화) 09:00 ~ 6월 12일(토) 18:00
*접수 권 제한 없음(연속 접수 가능)
*평택시 예선 영상은 6월 12일까지 접수 가능

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 접수 > pyf01509@pyf.kr
*접수 후 전원 확인 부탁드립니다.
*비대면 예선 영상은 영상에 심사
*영상과 관련된 내용은 홈페이지를 확인

예선안내
연말 18(목), 23(금) ~ 25(토) / 4일간
- 영상 심사 장소 : 평택시청소년문화센터 디오강당
- 방역 부활을 위한 18(목) 청소년문화센터 사용가능성에 따른 변경 진행
- 예선 결과는 관련 행사 당일 청소년문화센터 홈페이지에서 게시
- 방역관련 조치는 관련 업무팀 확인(연락처) 게시
- 사전적격검거가 단계 조정에 따라 달라질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최 : 문화체육관광부, 경기도, 평택시, 주관 : 평택시청소년문화센터, 후원 : 평택시교육청

정동희/기자

용인시,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수립

용인시는 14일 쾌적한 대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1급 발암물질로 지정된 미세먼지를 대폭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이 다.

시는 우선 오는 2025년까지 총 2,400억원을 투입해 6개 분야 52개 사업을 추진해 초미세먼지 농도를 지난 2017년 기준 29μg/m³에서 17μg/m³로 약 41% 가량 감소하는데 초점을 뒀다.

이와 관련 시는 지난해 12월까지 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과 미세먼지 종합대책 수립 연구용역을 진행해, 미세먼지 배출량을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한 바 있다.

시는 우선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소규모 영세사업장에 대해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컨설팅을 지원하고, 무인기를 활용해 감시와 점검도 늘린다.

이에 더해, 대형 사업장과는 간이 측정기 설치 협약을 맺어 미세먼지 농도 정보를 공개할 계획이다.

시는 초미세먼지 배출량 중 29%를 차지하는 자동차 등 이동오염원의 오염물질 배출을 줄이기 위해 2025년까지 수소·전기차 등 친환경 자동차를 약 7000대 이상 보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오는 2025년까지 수소 충전소 3곳을 추가 설치하는 등 친환경 자동차 인프라를 보완하고, 노후경용차와 노후 농기계 조기 폐차도 확대 지원할 방침이다.

초미세먼지를 유발할 수 있는 암모니아를 관리할 수 있도록 별도 인력을 배치해 불법 소각 등을 감시하고, 농업지역에서 암모니아를 주로 배출하는 축사 등 암모니아 발생 장

소에 저감 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시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 미세먼지 쉼터 등 미세먼지를 피할 수 있는 공간을 확충하고, 미세먼지 신호등을 매년 확대 설치한다.

더불어 시민들이 미세먼지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더 스마트한 용인 홈페이지'에서 미세먼지농도, 바람길, 열섬현상 정보를 제공한다.

풍덕천2동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에는 미세먼지에 취약한 어린이와 노약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에 창문형 공기청정기, 에어샤워 등을 지원하고, 용인어울림(林)파크를 비롯한 생활권 내 녹색 공간을 확대할 계획이다.

지난해 새로 도입한 미세먼지 이동측정차량과 7개 대기오염측정망을 활용해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시는 '시민이 참여하는 미세먼지 저감 및 대응 대책위원회'를 중심으

최근수/기자



성남시 2025년 이매1동 복합청사 건립...3개 기구 '한 지붕'

동 행정복지센터·농업기술센터·분당권역 평생학습관 들어서

성남시는 오는 2025년 하반기 이매1동 행정복지센터, 분당권역 평생학습관, 농업기술센터 등 3개의 시기가 한 건물에 있는 복합청사를 건립한다.

건립 대상지는 현재 농업기술센터 건물이 있는 분당구 성남대로762번길 2 시유지(2128㎡)와 매입한 양 옆의 국·사유지(4030㎡)를 포함한 6158㎡ 부지다.

시는 최근 이매1동 복합청사 설계 공모를 진행해 응모작 4개 중 ㈜종합건축사사무소 팀의 '지역주민과 소통하고 자연과 상생하는 복합청사'를 당선작으로 선정했다.

이매1동 복합청사는 당선작을 바탕으로 내년 하반기까지 설계용역을 마친 뒤 오는 2023년 상반기에 착공한다.

시는 4층짜리 농업기술센터 건물을 철거하고, 지하 2층, 지상 5층, 연면적 9563㎡ 규모의 이매1동 복합청사를 신축한다.

투입하는 총사업비는 324억원(토지 매입비 37억원 포함)이다.

완공하면 현재 낡고 비좁은 이매1동 행정복지센터(1993년 준공)가 새 청사 1~2층으로 옮겨온다.

농업기술센터는 공사 기간에 인근 건물을 임차해 업무를 보다가 3층에 들어온다.

분당권역 평생학습관은 4~5층에 설치한다. 성남시가 오는 2030년까지 신설하려는 6개 권역별 평생학습관 중 위례에 이어 두 번째 설치다.

이매1동 복합청사는 지역주민에 행정·복지서비스와 도시농업 프로그램,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동시에 제공하는 새로운 모델이 될 전망이다.

이성윤/기자



양주시, 'IGO! 관절염 탈출 프로젝트' 1기 참여자 모집

양주시는 오는 17일부터 28일까지 서부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지역특화사업 'IGO! 관절염 탈출 프로젝트' 1기 참여자를 모집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하체근력 향상 등 관절염·낙상 예방을 위해 60세 이상 관절질환 고위험군 어르신을 대상으로 개인별 보유질환을 참고해 일대일 맞춤형 운동법을 제공한다.

교육은 오는 6월 7일부터 7월 2일까지 주 3회 총 12회에 걸쳐 진행되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오전반(10:00~11:30)과 오후반(15:00~16:30)으로 분반해 소규모 인원으로 진행한다.

프로그램은 관절질환을 앓고 있는 60세 이상 양주시민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신청은 서부건강생활지원센터 전화나 방문 접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역특화사업 운영을 통해 관내 어르신들의 신체활동 증진과 올바른 운동습관을 형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관내 노년인구의 건강증진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적극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부건강생활지원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IGO! 관절염 탈출 프로젝트 1기

양주시보건소 서부건강생활지원센터는 'IGO! 관절염 탈출 프로젝트'에 참여하실 어르신을 기다립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신청기간 | 2021. 05. 17 ~ 05. 28 (2주)
신청방법 | 방문 : 서부건강생활지원센터 (양적면 문화예술회관 2층)
전화 : (031) 8082-4349
모집인원 | 신청순 15명
모집대상 | 양주시에 거주하며 60세 이상인 관절질환 고위험자

운영기간 | 2021. 06. 07. - 07. 02. (매주 월/수/금)
오전반 (10:00 ~ 11:30) / 오후반 (15:00 ~ 16:30)
준비물 | 운동복, 운동화, 마스크

양주시건강생활지원센터

안양시, '들리는 미술, 보이는 음악'으로 일상의 활력 충전하세요

안양시립비산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예술을 통한 일상으로의 복귀' 프로그램 운영

안양시립비산도서관이 오는 6월 3일부터 「길 위의 인문학: 예술을 통한 일상으로의 복귀」를 온라인 강좌로 운영한다.

「길 위의 인문학」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도서관협회가 주관하는 인문학 공모사업으로, 안양시에서는 총 3개 도서관이 대상기관으로 최종 선정됐다. 그 중 비산도서관은 "예술을 통한 일상으로의 복귀"라는 제목의 프로그램으로 지원받게 됐다.

이 프로그램은 비산도서관의 특장점 주제인 미술과 음악을 접목한 '들리는 미술, 보이는 음악'이라는 키워드로 진행한다. 강연, 체험활동, 탐방 등 다양한 형식의 강좌로 구성되는 해당 프로그램은 6월 3일부터 13주에 걸쳐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화상 플랫폼 줌(ZOOM)으로 운영된다.

도서관 관계자는 「길 위의 인문학」이 시민에게 예술에 대한 새로운 시선을 제시하는 한편, 비대면 온라인 방식의 소통을 통해 코로나19로 단절된 관계를 회복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는 발판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원준균/기자

2021 비산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예술을 통한 일상으로의 복귀

들리는 미술 보이는 음악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시민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운영기간
PART 01 6.3. - 8.26 (목) 오전 10시~12시
PART 02 모집대상 일반시민 30명
PART 03 신청기간 5. 18. (화) 오전 10시
PART 04 신청방법 도서관 홈페이지 신청순

주최 :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 양주시건강생활지원센터, 후원 : 안양시립비산도서관

경상남도, 몰라서 낸 세금 경남도가 찾아서 해결합니다!

찾아서 해결하는 지방세 감면 추진, 납세자 권익 향상 성과 탁월

경상남도가 적극적인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으로 장애인·국가유공자 대상 2,281건·3억 700만 원을 부과취소·환급하는 성과를 냈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의 상담이나 요청이 있을 때 관련 업무를 지원하지만, 경남도는 더 나아가 선제적인 납세자의 권익 향상을 위해 2월부터 4월 말까지 '찾아서 해결하는 지방세 감면 추진'을 시행했다.

'찾아서 해결하는 지방세 감면 추진'은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이 감면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나 감면규정을 인지하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한 도민들을 찾아 세무부서에 검토요구를 하는 시책으로, 경남도에서 올해 처음으로 도입했다.

상반기에는 장애인·국가유공자 납세자의 차량을 대상으로, 현재까지 취득세 등 2,281건·3억 700만 원을 부과취소·환급하는 성과를 냈다.

이를 위해 도 및 시군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은 2016년~2020년(5개년)의 방대한 과세자료를 분석해 장

예인·국가유공자 납세자가 감면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는 지방세를 찾아 세무부서에 검토를 요구했다.

아울러 경남도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은 2021년 지방세법 개정 사항 등 알아두면 유익한 세금정보 등을 담은 지방세 안내 책자를 지난 4월 발간하여 지방세 관련 애로사항이 많은 도내 신규 창업법인 및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배부하였다.

'납세자보호관과 함께하는 알아두면 유익한 지방세' 책자에는 달라지는 지방세 관련 법령 및 취득세·재산세 등 지방세 각 세목에 대한 안내와 납세자보호관 제도, 지방세 구제제도 등 생활에 필요한 세무정보 등이 수록되어 있어 납세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2018년도부터 도입된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은 과세관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을 납세자 입장에서 해결하거나 납세와 관련해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 도움을 주는 제도로서,

경남도 및 시·군에 배정된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관련 고



충민원의 처리 및 세무 상담 △세무조사·체납처분 등 권리보호 요청에 관한 사항 △징수유예, 신고·납부기한 연장 등 납세자 권리보호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경남도는 앞으로도 지방세법을 잘 몰라서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세

최광용/기자

박형준 부산시장, "신중년 삶에 힘이 되는 도시로 만들겠다"

'시민의 힘으로 코로나19 위기극복'제5차 '비상경제대책회의' 개최

부산시는 오늘(13일) 코로나19 관련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민·관·학이 다 함께 참여하는「제5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개최하고, 부산시 신중년 맞춤형 지원대책을 위해 경제상황점검 및 당면이슈에 대한 다양한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특히 오늘 5차 회의에서는 부산 신중년이 코로나 등 경제·사회적 위기로 인한 가계 부담 증가 상황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유관기관 및 단체, 채용 계획이 있는 기업 대표 및 학계 등 관련 전문가 20여명이 참여하였다.

오늘 제5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는 부산 신중년의 맞춤형 지원 대책 마련을 위해 ▲신중년 일자리 허브 기능 구축 ▲신중년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확충 등을 통한 사회참여 유도 ▲50+ 신중년 재가 복합타운 조성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부산시는 경제진흥원 산하 시·구군 일자리종합센터와 각 분야별 일자리 지원기관 등 산재해 있는 일자리 분야 전반을 총괄하는 등 일자리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TF팀을 구성해 신중년 일자리 매칭과 전문인력 데이터베이스 관리문제, 기관별 지원 기능 중첩 등을 해소할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시는 시의회와 충분한 논의와 협조를 통해 20여원을 추경에 확보하고,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320명(14억) ▲수익을 창출하는 시장형 일자리 80명(3억) ▲취업알선형 일자리 200명(0.6억) ▲부산형 신중년 고용장려금 지원 100명(2.4억) 등 700명의 신중년 일자리를 추가로 만

들 계획이다. 또한, 전문대를 포함한 산학협력을 통해 맞춤형 일자리를 만들고, 퇴직된 전문인력의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민과 관이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나기로 했다.

더불어 내년에는 재정지원사업을 더욱 확대해 총 7개 분야에 100억원의 재정지원 사업을 통해 1,800명의 일자리를 만들고, 신중년층이 사회적 기업과 비영리 단체 등에 자신들의 지식과 경력을 활용해 공헌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신중년 사회공헌 사업'과 '신중년 자원봉사 활동도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해서 활동 시간만큼 동백전을 지급하는 방식을 도입해 재능기부 활동을 통한 신중년의 사회참여를 활성화 한다는 방침이다.

신중년 인생 후반기 삶의 질 유지를 위한 인생 재설계에 도움을 주고, 생애주기별 복지지원 정책에서 소외된 신중년에 대한 종합지원을 위해 + 신중년 재가 복합타운'조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신중년층은 일자리, 복지, 삶의 질 등 모든 면에서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고, 복지혜택은 65세 이상에 집중되어 있어 여러 가지로 가중된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며, 오늘 회의에서 신중년층이 삶의 이행기에 있어 부산이 갈 길 잃은 삶 전반을 지원하는 곳으로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과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실제로 시민 삶에 힘이 되는 도시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남궁영기/기자

"금정산성 수호대와 지도탐험 떠나요"

금정구 '익사이팅 역사여행 금정산성 수호대' 5월 행사 개최

부산 금정구는 '금정산성 지도 탐험' 프로그램 참가자를 오는 17일부터 온라인으로 선착순 모집한다.

'금정산성 지도 탐험'은 금정구 역사 테마 관광 프로그램인 '익사이팅(Exciting)! 역사여행, 금정산성 수호대'의 두 번째 프로그램으로 지역 대표 문화유산인 금정산성의 역사적 가치를 느끼고 배우며 문화유산을 친근하게 접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달 행사는 오는 29일과 30일 총 2회 가족 단위 행사로 진행된다. 금정산성 4대문 미션 게임, 금정산성 골든벨, 손수건 천연염색 체험, 버블버블 미술공연 등 흥미로운 체험 이벤트로 구성됐다.

참가자들은 10명씩 4개의 팀으로 나누어 이동하며 체온 측정, 마스크 착용 등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참가 신청은 오는 17일 오전 9시부터 금정구청 누리집의 문화관광속 금정산성 수호대에서 접수하면 된다.

정미영 금정구청장은 "가족과 함께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진행으로 참가자들에게 잊을 수 없는 멋진 추억을 선사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화매일=남궁영기 기자] 부산 금정구는 '금정산성 지도 탐험' 프로그램 참가자를 오는 17일부터



온라인으로 선착순 모집한다.

'금정산성 지도 탐험'은 금정구 역사 테마 관광 프로그램인 '익사이팅(Exciting)! 역사여행, 금정산성 수호대'의 두 번째 프로그램으로 지역 대표 문화유산인 금정산성의 역사적 가치를 느끼고 배우며 문화유산을 친근하게 접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달 행사는 오는 29일과 30일 총 2회 가족 단위 행사로 진행된다. 금정산성 4대문 미션 게임, 금정산성 골든벨, 손수건 천연염색 체험, 버블버블 미술공연 등 흥미로운 체험 이벤트로 구성됐다.

남궁영기/기자

김해시, 양성평등기금 지원사업 '직장맘 가사지원 서비스' 운영

(재)김해시복지재단 김해시여성센터(직장맘지원센터)에서는 직장을 다니며 일·가정 양립 병행으로 가사 수납 정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직장맘·대디 대상으로 가사노동 시간 절약 및 쾌적한 가정환경 개선에 도움을 주고자 직장맘 가사지원 서비스를 운영한다.

이번 교육은 5월 29일 개강하여 8월 21일까지 매주 토요일 13회 운영을 하며 교육과정은 수납 전문가의 이해, 거실/신발장 정리수납, 침구 장/ 옷장 정리수납, 냉장고 정리수납/ 재활용품 정리, 서재/자녀 방 정리수납, 옷 세탁장/행거 수납장 등 다양한 공간을 정리수납 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편성하였고, 강의 8주 과정과 현장실습 5회 과정으로 운영 한다.

신청자격은 김해시 거주 및 소재 사업장 근무하는 직장맘·대디 20명을 선착순 접수·선정하여 만 18세 이하 자녀를 둔 맞벌이 또는 한 부모 가정과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인 가정이 우선적으로 서비스 대상이 된다.

모집기간은 5월 14일부터 5월 27일까지로 김해시 공공예약포털로 신청하면 된다.

교육운영은 대면수업으로 진행되며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조정에 따라 시설의 제한적으로 운영하며 코로나-19 기본 방역수칙 의거 수업 전 자체 방역소독 실시와 확산 방지를 위해 강의실 이용인원 제한(4㎡ 당 1명), 띄워 앉기, 마스크 착용, 준수하여 운영 한다.

김해시 여성센터장은 일·가정 양립으로 힘든 직장맘·대디 대상으로 수납 정리를 배우면서 그간 시간에 쫓겨 포기했던 집안 정리를 웃을 개거나 그릇을 수납하는 방법 등에서 시스템을 한번 구축해 놓고 유지할 수만 있다면 그 다음부터는 시간과 효율을 더으로 챙길 수 있고 잘 버리고, 채우고, 정리하다 보면 스트레스도 줄고 좋은 생활 습관도 형성되어 기분전환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남궁영기/기자

2021년 직장맘 가사지원 서비스 참여자 모집 포스터. 모집기간: 5월 14일 ~ 5월 27일. 대상: 김해시 거주 직장맘·대디 20명. 신청처: 김해시 공공예약포털. 문의처: (재)김해시복지재단 김해시여성센터. 연락처: 055-310-8920-1

울주군 - 한국관광공사 관광 두레 조성사업 업무협약

울주군은 13일 오후 5시 군수실에서 지역주민들이 지역 고유의 특색을 지닌 관광사업체를 창업, 경영할 수 있도록 밀착 지원할 수 있는 관광 두레 업무협약을 한국관광공사와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선호 군수를 비롯해 조준미 한국관광공사 부산울산지사장, 구재은 관광두레 PD 등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했다.

두 기관의 협의내용 중 울주군은 ▲관광두레 PD의 활동 지원 ▲지역 내 관광 두레 사업 추진에 따른 행정적 지원 ▲신규주민사업체 발굴 지원 ▲지역관광 콘텐츠 진단 협업, 관광두레 사업 홍보를 지원하고, 한국관광공사는 ▲관광두레 PD 인력 및 주민사업체 역량강화를 통한 관광 두레 홍보마케팅 지원 ▲지역주민 주도형 관광사업 확산 및 지역일자리 창출



지원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앞으로 울주군과 한국관광공사는 지속 가능한 지역관광 사업을 발굴하고 지역관광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협력할 예정이다.

이에 맞춰 다음달 3일에는 한국관광공사에서 뱃관광두레 주민사

업체 설명회'를 개최해 관광두레 조성사업의 포문을 여는 한편 울주군에서 준비하고 있는 공정 여행의 일환인 주민참여형 '주말엔 울주' 사업과 관련해 이번 협약이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한국관광공사와 최대한 협업을 할 예정이다.

김기현/기자

KBS1 '동행' 출연한 한부모가정 주거환경 개선

하동군 북천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군자원봉사협의회·KBS1 '동행' 협력

KBS1 '동행' 프로그램에 출연한 하동군 북천면 한부모가정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민·관 협력으로 추진돼 화제다.

하동군 북천면은 지난 12일 중촌마을에 사는 열일곱 미션이의 행복 찾기 일환으로 낡은 옛집 안팎의 대청소와 함께 새시 및 새 가구를 교체하는 주거환경 개선 활동을 추진했다고 14일 밝혔다.

아빠와 함께 사는 딸 김미선 양은 지난달 KBS1 '동행'에 출연해 관심과 도움으로 한부모가정이 새로운 희망을 얻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통한 어려운 이웃을 살릴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미선 양의 어려운 소식을 접한 북천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강재운)는 하동군자원봉사협의회(회장 오치도·김숙희), KBS1 '동행'과 함께 재능기부 등을 통해 김씨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키로 의기투합했다.

이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자원봉사협의회, 북천면이 이날 17명의 인력을 투입해 김씨 집 안팎에 대한 대청소를 실시하고 폐가구와 생활쓰레기 등을 수거했다.

그리고 KBS1 '동행'의 후원으로 새시와 가구를 새것으로 교체해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부녀가 생활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다 북천면이 이날 폐가구 등 생활쓰레기 무상 수거, 대형 이불 빨래 지원과 함께 기초생계급여 지원 및 장애 등록을 추진 중이며, 향후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을 통해 바닥공사 및 보일러 교체도 지원할 예정이다.

그리고 금정면에 소재한 창원레미콘은 김씨 부녀의 어려운 소식에 앞으로 3년간 매월 30만원씩 전기후원을 약속했다.

강재운 위원장은 "많은 분의 관심과 도움으로 한부모가정이 새로운 희망을 얻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통한 어려운 이웃을 살릴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최광용 면장은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과 도움의 손길을 보내준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는 데 작은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최광용/기자



경주시, 2022년도 국비확보를 위한 당·정협의 개최 및 국비확보방안 논의

경주시는 13일 국민회의와 당정협의회의를 개최하고 2022년도 국도비 예산 확보 및 현안사업 추진 등에 대해 협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는 김석기 국회의원 및 최병준·배진석·박승기 도의원, 서호대 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운영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민선 7기 10대 핵심성과와 22년 국가투자예산 건의사업 대응전략 등을 공유하고 논의하는 자리였다.

당정협의회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재정여건이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에 국비 확보를 위한 대응전략을 마련하고 견고한 공조체계를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한 핵심사업 추진에 총력을 다 할 계획이다.

시는 지역 주요 현안사업 중 SOC 분야에서 △동해남부선 복선전철화 및 영천~신경주 복선전철화 △상구~효현간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 △농소~외동간 국도4차로 건설 △내년 착공을 앞둔 강동~안강 도로건설 △신규사업인 외동~양남간 국도 2차로 개량 △양남~감포2 국도 4차로 확장 △울산 범서~경주간국도 4차로 확장 △혁신원자력연구개발 기반조성사업 등의 신원력을 건의했다.

문화관광분야에서는 △문무대왕릉 정비 △경주 재매정 정비 △육산서원 교육관 및 역사문화단지 조성 △경주 두레한뿌리 스마트 파크 조성사업 등



을 건의했다.

산업에너지분야에서는 신규사업으로 △입자 빔 기반 산학연 이용자 R&D 통합지원 체계 고도화 △전기차류 배터리 공유스테이션 실증사업 △미래자동차용 스마트캐빈 핵심 시스템 기반육성사업 △중수로 해체 기술원 설립 등 4차산업혁명 중심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지원을 요청했다.

덧붙여 △어촌뉴딜300사업 △도시재생뉴딜사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 공모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지원을 부탁했다.

또 비예산사업에 대해서도 특별한 관심을 당부했다. △지방도 945호선 확장 및 국지도 승격, 국도시설개량 병목지점 7단계 사업인 외동~울산시

계간 국도 6차로 확장 △국도28호선 경주 두류공원 진입로 개선 △국도7호선 호명마을 진입로 개선사업 등이 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했고, △지방공항 활성화를 위한 포항 공항 명칭 변경 건도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특히, 지역 정책 현안사업인 △경쟁력 있는 글로벌 외투기업 유치에 위한 경제자유구역 지정(첨단혁신산업지구) △반도체대기방사선 영향시험 플랫폼 구축사업을 위한 양성자가속기 확장사업 정부R&D예비타당조사 사업 통과 지원 △산단대개조를 통한 산업 협력 및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경주 산업단지 대개조 사업 (포항, 영천권 연계) △경주 미래 전

기자자동차 산업 활성화 및 광역 경제벨트 구축을 위한 경주 자동차 소재 부품 장비 특화산업단지 △ICT를 기반으로 빠르게 변하고 있는 현재 관광 산업과 콘텐츠의 변화에 우리 경주시가 민관 협력을 통한 맞춤형 스마트관광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인 경주 '스마트 관광도시' 조성사업 △경주 '문화도시' 조성사업 △경주 '여성친화도시' 지정 △경주 '친환경 치유농업 그린 플랫폼'(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945 지방도 국지도 승격 등에 대해서도 각별한 관심을 당부했다.

정부예산안은 다음달부터 기획재정부의 각 사업별 심의 후 8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에 국회로 제출된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지난해 수십년 묵은 주민숙원사업 해결 및 역대 최대규모 재정확충 등 많은 성과가 있었다"라며, "앞으로도 경주시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함께 뛰어나주시길 바라며, 지역 현안 해결과 국비예산 확보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힘을 실어주길 바란다"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김석기 국회의원은 "당정협의회의 원활한 소통으로 경주가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다"라며, "경주시의 발전을 위해 지역 현안을 잘 챙겨 나갈 것"이라고 화답했다.

한반식/기자

안동 옥동~풍천 구간 국가지원지방도 승격

효율적·체계적 관리로 교통편의 증진 기대!

정부가 주요 거점을 연결하는 지자체 도로의 등급을 일반국도 및 국가지원지방도로 승격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이를 통해 도로 단절 구간이 연결되고, 교통기본권이 제공되어 시민들의 교통 편의가 높아질 전망이다.

지난 5월 12일 국토교통부는 2019년 7월부터 4개월간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도로등급을 승격할 노선에 대한 수요를 조사한 후 정량적 평가기준을 바탕으로 14개 구간을 승격대상으로 선정했다.

이 중 경상북도에서는 안동시가 2016년부터 건의한 국지도79호선 1개노선 35.5km가 승격대상으로 선정되었다. 국지도79호선 중점이 현재 일직면 망호리(망호교차로)에서 풍천면 가곡리(하회교차로)로 변경되는 것이다.

총 연장 35.5km 구간을 자세히 살펴보면 중용 구간인 국도5호선 12km 구간(망호교차로~안동대교 북단교차로)과 승격 구간인 도시계획도로 5km 구간(안동대교 북단교차로~풍산 막곡), 지방도924호선 13.9km 구간(풍산 막곡~안교사거리), 지방도916호선 4.6km 구간(안교사거리~하회교차로)이 해당된다.

국토교통부는 선정된 구간을 대상으로 도로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노선을 지정하여 도로 등급을 확정하고,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사업의 타당성, 우선 순위 등에 따라 구체적 사업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안동 옥동~풍천 구간 도로가 국지도로 승격됨에 따라 경상북도에서 계획 중인 옥동~도청신도시간 직행로 건설사업(2단계)에 국비지원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김세기/기자



"중부권 동서횡단철도(서산~영주~울진) 국가철도망 구축하라"

12개 지자체 시장·군수, 국회의원, 의회의장 국회에 모여 촉구 결의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사업' 국가계획 반영 촉구하는 12개 지자체 연석회의와 촉구 결의대회가 14일 국회의원회관 앞 산림비전센터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장욱현 영주시장, 박형수 국회의원(국민의힘, 영주시, 영양군, 봉화군, 울진군), 이영호 시의회의장(무소속)을 비롯해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12개 시장·군수, 지역구 국회의원, 시의회의장과 담당공무원들이 참석해 지역발전의 초석이 될 중부권 동서횡단철도의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반영해 줄 것을 촉구하며 결의했다.

지난달 22일 공개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의 중부권 동서횡단철도사업의 일부 구간인 점촌~영주(경북선)노선이 신규 사업으로 반영됐으나 여타구간은 추가검토사업으로 반영됨에 따라 재차 중부권 시민들의 열망을 담아 오는 6월말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최종 확정고시에 전 노선이 신규 사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혼신의 힘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12개 시·군이 합심해 13일만에 걸쳐 60만명을 목표로 한 국가철도망구축 촉구 서명운동에서 영주시는 전 행정력을 집중해 당초 목표인 2만명 보다 두 배에 가까운 총 3만 5천여명으로부터 받은 서명부를 천안시와 함께해 국토교통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사업은 지난 2016년 12개 시장·군수 협의회를 구성하고 62만명이 서명한 건설촉구 서명부를 정부에 제출하는 등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힘을 모았으며, 정부 100

대 국정과제 중 지역 공약사업에 확정 반영 및 일부 구간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의 성과를 거뒀다.

협의회는 중부권 동서횡단철도가 완공되면 산업단지 개발과 활성화를 통해 제조업 부문을 중심으로 일자리 14만 7천개가 새롭게 생겨나고, 해양·자연 관광자원에 대한 접근성 개선, 관광단지 개발 촉진 등으로 연간 관광액 3천만 명과 관광수입이 3조 2천억 원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욱현 영주시장은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 및 점촌~영주(경북선) 전철화사업은 지역균형발전과 효율적인 국토개발을 위한 매우 시급한 국책사업이다"며, "시민 모두의 염원인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드시 반영돼 조기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기현/기자



대구시 공공의료기관 역량강화 교육 실시

9개 공공의료기관 맞춤형 공공보건의료계획 수립 기술 지원

대구시와 대구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단장 김중연)은 5월 13일부터 5차에 걸쳐 대구시 공공의료기관 9개소를 대상으로 공공보건의료계획 작성법, 보건 통계 작성법 등 기획력 향상을 위한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한다.

대구시 9개 공공의료기관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8조에 근거해 매년 공공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해 시민의 건강 수준 향상을 위한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은 이에 대한 맞춤형 기술지원과 역량강화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올해 역량강화 교육프로그램은 4월 15일부터 23일까지 실시한 교육요구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기획했으며, 공공의료기관 9개소를 대상으로 5차에 걸쳐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남궁영기/기자

정이다. 첫 번째 순서로 5월 13일(목) 국립중앙의료원 공공의료 평가운영팀의 공공보건의료계획 및 시행결과 작성법에 대한 특강을 온라인으로 실시했다. 이 강의를 통해 중앙정부의 공공의료기관 평가 방침 및 공공보건의료계획 작성 지침을 설명하고 구체적인 우수 사례도 함께 소개해 교육대상자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김재동 대구시 시민건강국장은 "대구시 공공의료기관이 공공기관으로서 책무성을 가지고 보다 효과적인 공공보건 의료사업을 추진하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중연 대구시 공공의료지원단장은 "앞으로도 공공의료기관의 교육 및 기술지원 요구도를 파악하고 이에 대응하는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운영과 기술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영천시, '별'을 품은 보현산댐 인도교 '드디어 첫 삽 떴다'

영천시는 보현산댐을 가로지르는 보현산댐 인도교(줄리다리)가 오랜 준비 기간을 거쳐 지난 5월 13일 첫 삽을 떴다.

화북면 보현산댐 전망대에서 개최된 이날 기공식에는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적용하여 최기문 시장을 비롯한 지역 관계자 및 주민 등 최소한의 인원이 참석했다.

보현산 권역 관광벨트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보현산댐 인도교는 총 사업비 117억원(국·도비 50억, 시비 67억)이 투입된다. '별'을 모티브로 디자인한 2주탑 현수교 방식의 보현산댐 인도교는 총 연장 530m로 국내 출렁다리 중 두 번째 규모이며, 국내 최대 규모의 경관장(주탑과 주탑 사이 거리, 350m)을 자랑한다.

또한 총사업비 50억원(국·도비 30억, 시비 20억)을 들여 보현산댐 둘레길에 탐방로(연장 2.5km, 폭 2.0m)를 조성하고, 인도교를 찾는 방문객들에게 편의시설을 제공하기 위한 주변 정비 사업으로 총사업비 58억원(국·도비 34억, 시비 24억)을 투입하여 주차장(A=8,000㎡, 주차 면수 176대), 수변광장(A=2,900㎡)을 조성하고, 은하수가 음악에 맞춰 연주하는 듯한 경관조명을 연출하여 기

역에 남는 야경을 선물할 예정이다.

지난달 26일 착공한 보현산댐 인도교 설치공사와 더불어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이 모두 마무리되는 2022년 연말이 되면 보현산댐 쉼터와, 인도교(줄리다리) 및 탐방로, 보현산댐 하류공원, 보현산 녹색체험터, 오리장림, 천문과학관, 별빛테마마을, 보현산 자연휴양림,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등의 다양한 볼거리, 즐길거리를 제공하여 영천시를 대표하는 랜드마크로서 영천관광의 미래를 열어갈 것으로 기대된다.

최기문 영천시장 "경주나 포항 같은 인근의 관광도시와 대구, 울산 등 주변 대도시 사이에서 잠깐 '스쳐가는 곳'으로만 인식되던 영천이 이제는 '머물다 가는' 체류형 관광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야심 찬 계획을 밝혔다.

한반식/기자



포항시, '2021년 교복구입비 지원완료'로 시민중심 교육복지 실현

올해 중·고등학교 신입생 8,500명 교복비 지급완료

포항시는 지난 3월 2일부터 2021년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 신청을 한 포항시에 주소를 두고 관내·관외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 8,500명에게 1인당 30만 원씩 총 26억 5천만 원을 지원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지급한 교복구입비는 집중신청기간에 접수한 중1·고1 신입생에게 지급됐으며, △집중 신청기간에 접수를 못한 관내학교 학생 △포항시에 주소를 두고 타지역 학교로 입학하는 중·고등학교 신입생 △포항시 관내학교로 전학오는 1학년 신입생을 위해 11월 30일까지 계속해서 접수를 받고 있다.

2019년 경북 도내 최초로 시행한 중·고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 사업은 '교육복지 3無 정책'(무상급식, 무상보육, 무상교복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3년째 이어오는 시민중심 체감교육복지 사업이며, 호응도와 만족도가 높다.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한 학부모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속에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

고, 교육적자 해소 및 학생들의 교육복지 증진에 적극적인 포항시에 감사하다"라고 말했다.

포항시 관계자는 "최근 교육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따라 교육복지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그에 따른 지자체의 역할과 책임이 커짐에 따라 미래교육도시로서의 경쟁력을 더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다양한 교육정책 사업을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한편,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청소년 및 학부모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포항시 진로진학 센터에서 온-오프라인 병행 교육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특히, 수도권과의 정보격차 해소 및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대학진학박람회 행사가 지연 또는 취소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포항시에서는 도내 최초로 '2022학년도 온라인 대학진학박람회'를 오는 6월 4일부터 10일까지(7일간) 개최할 예정이다.

김기현/기자

2021년도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 받으세요!!

포항시에서는 중·고등학교에 입학한 2021학년도 신입생에게 교복구입비를 지원받는다

지원대상	2021. 3. 28. 기준(입학예정)인 중·고 1학년 신입생으로 포항시에 주소를 두고, 교복을 구입할 수 있는 중·고등학교, 학내·외 소계 중·고등학교 및 교육청을 받는 학내·외 교육기관에 입학한 2021학년도 신입생	지원액	300,000원
지원방법 (금액지부)	입학이나 다른 조세에 지원 받는 경우 그 금액 일부 또는 보조자가 직접 등교로부터 지원을 받는 경우 그 금액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하는 경우 그 금액	지원방법	신청인 계좌로 통금 및 허벅이 편액 일시 지급
지원기간 (금액지부)	2021. 3. 8. ~ 11. 30. (일부 신청기간: 2021. 3. 8. ~ 3. 25.(수))	신청기간	2021. 3. 8. ~ 11. 30. (일부 신청기간: 2021. 3. 8. ~ 3. 25.(수))
신청처	관내학교: 재학중인 학교에 신청서 제출 관외학교 등: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처	신청처: 재학중인 학교, 통정사본 학생지원규정(학칙), 통정사본

구분 일반 중·고등학교

구분	관내학교	관외학교	대안 교육기관
학 교	교복지원 신청서	신청불가	신청불가
신청처	신청 불가 (해당 학교 신청)	신청서, 재학증명서 통정사본	신청서, 재학증명서 통정사본

지원기간 제출서류 확인 후 신청인 계좌로 순차적 입금
문의 교육정보센터 교육지원팀 054270-3061 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지원기관 포항시

오색연등 밝힌 천년고찰 무위사



불기 2565년 부처님 오신 날을 일주일 앞둔 지난 12일 전남 강진군 성전면 월하리 천년 국보 사찰 무위사를 찾은 신도들이 경내에 걸린 오색 연등 아래서 소원을 빌고 있다. 김장길/기자

진도군, 벼·대파·고추 등 농작물 재해보험...농업인 부담 줄여

농가 자부담 20%에서 10%로 경감 지원

진도군이 자연재해로 인한 농업인들의 경영안정을 위해 군비를 추가 투입,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있다. 최근 빈번한 폭염과 집중호우 등 기후변화로 농작물 재해보험의 가입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2,776농가가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해 총 45억4,000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했다. 농작물재해보험 지원 사업은 농협에서 판매하는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잦은 자연재해 발생에 따른 농업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2020년부터

군비를 추가 지원해 군비 30%, 자부담 10%로 농업인의 부담을 대폭 줄여 추진하고 있다. 농작물재해보험 지원 가입 기간은 벼(6월 25일), 대파(6월 18일), 고추(5월 21일)까지로 지역농협에서 가입할 수 있다. 진도군 농업지원과 관계자는 “올해에도 집중호우 등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며 “농가 자부담을 군비로 추가 지원하는 만큼 재해에 대비해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양호/기자



구례군, 송정지구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완료

토지면 송정마을 공공하수처리 실현

구례군은 토지면 송정리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을 마무리 하고 지난 4일 준공검사를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으로 하수처리장(Q=30톤/일) 1개소를 신설하고 하수관로 2.7km를 설치하였으며, 51가구에 배수설비를 연결하는 등 총사업비 29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했다. 이번 사업은 2016년도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되어 환경부로부터 승인을 받고 2018년도에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아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2019년 4월에 공사 착수하여 올해 5월에 사업을 완료했다. 공사 관계자는 “24개월에 걸쳐 도로 및 마을 골목길 관로 터파기를 시행하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많았

을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공공시설설치에 대한 이해와 격려로 안전사고 없이 사업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마을 주민들 또한 이번 사업 완료로 토지면에서 몇 개 남지 않은 하수미처리 마을에서 오는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고 오수정화처리를 통해 보다 더 깨끗한 지방하천 및 섬진강수질 보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김순호 군수는 “향후에도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이 미수립된 마을에 대해서 환경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구례군 공공하수처리구역 확대 및 생활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상홍/기자



광주광역시, 그린 스타트업 타운 조성사업 선정

중소벤처기업부 주관...국비 등 350억원 투입 복합허브센터 조성

광주광역시는 13일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시행된 ‘그린 스타트업 타운 조성사업’ 대상으로 광주가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18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광주역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스테이션G, 지난해 선정된 ‘도시재생 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의 기업혁신성장센터에 이어 이번 ‘그린 스타트업 타운 조성사업’의 복합허브센터까지 총 3개의 성장 단계별 기업 지원 인프라를 확보하면서 명실상부 호남권 최대 창업단지를 조성하는 기틀을 마련하게 됐다.

특히 2조원의 생산유발효과와 1만 6000여 명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그린 스타트업 타운 조성사업은 영국 도시재생의 성공사례인 킥스크로스역을 벤치마킹해 창업기업 지원 인프라와 주거·문화·교통시설 등 생활형 인프라를 결합하는 새로운 개념의 창업 거점 사업이다. 국비 145억원을 포함해 총사업비 350억원을 투입해 창업기업의 R&D지원시설인 복합허브센터를 구축하게



된다. 광주시는 미래 핵심 산업 육성과 창업기업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 광주역 일원에 규모·체계화된 광주형 창업생태계를 집적시키고 정부 그린-디지털 신산업 육성 기조에 발맞춰 지역 주력산업인 친환경에너지, 스마트바이오, 인공지능(AI) 등의 스타트업을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광주역 일원에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초기 창업기업 육성지원시설인 ‘스테이션G’

에 이어 도시재생 혁신지구 사업과 그린 스타트업 타운 조성사업을 통해 2025년까지 ▲R&D고도화 지원시설인 ‘복합허브센터’ ▲창업기업 성장(Scale-Up)과 선배창업기업 연계 지원시설인 ‘기업혁신성장센터’ ▲사회적경제 기업 플랫폼과 문화복합공간인 ‘사회문화혁신센터’ ▲창업클러스터 근로자의 쾌적한 근무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일자리연계형주택’을 순차적으로 구축한다. ‘복합허브센터’는 에너지, 의료 및

헬스케어, 인공지능(AI) 등 타겟산업별 총 30개의 유망기술창업 기업을 선정해 집중 육성하며, 한전 등 지역 내의 기관(분원) 및 기업 부설연구소를 입주시켜 유망 스타트업의 기술경쟁력을 성장시키는데 집중한다.

광주시는 이번 공모사업 선정에 대해 광주테크노파크,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 전남대 등 기존 협력기관은 물론 광주과학기술원, 한국전력, 한국엔젤투자협회 등과 사업추진 협약을 체결하고 친환경에너지, 스마트바이오, 인공지능(AI)를 핵심 육성산업으로 선정하는 등 협력기관과의 지속적이고 유기적인 협업을 하며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운영전략을 수립 하한 것이 성과를 낸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은 “광주역 일원의 창업 지원 인프라 사업은 스타트업 중심의 산업구조 대전환과 우리 청년들의 꿈을 펼칠 수 있는 혁신성장 플랫폼으로 자리 잡을 것이다”면서 “뛰어난 상상력과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들이 창업으로 성공할 수 있는 든든한 인프라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덕윤/기자

완도 해상서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규탄’ 시위

수산 관련 18개 단체 뜻 모아, 선박 60척 동원 해상 시위 벌여

완도군의 수산 관련 18개 단체에서는 지난 13일 오전, 완도항 1부두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규탄대회를 가졌다. 이날 규탄대회에는 사)완도군어선연합회의 주최로 진행됐으며, 금일수협, 소안수협, 전남연안선망협회, 완도군 낚시어선연합회, 완도무선안전국, 사)한국해양구조단 완도지역대, 완도형망협회의, 완도읍민영회, 전국연안어업협회,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완도지사, 제일연승협회, 주도어선회, 문어단지연합회, 통발자율공동체, 사)완도군장남협회, 사)완도군미역협회 등 수산 관련 단체와 신우철 완도군수, 완도군의회, 지역 주민 등 300여 명이 뜻을 모았다. 지난 4월 13일, 일본 정부에서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결정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해양에 방류되면 해양 생태계 오염으로 어업인의 생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수산업, 국민의 생명과 건강 등이 위협을 받게 된다. 특히 수산물 소비 급감, 어촌 관광 기피 등으로 수산업 피해는 향후 20~30년간 농민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완도군 수산 관련 단체에서는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철회를 촉구하고자 규탄대회를 가졌으며, 규탄대회에서는 개회사와 격려사에 이어 후쿠시마 원전 장례 퍼포먼스, 가두 행진, 선박 60여 척을 동원해 해상 시위를 벌였다. 규탄대회에 참가한 수산 관련 단체에서는 “일본은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을 철회하고, 정부에서는 국민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방사능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고, 원산지 표시 단속 강화 등을 통한 수산물 안전 관리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일본의 파멸적인 행위로 청정바다를 절대 잃을 순 없다.”면서 “일본 정부가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을 철회할 수 있도록 힘을 모

아 대응하고, 군도 군민의 안전과 대한민국의 청정바다수도 완도를 사수하는데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완도군은 지난 4월 14일,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을 규탄하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양영욱/기자

광양시, ‘전남 가정의 달 5월, 추천관광지 63선’ 3곳 포함

섬진강끝들마을, 광양와인동굴 & 에코파크, 옥룡사 동백나무숲 등 선정

광양시가 섬진강끝들마을, 광양와인동굴 & 에코파크, 옥룡사 동백나무숲 등 3곳이 전라남도가 선정한 ‘5월 가정의 달, 가볼 만한 관광지 63선’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5월 가정의 달 가볼 만한 관광지 63선’은 전라남도가 가족과 함께 소소한 행복과 추억을 쌓을 수 있도록 엄선한 청정 전남의 대표 안심 여행지다. 섬진강끝들마을은 광양 최동단 섬진강변 휴양지로 천연염색, 도자기체험, 목공예, 원예, 아트자전거 등 폭넓은 체험이 가능하다. 오는 10월엔 작은 미술관도 개관 예정이어서 문화예술까지 즐길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인근 MTB 체험장과 섬진강이 남해와 만나는 망덕포구의 ‘윤동주유고 보존 정병욱 가족’도 반드시 들러야 할 곳으로 손꼽히고 있다. 광양와인동굴은 오브젝트맵핑, 미디어파사드, 인터랙티브존을 갖춘 이색공간으로 와인의 역사와 함께 세계 여러 나라 와인을 음미하고, 느긋하게 와인족욕도 즐길 수

있다. 와인동굴과 연결한 광양에코파크는 압벽 등반, 화석 탐사 등 어린이들의 도전과 상상을 불러일으키는 콘텐츠로 가득해 오감을 한껏 자극하는 곳으로 가정의 달, 더 없는 선물이 되는 공간이다. 광양옥룡사 동백나무숲은 선각국사 도선이 옥룡사를 중수하고 땅의 기운을 북돋우기 위해 심은 동백나무로 이뤄진 숲으로 천연기념물 제 489호로 지정됐다. 옥룡사는 불타 없어지고 터만 남았지만 빼빼한 동백나무숲과 대조를 이루며 비움과 채움의 미학을 실현한 곳으로 석가탄신일 안성맞춤 여행지다. 동백나무숲 오솔길로 연결된 운암사는 소실됐다가 1993년 종견스님이 다시 일으켰으며, 절 마당에 우뚝 서 있는 40m 규모 황동약사여래입상은 운암사를 대표하는 랜드마크다. 박순기 관광과장은 “광양은 가족과 여행하기에 안전하고 유익한 장소가 많다”며, “바쁘고 지친 현대인들의 푸른 쉼표가 될 수 있는 공간을



지속적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5월 가정의 달 가볼 만한 관광지 63선’은 전라남도 관광정보시스템 ‘남도여행길잡이’와 관광 SNS 트위터,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의 남도여행길잡이 채널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기식/기자

2023새만금세계잼버리 성공 개최 정영애 여성가족부장관 송하진 전북도지사 의지 재확인

코로나 등 어려운 여건 극복 위해 긴밀 협력 다짐

전라북도과 여성가족부가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 성공 개최를 위해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자는 의지를 다지는 자리가 마련됐다.

송하진 도지사는 13일 세계잼버리 조직위원회 전북사무소(신재생에너지테마파크 내)에서 새만금 세계잼버리 추진 상황 점검에 나선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을 만나 새만금 세계잼버리 성공개최를 위해 여가부와 전북도가 앞으로 더욱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며 “지난 4월 7일 세계잼버리 정부지원위원회가 구성된 만큼 국무총리 인준이 마무리되는 대로 빠른 시일 안에 회의를 개최하여 범정부 차원의 지원 태세가 구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빠르면 다음달 안에 정부지원위원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또한 “코로나19로 우리 모두가 겪고 있는 큰 고난의 시기가 빠르게 종식되기를 바라며, 이후 청소년 활동이 새롭게 도약하는데 있어 세계잼버리가 중요한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지원위원회는 잼버리지원특별법에 근거한 정부차원의 지원 조직으로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15개 부처 장관과 전라북도지사, 조직



위원장 등 3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향후 세계잼버리 관련 주요 정책과 대회 준비와 관련해 범정부적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논의하게 된다. 이날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새

익산역 계단을 활용한 이색적 교통안전홍보 눈길

익산경찰서·익산시·익산역 협업, 주요교통안전정책 홍보 앞장

익산경찰서(서장 송승현)는 익산시, 코레일 전북본부와 협업으로 올해 경찰청 주력과제 중 △안전속도 5030 △보행자(교통약자) 안전 △음주운전 근절 등 총 3가지를 선정하여 익산역 중앙광장에 있는 계단(3단)에 디자인 래핑을 통해 이색적인 홍보를 시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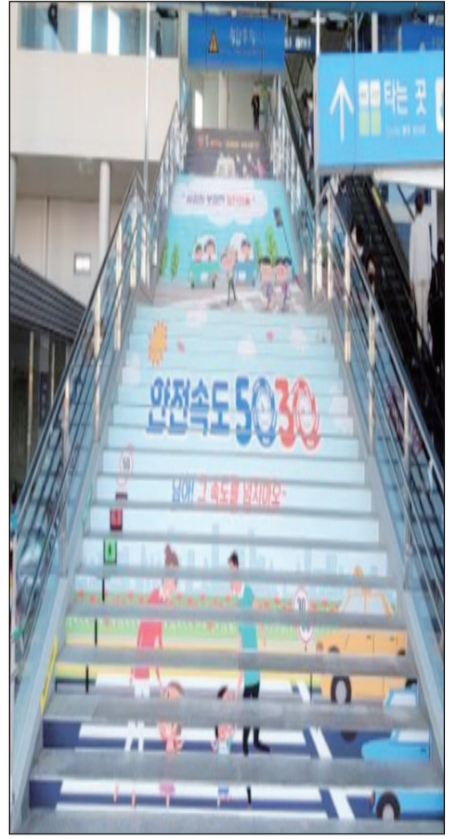
익산경찰서는 우리 지역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고, 교통문화지수 향상을 위해 고민하던 중 유동인구가 많은 익산역 중앙광장 계단을 적의 장소로 선정하였고, 시민들과 관광객이 알기 쉽게 접할 수 있는 디자인 래핑 사업을 위해 익산시청 및 익산역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진행해 왔다.

계단래핑은 용산역, 서울시 지하철 등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설치해 사람들의 눈길을 끌어 실제 상업광고로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 이번에 익산역은 공익목적의 광고를 이례적으로 진행했다.

3단의 계단 형태 중 1단은 안전속도 5030의 「남아 그 속도를 넘지 마오!」, 2단은 「사람이 보이면 일단멈춤!」, 「3단은 술과 운전은 영원히 거리두기」로 메시지를 구성했다.

통관리계를 필두로 타부서 간의 협력, 외적으로는 지자체, 코레일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이 만들어낸 의미 있는 결과물'이라며 '익산 교통문화 발전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지'를 당부했다.

이선수기자



송승현 익산경찰서장은 '이번 계단 래핑 홍보는 경찰서 내적으로 교

남원시,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 점검 보고회 개최

부처 건의결과 점검·대응방안 모색 등 최대 예산안 반영 다짐

시는 13일 이환주 시장 주재로 부시장, 국·소장, 해당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출장결과 및 공모사업 대응 계획 보고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지난 3월 1차 보고회 개최 이후 2차 중앙부처 출장결과 및 공모사업 대응상황에 대해 집중논의가 이루어졌다.

특히 5월 말까지 각 부처별 예산편성이 마무리 되는 만큼 이환주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등은 수시로 중앙부처를 방문해 총 129개 국가예산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을 건의해 왔다.

지정(국비 60억원), ▲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 사업 등에 대해서는 대응 논리를 보강하고 지역 국회의원 등 정치권과 공조를 한층 강화해 대응할 계획이다.

또한 공모사업의 경우 어린이 체험과학관 조성(국비 10억원) 등 21개 사업이 선정된 가운데 사업의 적정성, 주민의견, 사업효과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선정률 제고를 위한 대응방안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 세전지구 배수개선사업이 농림축산식품부 대상에 선정돼 국비 103억원을 확보하였으며, ▲ 스마트 남원하수처리장 선도사업(국비 30억원), ▲ 만복사지 고증연구 및 디지털콘텐츠 개발(국비 14억원), ▲ 해재위험저수지 정비사업(국비 20억원), ▲ 향교공원-광치천 도시생태축 복원사업(국비 42억원), ▲ 남원목기 산업특화립 조성사업(국비 10억원) 등 대부분의 사업들에 대해서도 중앙부처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다.

시는 ▲ 농촌협약 체결(국비 300억원), ▲ 도시재생 뉴딜사업(국비 80억원), ▲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국비 193억원), ▲ 국민체육센터 지원(국비 10억원), ▲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국비 15억원) 등 총 85건의 공모사업에 대응 중에 있다.

이 시장은 이날 “전국 지자체가 치열한 국비 확보경쟁을 벌이고 있는 만큼 우리시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의 당위성과 차별성을 마련하여 설득하고 설득하는 노력이 필수적이다. 각 부서장은 세심하게 진행상황을 점검하여 국가예산확보에 끝까지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남출기자

군산시,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공모 선정

군산시는 고용노동부 주관 '2021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사업' 공모에 선정돼 4억 2천만원의 국비를 확보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공모사업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내 경력단절여성 및 고졸 청년을 대상으로 지역산업 특성에 맞는 직업훈련, 취·창업 등의 일자리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는 청년특화 분야에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일자리사업은 '군산 대형수송·건설기계 정비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이다. 군산 상용차·건설기계 정비산업의 전문인력 양성과 취업 연계를 목표로 관내 고등학교, 전북새만금산학융합원, 건설기계부품연구원, 상용차·건설기계 산업체 등 지역사회와의 협업을 통해 사업을 추진한다.

사업 대상은 만 39세 이하의 미취업 지역 청년이며,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인 청년을 우선 지원한다. 주요 내용은 △찾아가는 일자리 △자격취득과정운영 △일자리플랫폼 구성이다. 면접 컨설팅, 동행면접 등 취업 연계를 위한 맞춤형 고용프로그램과 자동차 정비·건설기계 정비사 자격취득을 위한 교육훈련을 지원한다.

시는 이번 공모사업을 통해 54명의 청년 취업을 목표로 하며, 고용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자격취득과

정을 수료한 후 취업한 청년에게 월 50만 원 이내의 고용장려금을 최대 4개월간 지원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 산업 특성에 맞는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구직자가 안정적으로 취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타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전북새만금산학융합원, 군산고용위기중립지원센터, 시 일자리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김현태기자



담양군, 공공자원 개방·공유로 사회적 가치 실현 앞장!

담양군이 공공부문 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군민 편의 증진을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공유누리' 서비스의 확대 운영에 나선다.

군은 지난해 '공유누리' 시스템에 등록된 39개 서비스에서 신규 개방 가능 자원을 적극 발굴해 올해 100개 이상의 서비스를 개방·공유하는 등 확대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난 4월 실과소와 읍면별도 공유누리 시스템 담당자를 지정하고 기존에 등록된 40개의 공공개방 자료의 정비를 마쳤다.

아울러 이달 21일까지 부서별로 관리하고 있는 담빛농업관 공영장, 회의실, 체육시설을 비롯, 문화·공연·교육 프로그램 등 다양한 분야의 신규자원 적극 발굴과 공유를 통해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공공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즐길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코로나19 방역물품 대여 서비스를 비롯해 공유누리의 공유지도 서비스를 활용해 주요 관광지를 비롯한

담양읍 곳곳에 조성되어 있는 공영주차장, 공중화장실 등의 위치 정보 제공 등 주민 생활 밀착형 서비스 제공으로 군민과 관광객의 이용편의를 더욱 높이고자 한다.

군 관계자는 “군민들이 필요로 하는 공공자원을 보다 편리하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공공자원수를 대폭 확대하고, 정확한 정보제공과 지속적인 시스템 관리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유누리'란 행정안전부와 조달청이 구축한 공유서비스 통합 플랫폼으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시설과 물품 등 공공개방을 국민 누구나 온라인에서 쉽고 편리하게 검색하고 예약하는 대국민 공유서비스다.

시설예약에 희망하는 군민들은 공유누리에 회원가입 후 지역·종류별 이용 희망시설의 운영시간, 예약방법 등을 확인해 신청하면 된다.

오홍관기자

남원 농·축산물로 가장 맛있는 요리 만들기

2021 남원시 유튜브 영상 공모전

접수기간 : 2021. 8. 1(일) ~ 8. 9(월)

공모내용
남원 농·축산물을 재료로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 맛있게 먹는 영상

결과발표
2021. 8. 31. 시 홈페이지 공지 (예정)

작품심사
심사위원 10명 선정 후 국민심사 (유튜브 좋아요 득표수 평가)
최종선정 : 심사위원 점수 50% + 국민심사 점수 50%

출품작규격
아래 3가지 내용을 모두 포함해야 함.
① 영상 자막 또는 화면에 남원 농산물을 구입처 표기
② 요리 방법 소개
③ 맛있게 먹는 먹방
※ 출품작 규격 이외 영상 촬영 장소, 내용 구성, 화질 구성 등은 자유형식으로 하되 영상 길이는 최대 10분을 넘지 않도록 함

시상내역

구분	작품수	시상금	비고
대상	1	3,000천원	상금
최우수상	2	각 1,500천원	
우수상	2	각 1,000천원	
입선	5	각 300천원	
제출방법	참가신청서 1부, 요약서 1부, 출품작 1편 제출(hijins@korea.kr)		

문의처
남원시청 홍보전산과 홍보계 ☎063-620-6044
※ 기타 세부사항 및 신청서류는 남원시청 홈페이지 참고

이거 보면 먹고 싶을걸~

강릉시,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한 '도심 공영주차장' 유료화 추진

강릉시 성남동 13-1번지 일원에 위치한 도심 공영주차장이 내달 1일부터 유료로 전환된다.

강릉시는 옥전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중심상권 활성화 및 원도심 기능 회복을 위한 '도심 공영주차장' 조성을 지난 1월 준공, 2월부터 일시적으로 무료 개방하였으나,

이달 유료화를 위한 주차 관제시스템 및 무인정산시스템 설치를 마치고, 당초 계획대로 오는 6월 1일부터 유료로 운영할 계획이다.

'도심 공영주차장'은 국비 9억 원을 포함 총 1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1층 49면, 2층 43면 규모인 총 92면으로 조성되었다. 1층은 운영·관리 협약을 통하여 강릉농협이, 2층은 강릉시에서 각각 운영하고 있으며 이달 유료화되는 구간은 강릉시에서 운영하는 2층 43면이 해당된다.

주차장 운영 시간은 8시부터 23시까지이고 이용요금은 강릉시 주차장 관리 조례에 따라 최초 30분 500원,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200원, 일일 최대 요금은 10,000원이다. 현금결

제는 불가하며, 무인시스템을 통한 카드 결제만 가능하다.

김두호 교통과장은 "도심 공영주차장 유료화를 통해 장기주차 차량 및 푸드트럭, 대형화물차량, 광고차량, 캠핑카 등 불법 차량으로부터 주차장 질서를 확립하고, 주차 순환율을 높임으로써 도심 상권 활성화와 시민 및 관광객 편의를 지속적으로 도모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최재은기자



동해시, 포스트 코로나 대비, 관광 판도 대변화

동해시가 새로운 관광 트렌드를 창출하고자 주요 관광지에 체험시설을 대폭 확충하는 등 지역의 새로운 관광 지도를 그리고 있다.

동해시(시장 심규언)는 민선 7기 시작과 더불어 무릉·추암·천곡·목호·망상 등 5대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올해 그 완성을 앞두고 있다.

우선, 무릉권역은 작년 8월 신규 개발한 벚꽃바위 산성길은 벚꽃빛 지 비경, 천하비경 장가계, 소금강이라고 불릴 정도로 아름다운 경관을 자아내고 있어, 많은 등산객들이 감탄을 자아내고 있으며, 올해 새롭게 신설된 관광시설인 호랑이가 건너 뛰러다 빠져 죽었다는 전설이 있는 '무릉달빛 호암소길'생태탐방로를 비롯해, 5월 말에는 벚꽃바위를 능가하는 두타산 협곡 마천루 코스도 개방을 앞두고 있다.

또, 시는 무릉계곡 인근 채광을 종료한 쌍용양회 제3지구 폐광지 일대를 경쟁력 있는 신성장 동력사업으로 육성, 친환경적으로 복구해 관광·문화공간으로 탈바꿈시키고 있다.

무릉 건강·복합체험 관광단지는 '무릉별유천지'란 이름으로, 삼화동 일대를 복합체험 관광지(무릉3지구)와 건강생명 휴양지구(삼화유원지)로 구분해 특화시설을 도입한다.

해당 지역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스카이라이프를 비롯해, 라벤더단지, 에메랄드빛 호수를 활용한 힐링공간 조성은 물론, 알파인코스터, 롤러코스터형 썰라인, 오프로드 루지와 무케도 열차 등 이색적인 액티비티 체험시설을 갖추고 올 하반기 개장을 앞두고 있으며, 향후 민자유치 등을 통해 특화시설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어, 추암권역에는 추암썰매대바위를 바라보는 일출명소 능파대 정자가 오는 6월 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주변에는 기존 출렁다리와 무궁화동산이 꾸며져 색다른 관광지로 발돋움 하고 있다. 시는 향후 추암 유원지와 추암조각공원을 테마를 갖춘 공간과 일출과 야간경관 관광명소로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천곡권역은 시내 중심과 가까운 곳에 위치한 행복'한섬'에 해파랑길과 연결된 해안 테크 산책로와 리드

미컬 게이트·벤티널이 조성돼 많은 이용객들이 바다와 어우러진 바다 경관을 즐기러 찾고 있으며, 현재 추진 중인 한섬 감성 바닷길 조성사업과 앞으로 한섬 마리나 항만을 조성, 종합해양레저 지역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또, 천곡중심시까지 명품거리 조성사업에도 박차를 가해, 공공미술 프로젝트와 연계한 명품 시가지를 만들어, 천곡 일원을 도심 속 감성 관광 명소로 조성한다.

목호권역은 목호 논골담길, 목호 등대와 더불어 전통방식으로 명태를 말리는 목호덕장마을의 체험 프로그램, 푸드센터, 덕장 홍보시설 등을 갖추고 6월 완공을 앞두고 있으며, 도제비골 스카이라이프와 해상교량 전망대인 도제비골 해양전망대는 하늘 산책로에서 목호등대와 광활한 바다 전경을 감상하고, 파도소리와 바다내음을 체험할 수 있는, 복합체험에 감성을 더한 체험형 관광지원으로 거듭난다.

해양·캠핑 관광명소인 망상권역은 2019년 대형산불로 큰 피해를 입었던 망상오토캠핑리조트의 창조

적 복구를 통해 캠핑존, 리조트존, 한옥존, 시 경계존 등 4개 존으로, 트리하우스, 야외 수영장 등 특화시설을 갖춰 올 10월 준공될 예정이다.

망상 이색해변 관광특화거리, 망상 숲속 힐링쉼터 조성 등 힐링 해변으로의 새로운 변신으로, 세계적 체류형 명품관광지로 탈바꿈한다.

동해시는 이같은 5대 권역별 관광개발 추진으로, 지난해 3월에 개통된 KTX와 더불어 한-라-일 국제크루즈웨이 운항, 목호항 울릉도 여객선 운항 등 증가한 관광수요와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해 기존의 단순 관광형 관광지를 벗어나 힐링과 체험이 있는 맞춤형 관광환경을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심규언 동해시장은 "신규 액티비티 관광지 조성과 더불어 '미소도 관광이다'라는 친철 캠페인을 가미하여, 보다 성숙한 관광문화를 확산하는 한편, 5대 권역별 관광개발계획 관광지원으로 거듭난다. 포스트 코로나 이후 동해시 관광 판도의 대변화를 이루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등원기자

강원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이달 말 신청 마감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을 신청하지 않은 농업인은 이달 5월 31일 이전에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여야 지불금을 받을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최근 직불금 미신청 농업인을 대상으로 직불금 신청 독려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바 있으며,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미신청 농업인은 서둘러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도록 당부한 바 있다.

신청 마감기한 5월 31일까지 직불금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2021년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수령 기회는 상실된다.

이등원기자

5월 13일 현재 신청서를 제출한 농업인은 55,666명으로 지난해 신청 총 71,263명(지급 1,312억원) 대비 78% 상당으로 신청 시기적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속도로 원활하게 진행 중이다.

강원도 친환경농업과장은 직불금 미신청 농업인이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여 직불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하면서 시군과 긴밀히 협조해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선군 사북신협, 코로나19 극복 해파랑길 대중주 남북평화통일 기원식 개최



사북신협에서는 13일 오후 1시 고성 통일전망대에서 코로나19 극복 해파랑길 대중주(부산오륙도~고성 통일전망대 770km) 남북평화통일 기원식을 개최했다.

이날 기원식에는 김윤식 신협중앙회장을 비롯해 안병대 신협전국협회장 대표회장, 송계호 사북신협이사장, 성희직 광부 시인, 신협 조합원,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극복 평화통일기원 퍼포먼스, 성희직 시인의 통일전망대 시 낭독, 우리의 소원 통일 노래제창 등으로 진행되었다.

사북신협은 최근 몇 년 사이 자산이 700억 원대로 급성장하며 사회공헌사업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부산 오륙도 해맞이 공원에서 고성 통일전망대까지 770km "해파랑길 트레킹"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10월부터 현재까지 울진에서부터 고성까지 약 300km 구간 트레킹을 진행했으며, 올해 연말까지 울진에서부터 부산 오륙도 해맞이 공원까지 470km 구간에 대한 대중

주를 마무리 할 계획이다. 해파랑길 트레킹은 송계호 사북신협 이사장을 비롯한 조합원, 임직원 등 25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등 휴일을 이용해 신협 깃발과 리본 등을 활용해 코로나19 위기 극복 의지를 담은 홍보 활동을 병행하며 대중주를 진행하고 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강원랜드 카지노 부분 개장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정선군을 비롯한 지역 소상공인, 주민 등을 위하여 슬기로운 코로나19 위기 극복의 염원을 전하고자 사북신협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번 해파랑길 대중주에 신협중앙회에서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13일에는 김윤식 신협중앙회장을 비롯한 안병대 안병대 신협전국협회장 대표회장, 강원도내 신협 이사장, 신협 임원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약 2km구간을 함께 걸으며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남북평화통일을 염원하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

최근수기자

속초시 SNS 채널로 시민과 통(通)하다

시 공식 SNS 채널 이벤트를 통해 시민과 소통 강화

속초시가 오는 19일까지 속초시 공식 SNS 채널을 통해 시민과의 소통 강화를 위한 SNS 댓글 이벤트 '궁금해요 속초시!'를 진행한다.

이벤트는 속초시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속초시 공식 페이스북 페이지 상단 게시물에 평소 속초시에 궁금했던 점을 댓글 자유롭게 물어보면 된다.

특히 달린 댓글 중 공감에 많은 댓글 10개를 선정해 다음 달 시정소식지에서 직접 대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되며, 선정된 10명에게는 1만원 상당의 모바일 커피 쿠폰도 지급된다.

시는 현재 페이스북 외에도 인스

타그램, 네이버블로그, 카카오톡 채널 4곳의 공식 SNS를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속초 소식 알림 문자서비스 '속초래(來)요'는 시작한 지 1달 만에 741명이 가입하는 등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시민소통 창구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하성란 시 공보감사담당관은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는 멀어졌지만 SNS채널을 통해 시민과의 거리는 더욱 가까게 만들겠다."라며 "시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보내주신 다양한 의견은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최재은기자

2021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접수 안내

사업목적
환경보전, 농촌공동체 유지, 식량 안전 등 농업 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 도모

신청기간/접수처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제출서류
• 공통 :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신청서, 임대차계약서(21.9.30일 이전 일차종료자)
• 소농직불금 및 승계 신청자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신규신청자, 관리경작자 : 농지 소재지 아동복지 담당관 경작사실확인서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공익직불제 상담센터(1644-8778(내선 2번))
농림축산식품부 직영 기관
국립농산물관질관리원

시민소통 SNS 댓글 이벤트
궁금해요 속초시!

일한 질문을 올려주신 10분께는 모바일 기프트권을!
질문에 대한 답변은 6월호 속초소식지에서 들려드립니다!

이벤트기간 2021. 5. 12.(수) - 5. 19.(수)

참여방법 평소 속초시에 대해 궁금했던 사항을 댓글로 알려주세요(50자 내외)

이벤트상품 스타벅스 달콤한 디지털 세트 (10명)

삼척시, 2024년 완공 목표! 도계4리 달전지구 새뜰마을사업 추진

삼척시는 2024년 완공을 목표로 사업비 40억 8천만원(국·도비포함)을 투입해 올 3월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인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으로 선정된 '도계4리 구공탄마을 달전지구 새뜰마을사업'을 추진한다.

도계4리 구공탄마을 달전지구는 1960~1970년대 형성된 광산촌으로 당시 도시계획의 미비로 인해 부분별하게 지어진 주택이 아직도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1989

년 석탄산업합리화 정책으로 인하여 지역발전 기반산업이 거의 없는 지역이다.

이에 삼척시는 달전지구의 열악한 기초 생활 인프라를 정비하고 노후 불량한 주택환경을 개선하며, 지역주민들의 능동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속가능한 활력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삼척시는 2021년까지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우선순진 사업을 시행

하고 용역 결과에 따라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달전지구의 안전 확보를 위해 산사태 낙석방지시설, 홍수에방막 낙석·추락방지시설, 보안등 및 CCTV, 소화전 등을 설치하고 주변 지역의 위험목을 제거할 계획이다. 또한 슬레이트 지붕 개량, 집수리, 빈집철거, 중정식 가스보관합설치 등 주택정비도 진행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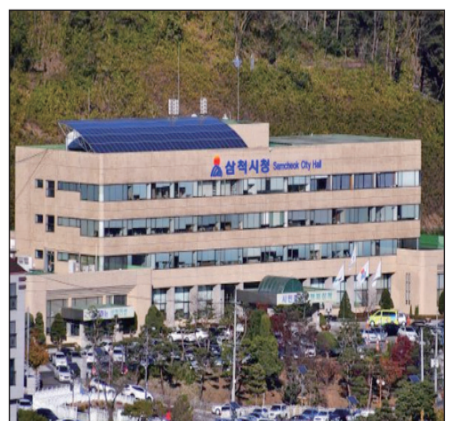
아울러, 주민들의 생활·위생 인프라구축을 위해 에코커뮤니티센터, 순환형 공유주택 조성, 마을공공미술 경관개선, 수변공원 및 쌈지 텃밭, 화단조성, 전기차량 충전소 및 주차장 설치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순환형 공유주택 운영, 주민치유 프로그램, 생활 및 관광문화 기록화 사업, 구공탄마을 플라자, 위생 및 방역시스템 구축, 소식지 및 마을홍보영상 제

작 등 휴먼케어와 주민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실시해 달전 지구 일대를 변화시킬 예정이다.

삼척시 관계자는 "도계4리 구공탄마을 달전지구 새뜰마을사업이 지역주민들의 안전한 주거환경 확보에 기여하고 기본적인 삶의 질을 개선하는 등 지역사회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재은기자



광주광역시 상임위원회 오윤수, 정책자문관 양성진

광주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는 13일 사무국장을 겸하는 상임위원에 오윤수 전 광주경찰청 보안과장을 임용을, 정책자문관에 양성진 전 광주경찰청 1부장을 위촉했다.

오윤수 상임위원은 전남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광주경찰청 정보과장, 생활안전과장, 보안과장을 두루 거친 치안행정의 분야 전문가로 평가된다. 오 위원은 지난 10일 열린 자치경찰위원회 1차 회의에서 참석 위원들의 만장일치로 선출됐으며 위원장 임명 제청을 거쳐 정식 임용됐다.

자치경찰 정책자문관으로 위촉된 양성진 전 광주경찰청 1부장은 자치경찰제 시행 초기 내실 있는 정책 개발, 안정적 제도 정착, 원활한 소통과 협력 등을 위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한다.

양성진 정책자문관은 경찰대학교(1기)를 졸업하고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장, 광주경찰청 1.2부장을 역임하는 등 지역의 치안여건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경찰 행정 전문가 출신으로 자치경찰제가 조기에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

광주시는 상임위원과 정책자문관에 역량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들이 인선되면서 자치경찰제가 조기 안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지난 5월10일 출범한 광주 자치경찰위원회는 6월30일까지 시범운영되며, 7월1일부터 본격 운영된다.

김덕윤기자

전문성·경험 갖춰 자치경찰제 조기 안착 기대



경상북도농업기술원 작물연구과 한채민 연구사가 2021 한국작물학회 온라인 춘계학술대회에서 '신진과학자상'을 수상했다.

한채민 연구사는 '경북지역 주요 벼 생태형 품종별 드문모심기 재배법에 따른 전분의 이화학적 특성(Physicochemical Properties of Rice varieties according to planting density for Ecotypes)'이라는 주제로 연구한 결과를 발표하여 우수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본 연구는 경북지역 주요 벼 품종인 '일품'과 '백옥찰'을 소재로 드문모심기에 따른 전분의 이화학적 특성을 비교 분석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특히 심는 거리에 따라 포기당 가지기기에 걸리는 시간이 달라 쌀 품질에 영향을 줄 것을 착안하여 전분의 특성을 연구했다.

1962년 창립된 한국작물학회는 국내 작물분야의 가장 권위 있는 학회

로 작물의 재배, 생리, 유전, 육종 등에 관한 국내외 연구자들의 우수한 성과를 발표하는 학회로 올해는 '농업생산기술의 디지털 혁신'이라는 주제로 온라인 비대면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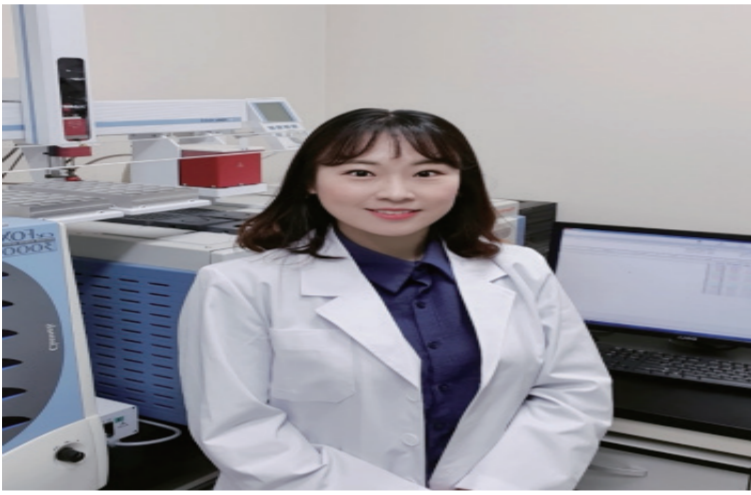
특히 한채민 연구사는 지난 2019년, 2020년 한국작물학회에서 가뭄 스트레스를 유도한 벼의 엽록소 형광반을 변화와 전자코를 이용한 쌀 가루와 쌀죽의 휘발성 방향성분 패턴 차이에 관한 주제의 연구발표로 2년 연속 우수포스터발표상을 수상 바 있어 지난 2019~2021년까지 3년간 연속 수상으로 기관의 위상을 높였다.

신용습 경상북도농업기술원장은 "앞으로 농업기술원의 젊은 차세대 연구자들이 역량을 키워 다양한 분야에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김세기기자

경상북도농업기술원 한채민연구사 '신진과학자상' 수상

2019년부터 3년 연속 우수포스터발표상, 신진과학자상 등 수상



서산여고 서산시의회 의장 초청 간담회 개최

학교현안 문제 지역사회와 교육공동체가 함께 풀어요!

서산여자고등학교는 지난 12일, 학교운영위원회 주관으로 서산시의회 의장 초청 학교현안 문제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 하였다.

간담회에서는 이연희 의장님을 비롯한 김명환 학교운영위원장과 김민영 학부모회장, 학부모위원 그리고 학교장 및 관계 공무원 등 총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지키며 실시했다

이번 간담회는 안전한 학생 통학로 확보를 위해 지역사회와 교육공동체가 같이 개선 방안을 강구하고자 마련되었다.

첫 번째 사안은 교문 앞 학교부지에 무허가 건물기 무단 점유하여 등하교 시간에 교통 혼잡과 교통사고 등의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두 번째 화두는 교문 앞 좁은 도로에 불법주정차와 무허가 건물로 학

생들의 통학로가 침해받고 있는 상황으로 안전한 통학로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심각성을 해결하기 위해 간담회에서 토의는 열정적으로 진행되었다.

학부모대표로 참석한 오은정 학부모위원은 "본인도 여고를 졸업하였고 자녀가 이 학교에 다니는데 심각한 안전문제를 인지하지 못했다며, 지역사회와 교육공동체가 함께 해결하여 학생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길 간절히 바란다."고 안타까움과 당부의 말을 전했다.

아울러, 이관희 교장은 "학생들이 등하교길이 더 안전하고 행복한 길이 되기를 바라는 위원님들의 마음과 더불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해주신 이연희 의장과 김명환 학교운영위원장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최재은기자



트로트 신동 김태연, 정음의 다양한 매력 알린다!

12일, 정음시 홍보대사 위촉식 가져



정음시가 지난 12일 트로트 가수 김태연 양을 정음시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시는 대중적으로 인지도가 높고 재능이 출중한 김태연 양을 홍보대사로 위촉함으로써 지역 이미지를 고취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김태연 양은 일전에 '국악 신동'으로 각종 춘향극악대전과 판소리 대회에 휩쓸었고 특히, 최근에는 인기리에 방영된 TV조선 '미스트롯2'에 출연해 트로트 가수로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뿐만아니라 '아는 형님'과 '대한 외국인' 등 예능프로그램에도 출연하며 예능 천재로서 다재다능한 매력을 뽐내고 있다.

또한, 지난 5일 어린이날을 맞아 지적장애인협회에 장애아동을 위한

장학금을 기부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재능뿐 아니라 따뜻한 마음씨를 겸비한 방송인으로 화두가 되기도 했다.

김태연 양은 앞으로 2년간 홍보대사로 활동하며 지역 홍보를 위한 행사 등에 참여하며 정음의 다양한 매력을 전파할 예정이다.

김태연 양은 이날 위촉식에서 "정음은 저에게 의미깊은 곳"이라며 "정음시 홍보대사로서 불거리, 먹거리 등 정음의 다양한 매력을 알리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유진섭 시장은 "대중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트로트 스타를 정음시 홍보대사로 위촉하게 되어 기쁘다"면서 "다방면으로 활동하며 정음시를 알리고 위상을 높이는 데 열정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하은기자



곽상욱 오산시장 한신대에서 명예 문학박사 학위 받아

오산시는 한신대학교가 13일 살림채플관에서 명예박사 학위수여식을 열고, 곽상욱 오산시장에게 명예 문학박사 학위를 수여했다고 밝혔다. 이날 수여식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최소 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한신대학교 연구홍 총장은 "곽상욱 오산시장은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장,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장 등을 맡아 대한민국의 교육 발전에 공헌하고 있으며, 특히 오산지역 역사·문화, 교육 분야 발전에 크게 이바지해 왔다."며 학위 수여 배경을 밝혔다.

평소 시를 좋아하는 곽상욱 오산시장은 틈틈이 써온 시 가운데 「황새벌에서」와 4편을 지난 4월 한국

농민문학회에 출품해, '제61회 농민문학' 신인상을 수상한 바 있다.

민선 5·6·7기 3선 시장인 곽상욱 오산시장은 '교육도시 오산'을 도시비전으로 설정하고, 오산시를 글로벌 교육도시로 발전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곽상욱 오산시장은 "영예로운 명예 박사 학위를 수여해 주신 오산 시민과 함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아이를 제대로 교육하지 못하는 지자체에 사람들은 머물지 않는다. 지자체 존립 측면에서 교육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에도 앞으로도 지방정부와 교육청, 대학 간 상호협력 속에 지역의 교육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남주기자

부평구시설관리공단, 국가기술자격 '기능장' 3명 동시 배출

"공공시설물을 최상으로 관리하여 공단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것"



부평구시설관리공단은 최근 상반기에 실시한 2021년 제69회 국가기술자격시험에서 3명의 기능장을 배출했다고 14일 밝혔다.

국가기술자격 기능장 취득 부문으로는 에너지관리기능장(청사관리팀 최종대 차장), 배관기능장(청사관리팀 진태석 주임, 체육사업팀 차용일 주임)자격을 각각 취득했다.

기능장은 최고 수준의 숙련 능력과 오랜 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응시와 취득 난이도가 높은 자격증으로 국가기술자격에서 최상위 등급 중 하나로 알려져있다.

공단은 이번 기능장 자격을 취득한 직원들을 포함하여 업무와 관련된 다수의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한 직원 수의 증가로 공단이 관리 경쟁력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단 이사장은 "각자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면서 개인의 탐과 노력으로 자격증 취득에 힘쓰는 모습이 대견하고 자랑스럽다"며, "전문 기술인력 양성과 기업 경쟁력 제고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변재현기자

대전 중구의회, 대전중구문인협회 총회 기념 유공자 표창 수여

대전광역시 중구의회는 5월 13일 의정실에서 지역문화 발전 및 문화예술행동에 기여한 구민에게 표창을 수여하였다.

이날 유공구민 표창은 오는 29일에 열리는 대전중구문인협회(회장 김우영) 총회를 맞아, 활발한 문예활동을 펼쳐오셔서 중구의 멋과 정취를 알리는 데 기여한 중구문인협회 회원 2명(한진호, 노금선 씨)에게 수여하였다. 표창 수상자는 꾸준한 창작활동은 물론 문인들과의 활발한 교류를 통해 지역사회 발전과 중구 문화계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연수 의장은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문학은 다양한 구성원들이 모여 사는 사회가 더 바람직한 공동체로 나아가는 길을 제시하고 있다."면서 "지역문화 발전을 위해 힘쓰시는

회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중구의회도 중구의 문학 발전을 위해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정화기자



양주시립회암사지박물관, '효령—회암사에 담은 불심' 기획전 개최

전주이씨 왕가의 자손 중 가장 후손이 많은 효령대군과

양주시립회암사지박물관은 오는 9월 26일까지 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조선의 왕자 효령대군과 양주 회암사지의 관계를 조망하는 새로운 기획전시 '효령 - 회암사에 담은 불심'을 진행한다.

이번 전시는 회암사의 역사에 진한 족적을 남긴 조선 왕자 '효령대군 이보'의 업적과 불사 활동을 토대로 회암사에 대한 조선 왕실의 관심과 후원을 고찰하고 회암사지 관련 인물에 대한 새로운 전시를 통해 박물관 전시주제를 확장하고자 기획했다.

기획전은 성리학적 이념을 추구하던 조선 조부터 적극적인 불사를 주도한 효령대군의 생애를 왕자와 불자의 이야기로 나누어 ▲1부 '왕실에서 태어나다', ▲2부 '부처님을 따르다'로 구성했다.

1부에서는 태종 이방원의 장자이자 세자였던 양녕대군 폐위 후 세종에게 왕위를 양보하며 스스로 신하의 삶을 택한 효령대군의 생애와 불심을 바탕으로 왕실의 안정을 바라는 집안 웃어른으로서의 역할을 소개한다.

이어 2부에서는 조선 초기 당시 유교 정치의 구현을 위해 시행된 강력한 송유억불의 시대 속에서 이어진 왕실 내 호불(好佛) 분위기와 회암사지에서 발견된 효령대군의 중장불사 흔적을 통해 미루어 볼 수 있는 회암

사의 당대 위상 등 효령대군이 당시 불교계에 미친 영향 관계를 조명한다.

이를 통해 관람객들은 왕자와 불자의 삶을 동시에 살아온 인간 효령대군의 일생을 79건 106점의 전시물을 살펴봄과 당시 최대 왕실사찰이었던 양주 회암사에서 일어난 일련의 사건이 한양 도심 한복판에 불러 세운 결과물의 전후 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현재 서울 종로구 낙원동에 속해 있는 '담동' 지명의 유래와 함께 국보 제2호 서울 원각사지 십층석탑, 보물 제2호 옛 보신각 동종, 보물 제3호 대원각사비 등 일상생활 속에서 접할 수 있는 지명과 유물 속에 담긴 역사적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박물관 관계자는 "이번 기획전시 목적은 조선시대 왕자의 신분으로 태어난 효령대군이 긴 생애 동안 2인자이자 킹메이커로서 불사 활동을 통해 왕실의 안정을 도모하며 왕실 사찰 회암사와 맺은 인연의 결과물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며 "태조 이성계, 문정왕후 등 기존에 주로 언급된 왕실인물 외에 잘 알려지지 않았던 역사 속 왕가 인물과 회암사의 깊은 관계를 드러내 주제전시의 다양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최근수기자



회암사에 담은 불심

효령
Prince Hyoryeong

2021. 5. 11. (화) - 2021. 9. 26. (일)

양주시립회암사지박물관 기획전시실

경기아트센터 레퍼토리 시즌 <다 카포 콘서트-오르막길>

하림, 정인, 조정치가 들려주는 진심이 담긴 노래

경기아트센터(사장 이우중)가 제작공연 <다 카포 콘서트>를 오는 19일 대극장에서 선보인다. 음악감독 하림을 필두로 가수 조정치, 정인 부부가 호흡을 맞춘다. 이와 같이 세 아티스트가 함께 무대에 오르는 단독 콘서트는 데뷔 이래로 처음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이번 공연은 '오르막길'이라는 주제의 토크콘서트로, 함께 힘든 시기를 잘 극복해 나가자는 메시지를 음악과 대화를 통해 전달할 예정이다.

'휴일 오후에 즐기는 힐링 콘서트'로 2020년부터 관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는 '다 카포 콘서트'는 감미로운 음악과 출연진들의 토크가 조화롭게 어우러져 관객들에게 다양한 즐길 거리를 선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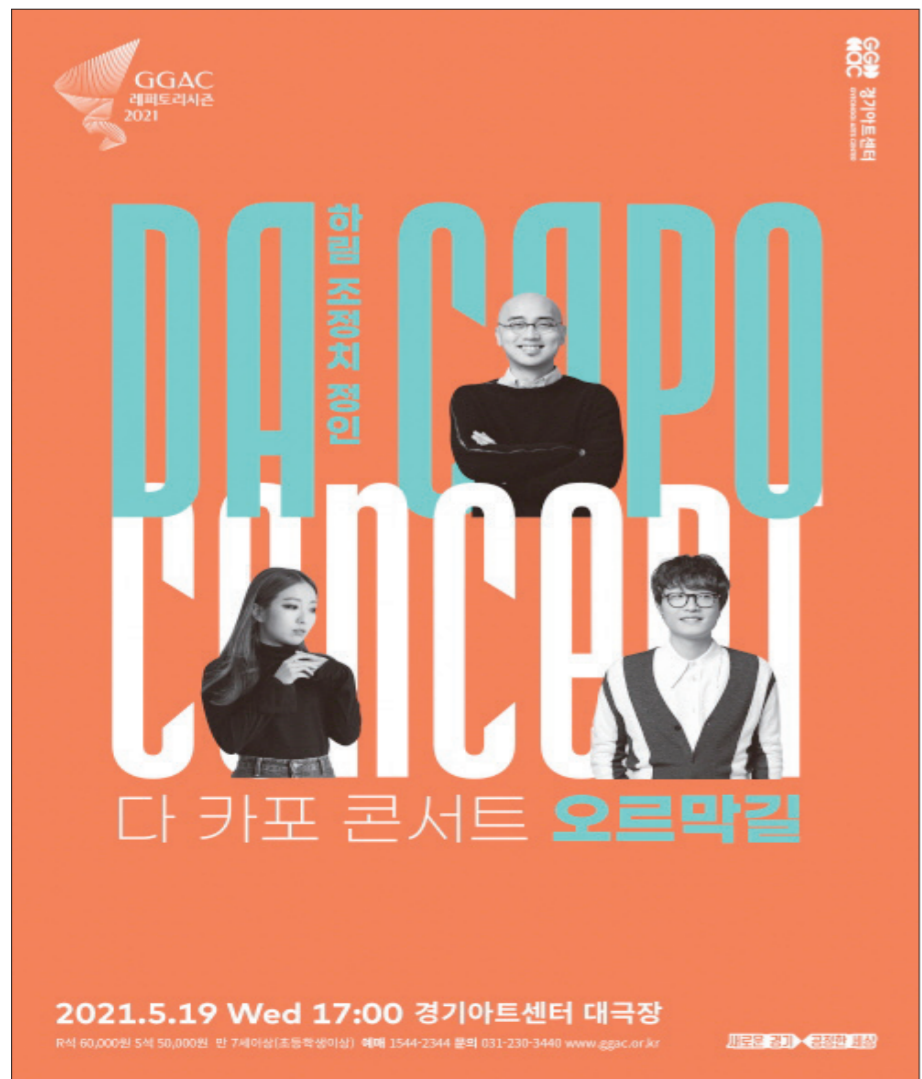
이번 공연에서는 정인이 부르는 '사랑은', '하드코어 인생아', '고마워', 하림이 부르는 '난치병', '출국', '사랑이 다른 사랑으로 잊혀지네'에 이어 신치림(윤종신, 조정치, 하림)의

명곡들을 정인과 함께 선보이는 특별한 무대가 준비되어있다.

또한 하림, 정인, 조정치는 공연 중간의 토크 코너를 통해 각자의 근황을 전하며 관객들과 소통할 예정이다. 공연을 앞둔 조정치, 정인 부부는 "친구들과 모여 이야기 나누는 것처럼 편하고 소소한 재미를 느끼시기를 바라며 인위적이지 않고 진심이 전해지는 라이브 공연의 생생함을 온전히 즐기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휴일 오후의 힐링'을 선사할 다 카포 콘서트 : 오르막길은 5월 19일 석가탄신일 오후 5시, 경기아트센터 대극장에서 코로나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한 좌석 거리두기로 진행된다. 티켓은 R석 6만원, S석 5만원이며, 현재 코로나 극복을 위한 타임세일 이벤트를 공연 전일까지 진행하여 전석 50% 할인 된 금액으로 예매할 수 있다.

최근수기자



부산 근현대사를 대표할 새 박물관, '부산근현대역사관'으로 결정

부산시, 박물관 명칭에 대한 시민참여 공모 및 선호도 조사 결과 발표

부산시는 중구 대청동에 소재한 옛 한국은행부산본부와 현 부산근대역사관을 통합해 2022년에 부산의 근현대사를 대표하는 박물관을 건립함에 따라 이곳의 명칭에 대한 시민 참여 공모와 시민 선호도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 새 박물관의 명칭을 '부산근현대역사관'으로 결정한다고 밝혔다.

시민참여 공모를 통해 924명이 제출한 명칭과 부산시가 자체적으로 추가 개발한 20개의 명칭을 합해 총 944개의 명칭이 제안되었으며, 이후 전문가 심사와 명칭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3개의 명칭이 추출되었다. 이에 대해 부산시는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리서치 용역조사 등으로 선호도 조사를 시행하였다.

조사결과 ▲부산근현대역사관이 총 2,633표 중 40%인 1,040표를 득해 1위를 차지하였으며, ▲부산근현대역사문화관(38%) ▲부산도시역사 박물관(22%)이 그 뒤를 이었다.

또한, 명칭과 함께 실시된 박물관 방문 정도가 '최근 2년간 박물관을 방문한 적이 없다(51%)'고 하였으나,

2022년 신설될 부산근현대역사관에는 대부분 '적극 방문 의사가 있음(74%)'을 밝혔다. 아울러 시민들은 박물관을 주로 '전시관람 목적(49%)'으로 방문하며, 박물관 관람에서 가장 먼저 고려하는 것은 '전시·교육·체험 콘텐츠 수준(60%)'이고, 선호하는 전시 콘텐츠의 유형은 '모형·디오라마(34%)', '실감콘텐츠(30%)', '실명패널(18%)', '영상(17%)'의 순으로 나타났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번 부산근현대역사관의 명칭 제정은 기존 부산박물관과는 별개로, 부산의 근현대사 특화 박물관이 새롭게 탄생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는 시민과 함께 소통하는 문화가치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피란수도 및 해양도시 부산만이 가지고 있는 역사문화자산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2022년 개관을 목표로 하는 부산근현대역사관은 현재 '전시실설계' 및 '건축설계 적정성 검토'중에 있으며, 이번 명칭 공모와 선호도 결과에 따라 시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박물관으로 조성될 계획이다.

남궁영기자

경기평화광장 북카페 "가정의 달, 안전하게 집에서 미술공연 즐겨요"

경기도청 북부청사 경기평화광장 북카페는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도민가족을 대상으로 미술공연 '달콤한 무한상상'을 운영한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오는 5월 27일 목요일 오후 4시 30분부터 진행되는 '달콤한 무한상상' 공연은 미술사와 참여자가 서로 소통하며 진행되는 참여형 공연으로 독서의 즐거움과 중요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유아 및 초등학생 어린이들이 즐거움과 흥미를 느끼는 미술, 북화술, 저글링 등을 체험하며 상상력과 창의력을 키울 수 있도록 구성됐다.

특히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 차원에서 가정에서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사전 신청 도민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화상 시스템을 활용해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된다.

경기평화광장 북카페는 올해 이번 '달콤한 무한상상' 공연 외에도 도민가족의 독서문화 향유를 위해 매월 다양한 주제의 문화의 날 행사를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 중으로, 앞서 '그림책 콘서트', '영어동화책 활용법' 등을 성황리에 개최한 바 있다.

최근수기자

연극 '단테 신곡-지옥편', 5월 7일 개막

극단 '피악'.. 20주년 기념 첫 번째 공연

2002년에 창단 된 극단 피악의 20주년을 기념하는(2021년 5월 ~ 2022년 6월까지) 첫 번째 공연으로 연극 '단테 신곡-지옥편'이 지난 5월 7일 했다.

'단테 신곡-지옥편'은 극단 피악의 창작 방향인 연극을 통한 '인간에 대한 인문학적 성찰 시리즈'의 여덟 번째 작품이자 단테 알리기에리의 서거 700주년을 기념함으로써 더욱 뜻 깊은 공연이라고 할 수 있다.

연극 '단테 신곡-지옥편'은 서구 문학에서 가장 위대한 작품으로 손꼽히는 단테 알리기에리의 '신곡'을 매우 깊이있게 다루고 있다.

저자와 같은 이름을 가진 여행자 단테가 안내자 베르길리우스, 배아트리체와 함께 지옥-연옥-천국을 여행하며, 기독교 신앙에 바탕을 둔 죄와 벌, 기다림과 구원에 관해 철학적, 윤리적 고찰을 보여준다. 이를 통해 서양 문화의 정신적 사고를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작품이기도 하다.

단테 알리기에리의 '신곡' 중 지옥을 다루고 있는 본 공연은 단테가 자신의 서재에서 모든 희망이 완전히 박탈되어 버렸던, 다시는 겪고 싶지 않은 끔찍한 지옥에서의 경험을 저술하고 있다. 단테는 자신을 죽음의 위기에서 구해준 정신적 스승 베르길리우스와 험난했던 지옥으로의 여행을 회상하며 이야기는 시작된다.

연극 '단테 신곡-지옥편'은 지옥의 아홉 구역마다 해당하는 형벌의 종류를 인문학적 품의 미학을 통하여 세심하게 표현하고자 노력하였다.

이를 통해 단테와 그의 인생의 안내자이자 스승인 베르길리우스가 경험하는 지옥의 험난한 여정을 관객과 함께 경험하며, '인간이란 무엇인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라는 삶에 대한 진지한 물음을 제시한다.

또한 오늘날 우리의 비극적 현실을 직시해보는 거울의 역할을 담당하면서 혼란스러운 인간의 정체성에 대해 새로운 해결책을 마련해 줄 것이다.

극단 피악은 오늘날의 세계 보편적 문화 감각에 맞는 형식 찾기와 더불어 문학성을 기반으로 하여, 연극성의 확대를 통한 인간 영혼에 울림을 주는 연극의 본질, 곧 인류의 보편적 정신을 담을 수 있는 작품을 계속해서 무대에 올리고 있다.

이처럼 그동안 밝아온 창작 방향에 맞춘 '극단 피악 20주년 기념 공연'은 2021년 5월 '단테 신곡-지옥편'(대학로예술극장 대극장)을 시작으로,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 1, II'(이해람예술극장, 10월), '톨스토이 참회록: 안나 카레니나와의 대화'(한양대학교 씨어터, 12월), '세 자매: 그 죽음의 파티'(미정, 22년3월), '백치'(미정, 22년6월) 총 5개의 작품을 차례로 관객들에게 선 보일 준비를 하고 있다.

한편 연극 '단테 신곡-지옥편'은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하여 철저한 방역과 함께 마스크 미착용 관객 출입제한, 문진표 작성, 발열체크 등의 공연장 운영 방침을 준수하여 안전한 공연 관람을 위해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연극 '단테 신곡-지옥편'은 대학로 예술극장 대극장에서 2021년 5월 7일에서 5월 16일 기간동안 공연되며, 아르코예술극장 및 인터파크, 예스24를 통해 예매 가능하다.

전순희기자



강진아트홀, 최신영화 '자산어보' 상영

강진아트홀에서는 오는 5월 18일 오후 3시 7시(2회) 최신 영화 '자산어보'를 상영한다.

이준익 감독이 메가폰을 잡고, 설경구와 변요한 등이 출연한 영화 '자산어보'는 신유박해로 흑산도로 유배되어 바다생물에 매료된 정약전과 글 공부를 하며 어려움을 겪고 있던 어부 '창대'이 바다생물에 매료되어 책을 쓰면서 어부 '창대'에게 도움을 구하면서

점차 서로의 스승이자 벗이 되어가는 과정을 그렸다. 강진아트홀은 코로나 19 확산 방지(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하여 350명을 선착순 무료 입장하고, 관람석 띄어 앉기(2m 간격 유지)를 시행한다. 또, 입장시 손소독과 발열체크를 통해 37.5도 이상과 호흡기 질환자(기침 등) 마스크 미착용 관람자의 출입을 금지한다.

김영안기자



2021. 5. 18. (화) 오후 3시 / 저녁 7시 강진아트홀 대공연장
주최 강진군 관람료 무료(350명 선착순) 입장 관람층 12세 관람가
문의 강진아트홀 061.430.3877, 3973 http://artHall.gangjin.go.kr

‘서울디지털재단—CJCGV’ 고령층 친화키오스크개발 ‘맞손’

13일, ‘고령층을 위한 키오스크 개선 사업’ 협력 위해 업무협약식 개최

서울디지털재단(이원목 이사장 직무대행)과 CJ CGV(대표 허민회)가 고령층을 위한 키오스크 개선사업을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양 기관은 13일 오후 CGV 용산아이파크몰에서 이원목 서울디지털재단 이사장 직무대행, 오대식 CJ CGV 디지털혁신추진담당(CDO, Chief Digital Officer)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협약식을 갖고 본격적인 협력에 나선다.

이번 협약은 코로나19로 가속화된 디지털·비대면 환경에서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이 보다 편리하게 키오스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실제 조사와 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안을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구체적으로 두 기관은 ▲고령층 사용자의 키오스크 이용 현황 및 장애요인 분석, ▲원활한 과제추진을 위한 자료·정보, 인적·물적 자원 등 공유, ▲고령층의 신체·인지·심리적 특성 및 사용자경험을 반영한 키오스크 개선방향 기획·구현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디지털재단은 현재 개발 중인 「고령친화 키오스크 접근성 표준안」을 CGV 키오스크에 시범 적용해, 그 효과를 사전에 검증하고 실효성을 높인다.

재단은 지난해부터 디지털 기기·콘텐츠 활용에 취약한 어르신의 신체적·인지적 특성에 따른 장애 요인들을 개선하는 「고령친화 디지털 접근성 표준」을 개발하고 있다.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에서 고령층이 소외되지 않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목적에서다.

지난 3월 ‘모바일앱(앱)·영상콘텐츠 표준·지침’을 공개한데 이어, 오는 하반기를 목표로 ‘키오스크’ 분야의 표준안을 제작하고 있다.

CJ CGV는 재단의 「키오스크 접근성 표준안」과 분석결과를 기반으로 키오스크 배치부터, 영화·좌석 선택, 결제·발권 인터페이스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서비스를 개선한다. 어르신들이 영화를 편리하게 관람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CGV는 극장 내에 영화 티켓

발권과 매점 음식 주문 등 다양한 용도의 키오스크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본격적으로 두 기관은 이달 중순부터 어르신과 현장직원 등 키오스크 이용자와 제공자의 의견을 청취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향과 우선순위를 도출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이번 협력 사업은 실제 극장을 방문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현장에서 어떠한 불편을 겪는지 조사함으로써, 고령층의 시각에서 실효성 있는 키오스크 서비스 개선안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이외에도 양 기관은 보유한 데이터를 활용·분석해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문화정책을 수립하고 서비스를 발굴하는 등 디지털 콘텐츠의 범위를 확대한 협력과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원목 서울디지털재단 이사장 직무대행은 “이번 협업을 키오스크 활용률이 높은 유통점포나 외식매장 등 일상생활 현장에 접근성 표준안을 적용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서울을 어르신들이

디지털 기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 친화 도시로 만들어가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오대식 CJ CGV 디지털혁신추진담당(CDO)은 “이번 협업을 통해 CGV 키오스크의 인터페이스를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가고자 한다”며, “코로나19로 비대면 서비스가 가속화된 이후 디지털 활용에 어려움을 느끼는 어르신들이 조금 더 편리하게 극장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최광수/기자



충북음성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기공식 개최!

‘신재생에너지 산업 인프라 구축’과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해 맹동면 두성리 충북혁신도시 내에 건립되는 충북음성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의 기공식이 13일 충북음성 산학융합지구 공사 현장에서 개최됐다.

이날 기공식은 임호선 국회의원과 성일홍 충청북도 경제부지사, 이준경 음성군 부군수, 차천수 청주대학교 총장, 류기일 극동대학교 총장 등을 포함한 관계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철저한 방역관리 하에 진행됐다.

충북혁신도시 내 맹동면 두성리에 부지면적 2만8370㎡, 연면적 1만310㎡ 규모로 조성되는 충북음성 산학융합지구는 오는 2029년까지 국비 118억6000만원, 도비 87억4200만원, 군비 75억원, 민간 116억6900만원 등 총 397억7100만원을 투자한다.

이를 통해, 국제 기준의 역량을 갖

춘 에너지 전문가를 육성하고 기업과의 공동연구를 통한 ‘전문인력 양성’, ‘에너지 혁신기술 개발’, ‘신성장 산업 육성’이라는 선순환 구조 확립이 기대된다.

조성이 완료되는 내년 3월, 청주대학교와 극동대학교 에너지 관련 학과와 대학원 학생 315명의 수업을 시작으로 충북음성 산학융합지구가 목표로 하는 에너지 선순환 구조 확립을 위한 본격적인 첫걸음을 내딛게 된다.

이날 기공식에 참석한 이준경 음성군 부군수는 “우리 음성군은 신에너지 산업을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5대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적극 육성하고 있다”며 “앞으로 충북음성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이 우리 군 신에너지 산업의 거점으로써 중추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만식/기자

부산시, 부산중소기업 제품 대형 유통업체 판로개척 지원

2021년 가정의 달 '부산사랑 착한소비 특별판매전' 개최



부산시는 5월 14일부터 5월 20일 까지 롯데백화점 광복점 지하 1층 아쿠아 광장에서 ‘부산 사랑 착한소비 특별판매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산시 우수 중소기업과 지역업체들의 판로지원과 매출 증대를 위해 부산시, 경제진흥원, 롯데백화점의 협업으로 진행된다.

“부산사랑 착한소비 특별판매전”에서는 부산지역 우수업체 21개사가 참여할 예정으로 부산 대표 산업인 신발, 수산물, 화장품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의 특색있는 수제 패션제품, 유아용품, 건강식품 및 간편 요리식품 등 우수한 상품성을 가지고 있지만 대형유통망에서 만나보지 못했던 질 높은 제품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시는 이번 판매전으로 대형 유통망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 상품의 우수성을 알리고, 시민들이 백화점에서 좀 더 쉽게 다양한 부산기업 제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해 대기업과 지역기업이 상생협력해 지역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부산사랑 착한소비 특별판매전이 코로나19로 힘든 지역 중소기업들에게 판로 개척의 기회를 주고 매출을 증대할 수 있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대형 유통망을 활용하여 지역 중소기업이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특별판매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남궁영기/기자

보령시, '소망대출·특례보증' 지원에 소상공인 큰 호응

보령시가 코로나19로 어려운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신규 출시한 ‘소망대출’이 197개 업체 35억 원의 대출 실적을 보이며 소상공인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있다고 밝혔다.

소망대출은 지난 2월 충남도와 보령시가 충남신용보증재단과 손을 잡고 출시한 국내 최저금리 대출상품으로 보령에 사업장을 두고 영업중인 소상공인에게 일반업종은 한도 2천만 원으로 1%대 금리, 18개의 집합제한업종은 한도 3천만 원으로 0.8%대 금리를 제공한다.

아울러 시는 2013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특례보증’을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가 극심한 소상공인을 위해 확대 지원하여 충남신용보증재단에 지난해보다 2억 원 증액한 6억 원을 출연했다.

특례보증은 소상공인을 위한 제도로 재단에 보증 신청 시 조건이 완화된 간이심사 기준표를 통해 1개 업체당 3천만 원 한도의 보증 지원을 받을 수 있고, 현재까지 264개 업체가 총 56억 원의 보증 혜택을 받았다.

이선규 지역경제과장은 “지역경제의 기반이 되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보탬이 되어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를 함께 극복해 나가기 바란다”며 “상인들이 웃으며 영업할 수 있는 지역 경제를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소상공인 경영대상 등 다양한 시책을 추가로 발굴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김원호/기자

대전시, 규제혁신 과제 발굴로 경제활력 키운다

대전시는 13일 ‘2021년 규제혁신 과제 발굴 보고회’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애로 해소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날 보고회의 주요 발굴과제는 산업시설용지 중 입주가 가능한 물류시설 범위를 이커머스(전자상거래)까지 확대 요청하는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 입지시설(물류시설) 범위 확대’방안이 제시됐다.

이와 함께 개발제한구역 내 수소생산 및 운송시설 면적, 부대시설 범위를 확대 지정 요청하는 ‘개발제한구역 내 수소생산설비 규제 완화건의’도 있었다.

이 외에도, 도로교통법 상 ‘의료용 및 사회적 약자를 보조하는 로봇’을 ‘차’의 범위에서 배제하는 ‘의료규정 신설’을 요청하는 ‘도로교통법 상 로봇의 인도 주행 제한 예외규정 신설’ 등 49건이 발굴됐다.

대전시는 이번에 발굴된 과제 중 조례·규칙 등 자치법규 개정이 필요한 자체 개선과제는 소관부서에서 조속한 시일내 자치법규 개정을 추진하고, 중앙부처 건의과제는 건

의과제가 수용될 수 있도록 현장사례 등 규제개선 필요성에 대해 중앙부처를 설득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보고회를 계기로 코로나19 여파로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일자리창출, 신산업육성 및 시민생활 불편 등 불합리한 규제애로를 중점 발굴·개선하는 적극행정을 추진키로 했다.

오계환 법무통계담당관은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이 겪고 있는 불합리한 규제를 ‘찾아가는 지방규제혁신센터’운영으로 현장의 규제애로 해소에 적극 나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조기에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는 지난해에도 335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 중앙부처에 건의하여 ‘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 허가증 국·영문 병기’ 등 26건을 개선(수용, 일부수용 등)하고, ‘대전광역시 상수도 급수조례’ 등 5건의 자치법규 등록규제를 개선했다.

고정화/기자



고양시, 고양컨벤션뷰로 출범...아시아 마이스 중심도시 실현에 박차

고양시의 마이스 전담기구인 ‘사단법인 고양컨벤션뷰로’가 지난 4일 독립법인으로 출범했다.

고양컨벤션뷰로는 지난 2016년 (사)고양시관광컨벤션협회 내부조직으로 설립됐다. 이후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시는 지난해 9월 「고양컨벤션뷰로 설립·운영에 관한 규칙」을 제정, 지난 4월 장림동 회화경기도 허가를 거쳐 마침내 독립 법인으로 출범한 것이다.

고양컨벤션뷰로는 고양시의 마이스 행사 유치·발굴·개최 지원, 국내·외 마이스 산업 홍보 및 도시 마케팅, 지역 특화 마이스 사업 발굴·육성 등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됐다.

고양컨벤션뷰로는 법인 출범과 더불어 공모사업 선정, 마이스 공모상 수상 등 마이스 분야에 연이은 쾌거를 이뤘다.

먼저 각종 공모사업으로 약 4억 1천여만 원의 추가 사업비를 확보했다. 문화체육관광부 「국제회의복합지구 활성화 지원」 사업, 한국관광공사 「지역마이스산업 활성화」 사업, 경기관광공사 「경기 지역특화 마이스 육성」 사업 등에 선정돼 다양한 지역 특화 마이스 사업을 펼칠 예정이다.

또한 지난 4월 29일 한국마이스협회 주관하는 벵아태 마이스 비즈니스 페스티벌에서 마이스 공모상 단체부분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중대형 마이스 행사 유치, 지속 가능한 마이스 실천, 마이스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해 대한민국 마이스 산업 발전에 기여한 바를 인정받아 수상하게 됐다.

이상열 사무국장은 “새롭게 도약하는 고양컨벤션뷰로는 고양시 국제

회의 전담조직이자 도시마케팅 조직으로서 각종 행사 유치와 마이스 생태계 조성을 위해 발벗고 나서겠다”고 “마이스를 통해 지역사회와 산업을 연결하고 나아가 고양시를 ‘아시아 마이스 중심도시’로 만들기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양시는 일산테크노밸리, 킨텍스3전시장, C라이브시티 등 초대형 사업의 연내 착공으로 ‘자족도시’경제 지도를 완성하고 있다. 이러한 중대한 시기에 고양컨벤션뷰로는 고양시를 ‘아시아 마이스 중심도시’로 만드는 데 중추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영기/기자



경북형 사회적경제 창업학교 참가자 모집

경상북도는 사회적경제 창업을 준비하는 초기 창업자를 위해 ‘경북형 사회적경제 창업학교’를 운영하기로 하고 5월 28일까지 참가자를 모집한다.

모집대상은 사회적경제에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교육과정은 창업에 대한 기초와 사회적경제 가치 함양을 위한 기본과정과 실질적인 창업 실무를 다루는 심화과정으로 운영된다.

기본과정은 서남권역(경산), 북부권역(안동) 동부권역(포항) 세계권역별로 나누어 교육할 예정이며, 사회적경제 분야 전문가 초빙 교육, 사회적경제기업 현장학습 등을 통해 사회적경제에 전반에 대한 이해와 마인드를 확립하고 기업운영 노하우를 학습한다.

심화과정은 기본교육 수료생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전담 담임멘토 및 전문 컨설턴트 매칭을 통해 법인 설립부터 사회적경제 기업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심화과정 수료생을 대상으로 최종평가를 통해 최대 2천만원의 창업사업비가 지원되며, 향후 주요 창업지원사업 및 정부 재정지원사업에 참가할 수 있도록 연계·지원한다.

경북형 사회적경제 창업학교에 참여를 희망하는 자는 경상북도 홈페이지 고시공고 또는 경상북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이메일 신청서를 접수하거나, 전화로 문의하여 신청하면 된다.

페이지 고시공고 또는 경상북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이메일 신청서를 접수하거나, 전화로 문의하여 신청하면 된다.

한편, 지난해까지 경북형 사회적경제 창업학교를 통해 42개팀이 법인을 설립했고, 그 중 14개 법인이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전환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 외 법인도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사후 관리 중이다.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고용, 환경, 교육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다양한 사회적가치를 창출하는데 앞장서고 있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중요성이 부각된 만큼 올해는 사회적경제기업 창업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ESG경영을 추구하는 기업 및 민간에 대한 투자 연결에 중점을 두고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배성길 경상북도 일자리경제실장은 “사회 가치실현의 목적을 가진 사회적경제 조직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면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양극화 해소에 앞장서 왔다”며, “사회적경제 창업을 준비하는 지역 인재들이 사회적경제 기업으로 성공적인 창업에 안착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세기/기자

전국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112건 적발, 가맹점 등록취소 73곳

행정안전부는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전국 231개 지자체에서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112건의 단속·처분이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자체가 위반사항이 경미하다고 판단하여, 직접적인 행·재정적 처분 없이 현장계도를 한 사례는 총 1,374건으로 집계되었다.

이번 일제단속을 위해 전국 지자체 공무원과 조폐공사·코나아이·대구은행·광주은행 등 민간위탁업체 직원이 참여한 총 1,158명의 민관 합동단속반이 편성되었다.

합동단속반은 총 21만여 개의 가맹점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일제단속 기간 중 각 지자체별로 주민신고센터를 가동하여 주민 신고도 접수 받았다.

이와 함께 민간위탁업체는 '이상거래 방지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여 민·관 협력 단속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단속 결과를 살펴보면 총 112건의 위반행위 중 부정수취 및 불법 환전이 77건으로 가장 많았고, 복권방 등 제한업종 사용 14건, 결제거부 5건, 기타 16건 등이 단속·처분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부정으로 사용된 지역사랑상품권 유형으로는 지류형 상품권이 59건으로 가장 많이 단속되었고, 모

바일형 37건, 카드형 16건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선할인형 상품권의 단속 건수가 109건인데 반해, 결제금액의 일부를 캐시백으로 돌려주는 캐시백형 상품권은 단속 건수가 3건에 불과해 상대적으로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단속을 통해 가맹점 등록취소 73곳, 등록정지 11곳, 시정명령 28곳 등이 행정처분 되었다.

이와 함께 13곳에 대해서는 과태료 총 7천2백만원이 부과될 예정이며, 63곳에 대해서는 총 5천506만원 을 환수처리 할 예정이다.

특히, A군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위반행위의 심각성이 높고, 추가 위반행위가 우려되는 상황 등을 감안하여 지역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도 하였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이번 일제단속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첫 번째, 농어촌 지역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는 지류형 상품권이 상대적으로 부정유통에 취약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지자체 및 조폐공사와 함께 지류형 상품권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시스템 개선 및 단속 강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장기적으로는 지류형 상품권을 카

드형 혹은 모바일형 상품권으로 대체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두 번째, 카드형·모바일형 상품권의 부정유통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각 지자체·위탁업체별로 운영하고 있는 이상거래 방지시스템 운영실태를 추가로 점검하고 우수사례에 대해 상호 간 벤치마킹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세 번째, 선할인형 지역사랑상품권보다 캐시백형 상품권이 부정유통 위험이 상대적으로 적고, 즉각적인 사용과 추가적 소비 유발에도 장점이 있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하여, 단계적으로 캐시백형 상품권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지역사랑상품권 단속이 1회성 행사로 그치지 않도록 올해 하반기에 다시 한번 전국적인 일제단속을 추진하고 내년 이후에도 반기별로 계속해서 일제단속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또한, 이번 일제단속 과정에서 다수 지자체가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의 개선 필요성을 제기하였으며, 이에 대해서도 지자체와 함께 검토하고 개선해 나가기로 하였다.

현재,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규정에 따라 판매대행점 및 가맹점에 대해 위반횟수에 따라 1천만 원, 1천5백만 원,

2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다.

향후, 단순 부주의 등에 의한 경우 과태료 부과수준 일부를 하향 조정하고 위반행위로 인한 피해와 부담이 이익이 큰 경우에는 과태료를 가중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박재민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역상품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지역사랑상품권의 취지를 악용하여 부당이익을 취하는 가맹점에 대해서는 철저히 단속해 나갈 예정"이며 "단속과 함께 지역사랑상품권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울산남구, 배달전문음식점 위생지도점검

배달 앱 등록 분식·커피류 취급 휴게음식점 대상

울산 남구는 지난 4월 주말·보스를 취급하는 배달 앱 등록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위생점검을 실시한 데 이어 오는 17일부터 28일 2주간 분식류, 커피류 등을 취급하는 배달 앱 등록 휴게음식점을 대상으로 위생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종사자 건강진단 실시,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을 내용으로 한다.

더불어,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식당·카페에서 의무화되는 방역수칙 점검 또한 병행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결과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지 시정하도록 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할 계획이다.

남구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와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배달음식 소비가 급증함에 따라 배달전문 음식점에 대한 사전 안전 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2021년 배달전문음식점에 대한 위생점검을 연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기현/기자

인천시, 신문법 위반 인터넷신문 126곳 행정조치

- 건전한 여론형성, 독자의 권리보호, 사회적 책임 강화 -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지난 2월부터 시 등록 인터넷신문·인터넷뉴스서비스 언론매체를 대상으로 '신문법'을 위반하거나 운영하지 않는 126곳에 대해 자진폐업 53곳, 시정조치 73곳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일제정비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이뤄진 '인터넷신문·인터넷뉴스서비스 실태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현재재무분별하게 난립되어 있는 인터넷신문의 발행 질서 확립과 독자의 권리보호,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높이기 위해 실시했으며, 시 등록320곳 중 '신문법'을 위반한 218곳을 대상으로 2회에 걸친 행정지도도 실시했다.

주요 정비사항으로는 ▲홈페이지 운영여부, ▲필요적 게재사항 게재,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및 공개, ▲독자적 기사생산 및 지속적인 발행, ▲인터넷뉴스서비스 기사배열 책임자 및 기본방침 공개 등이다.

한편 시정조치 미이행 인터넷신문사 92곳에 대해서는 시정권고 조치를 5월중에 추가 실시하고 최종적으로 이행하지 않은 신문사는 청문과 심의를 거쳐 등록취소 할 계획이다.

인천시는 이번 일제정비를 바탕으로 관내 인터넷신문사가 법규를 준수하여 신문을 발간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한편, 시민의 알권리가 보장되는 건전한 여론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김종남/기자

강릉시,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과태료 상향

강릉시는 지난 11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발생을 줄이기 위해 초등학교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여,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과태료가 일반 지역의 3배로 상향되었다고 밝혔다.

따라서 평일 8시부터 18시까지 강릉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에 단속되는 경우, 승용차, 화물차(4톤 이하)는 8만 원에서 12만 원, 승합차, 화물차(4톤 초과), 특수차, 건설기계는 9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과태료가 상향된다.

시에서는 법령 강화에 따른 조속한 조치 및 홍보 활동 이외에도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를 감시 및 예방할 수 있도록 주민신고제 및 안전시설을 점진적으로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김두호 교통과장은 "어린이보호구역의 과태료 상향은 단순히 과태료부과를 위한 것이 아니라 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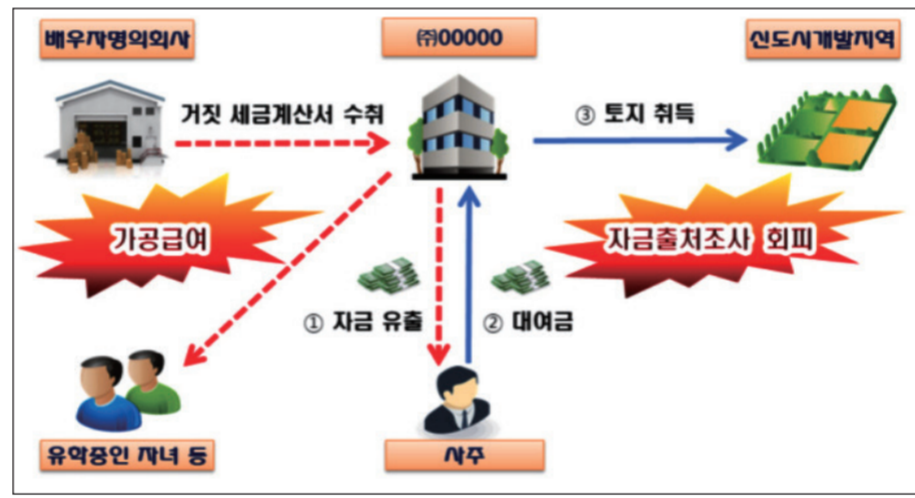
이들은 물론 사고 가해자의 가정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모두의 가정과 행복을 위한 규범인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동원/기자

개발지역 부동산 탈세혐의자 289명 2차 세무조사 착수

대규모 택지·산업단지 개발지역 44곳, 계획 발표 전 5년간 거래 분석



국세청은 '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이 대규모 택지 및 산업단지 개발지역 44곳의 개발계획 발표 전 5년간 거래를 분석해 탈세혐의자 289명을 2차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13일 발표했다.

앞서 지난달 국세청은 남양주양속, 하남교산, 인천계양 등 3기 신도시 예정지구에 대한 탈세혐의자 165명 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어 이번 2차 세무조사에서는 분석 대상을 3기 신도시 예정지구 6개 지역을 포함한 44개 대규모 택지 및 산업단지 개발지역으로 확대했다.

2차 세무조사 대상은 ▲다수 토지를 취득했으나 자금 출처 소명이 부족해 편법적 혐의가 있거나 사업 소득 누락 혐의가 있는 206명 ▲개발지역 토지를 취득하면서 탈세혐의가 있는 28개 법인 ▲법인자금을 유출해 고가 부동산을 취득한 사주일 자 등 31명 ▲농지를 분할 판매하고 소득을 누락한 허위 농업회사법인과 기획부동산 등 19개 ▲지가 급등지역 토지를 중개하며 수입을 누락한 중개업자 5명 등이다.

국세청은 금융계좌 간 거래 내역과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 등의 확인을 통해 자금의 흐름과 원천을 끝까지 추적해 취득 자금이 신고한 소득 등에서 조달한 적정한 자금인지, 증여 받은 자금인지 여부를 검증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사업소득을 누락하거나 법인의 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한 혐의가 있는 경우, 차입금이 친인척으로부터의 가장 차입금으로 의심되는 경우 등 필요 시에는 관련 사업체 및 법인, 자금을 빌려준 친인척까지 조사범위를 확대해 점검할 방침이다.

가 있는 법인과 사주, 농업회사 법인, 기획부동산 및 부동산 중개업자 등에 대해서는 법인세 및 소득세 등 신고내역을 검증할 계획이다.

개발지역 토지의 취득·양도 내역에 국한하지 않고 수입금액 누락 여부, 가공경비 계산, 법인 자금 관련 회계처리 적정 여부 등 신고내역도 살펴볼 예정이다.

국세청은 조사과정에서 장부의 거짓 기재이나 거짓 증빙·문서 작성 및 수취 등 사기나 그 밖의 부정행위로 조세를 포함한 사실이 확인되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하고 토지 명의신탁 등 부동산 거래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신속하게 통보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이후에도 대규모 개발지역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탈세 유형에 대해 계속 집중 검증할 예정이다.

부동산 거래내역 분석과정에서 일 가족이 개발지역 토지를 가구원 별로 소유했던 것이 취득한 사례 등이 발견됨에 따라 가족단위 취득자의 자금출처를 심층 분석해 취득자금 편법적·명의신탁 여부를 검증하기로 했다.

또 대규모로 토지를 취득한 후 이를 쪼개 다수에게 판매함으로써 시장과열을 조장한 기획부동산, 영농조합법인 등의 탈세혐의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검증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또 경찰청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가 통보한 탈세 의심자료를 정밀하게 분석 중이다. 이 자료는 연소자의 고액 토지 거래 내용 등이 담겨 있으며 탈세혐의가 확인될 경우 조사대상자로 선정, 탈루세액을 추정하는 등 엄정 대응할 예정이다.

아동학대 대응상황점검 관계차관회의

정부는 5월 14일 오후, 국무조정실장(구윤철) 주재로 「아동학대 대응상황 점검 관계차관회의」(국조실, 복지부, 기재부, 교육부, 행안부, 법무부, 여가부, 경찰청)를 개최하였다.

정부는 지난 1월 양친구 입양아 사망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을 발표한 바 있으며, 최근 구미 3세 여아 사망, 화성 31개월 입양아 학대 아동학대 사건이 계속 발생함에 따라 정부 대응시스템의 현장 작동 여부를 점검하고, 이행력 강화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한 것이다.

정부는 그간 학대아동을 신속하게 보호하기 위해 △즉각분리제도 시행 △보호인프라 확충 △현장인력 충원 및 전문성 강화 등 현장의 대응능력 강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왔다.

지난 3월 30일자로 학대 징후가 있는 아이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즉각분리제도를 시행하여 4월 한달 간 140여건의 분리조치를 취했다.

분리된 아동은 학대피해아동쉼터 등 보호시설에서 안전하게 보호되며 심리적 회복을 위한 치료가 지원된다. 정부는 지자체와 함께 금년 내 쉼터 29개소 등 보호인프라를 충분히 확보할 예정이다.

학대사건에 대한 초등대응 시 면밀한 조사와 정확한 판단을 위해 지자체 전담공무원과 전담경찰도 계속해서 충원에 나가고 있으며,

“관계부처는 지속적으로 현장점검을 통해 현장의 이행력을 강화해 줄 것”과, “발견된 학대 징후에 대해서는 정부와 지자체가 책임지고 확실한 조치를 취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아동학대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과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 개선도 추진하고 있다.

복지부는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개선 제안서'를 지난 1월에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장과 직접 면담하여 제출하였고, 5월에 새로이 구성되는 양

형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또한, 지난 3월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을 통해 아동학대 살해범죄의 법정형상을 높여 처벌기준을 강화하였다. 지난 1월 민법 개정을 통해 부모의 정계권을 삭제(민법 제915조)하였으며, 이를 계기로 자식을 부모의 소유물로 여기는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그간 여러 차례 정부 대책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 화성 31개월 입양아 학대사건 등이 잇달아 발생하여 국민들의 우려가 커진 것도 사실이다.

오늘 회의에서는 위기아동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복지부·경찰·교육부·여가부·지자체 등 아동보호 관계기관 간 정보공유를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하였다. 또한, 입양 절차의 국가책임 및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입양대상아동 결정·보호, 양부모 상담·조사, 결연 등 핵심 입양절차에서 국가 및 지자체의 책임이 강화된 법률 개정을 추진키로 하였다.

아울러, 법률의 근거 없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입양전제위탁을 제도화하고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정책이 부족하다기보다는 아동학대 대응체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도록 안착시키는 것이 핵심”임을 강조하며, “관계부처는 지속적으로 현장점검을 통해 현장의 이행력을 강화해 줄 것”과, “발견된 학대 징후에 대해서는 정부와 지자체가 책임지고 확실한 조치를 취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복지부에서는 관계부처·지자체와 함께 위기아동 정보공유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방안을 세심하게 마련해 줄 것”과 “관계부처는 위기아동을 적극 발굴하여 보호할 수 있도록 협업을 강화해 줄 것”을 지시했다.

최광수/기자

시흥시 오토바이 소음 집중단속 실시

시흥시는 5월부터 9월까지 오토바이 소음 및 불법개조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시흥시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시민들의 자택에 머무르는 시간 증가로 인한 배달대행 서비스 급속히 증가하면서 배달대행 오토바이의 과속과, 주말 관광·레저용 이륜차에 의한 도로교통 소음으로 인한 주민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시흥시는 이륜자동차의 건전한 운행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시흥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야간 폭주족과 배달 오토바이 소음기 훼손 등 오토바이 불법 개조여부에 대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은 다수 민원발생지역 및 아파트 밀집지역 등 오토바이 이

동이 많은 주요도로에서 진행된다.

단속결과 소음 기준을 초과하거나 소음기와 경음기를 불법 개조한 오토바이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자동차관리법에 의거 형사처벌 등 강력하게 조치한다. 더불어 운행차 소음허용 기준을 준수하도록 개선 명령할 방침이다.

시흥시 관계자는 민원이 해소되지 않으면 단속기한을 연장해서라도 “시민들이 평온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오토바이 소음 발생을 철저히 단속하겠다”며, “불법 오토바이 운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운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최정부/기자



또 토지 취득과 관련해 탈세혐의

JTBC '유명가수전 히든트랙', 시청자 취향저격!

티빙 오리지널 '유명가수전 히든트랙'이 방송과는 색다른 맛으로 리얼 히든의 매력을 선사하고 있다.

'유명가수전 히든트랙'은 '싱어게인-무명가수전'을 통해 '갓 유명가수'가 된 TOP3 멤버들이 대한민국 레전드 가수들인 '갓(GOD) 유명가수'들을 만나며 펼쳐지는 음악과 이야기를 담은 JTBC '유명가수전'의 스핀오프 프로그램으로 매주 금요일 오후 4시 티빙에서 단독 공개되고 있다.

이승윤, 정홍일, 이무진 그리고 규현과 이수근이 뭉쳐 흥미진진한 비하인드 스토리는 물론 다양한 음악 이야기들을 쏟아내며 시청자들과 교감하고 있는 가운데 '유명가수전 히든트랙'만의 특별한 재미는 무엇일까.

'유명가수전 히든트랙'에서는 매 회 주제에 따라 저마다 추천하고 싶은 노래를 소개하고 그 자리에서 즉석으로 노래를 불러보는 자유로운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다.

수면에 도움을 주는 플레이리스트, 꼭 한 번 만나고 싶은 가수의 노래, 취중 시 듣는 노래 등 듣기만 해도 흥미로운 주제들이 호기심을 유발하고 있는 것.

그 중 아티스트 뿐만 아니라 많

은 이들이 겪고 있는 불편증에 대해 조명한 2화에서는 수면에 도움을 주는 안성맞춤 플레이리스트 소개와 TOP3가 들려주는 감미로운 라이브로 이목을 집중시켰다.

여기에 코로나19으로 인해 가지 못하는 공연에 대한 대리만족도 선사, 준 콘서트와 같은 감동을 안겨 호평이 이어지기도 했다.

매주 유명가수들의 인생곡 무대를 선보여온 TOP3의 비하인드 스토리 역시 '유명가수전 히든트랙'을 즐겨보는 이들의 재미포인트가 되고 있다.

곡을 선곡하고 자기 것으로 소화하기 위해 고민하는 모습들과 무대 후 털어놓는 여러 감정들은 '유명가수전 히든트랙'에서만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중 지난 5화에서는 '라이브의 황제' 이승철이 직접 뒷풀이에 참석해 재미를 배가했다. 함께 웅기종기 모여앉아 맛있는 음식을 나눠 먹고 방송에서 다 하지 못한 이야기들을 나누며 그들의 음악적인 교감을 쌓아올린 과정들은 음악을 향한 진심을 엿볼 수 있었다.

TOP3의 노래 실력 만큼이나 숨겨진 매력을 발견하는 일 또한 시



청자들의 흥미를 자극하고 있다. 알면 알수록 속이 깊은 남자 이승윤과 존경하는 가수 앞에서 소년팬이 된 락커 정홍일의 순수함, 막내 이무진의 깜짝 요리 실력 등 매주 새롭게 펼쳐져 보는 재미를 더하고 있다.

또한 규현과 이수근의 맛깔스러운 입담과 더불어 TOP4 이소정과 '싱어게인 17호 가수' 한승윤 등 반가운 얼굴들의 활약 역시 빼놓을 수 없다. 경쟁을 벗어나 진정한 음악을 즐기는 모습이 보는 이

들까지 뿌듯하게 만든다.

이처럼 티빙 오리지널 '유명가수전 히든트랙'은 음악과 하나가 된 이들의 허심탄회한 이야기들로 공감대를 형성할뿐 아니라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매력을 선사하며 팬들을 사로잡고 있다.

티빙 오리지널 '유명가수전 히든트랙'은 현재 인기리에 방영 중인 JTBC '유명가수전'의 스핀오프 프로그램으로 매주 금요일 오후 4시, 티빙에서 단독 공개된다.

전순희/기자

베리베리, '2021 온택트 G-KPOP 콘서트' 출격

베리베리(VERIVERY)가 온택트 콘서트를 통해 전세계 팬들과 만난다.

베리베리(VERIVERY)는 오는 15일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방송되는 '2021 온택트 G-KPOP 콘서트' 무대에 오른다.

지난 8일 화려한 서막을 연 '2021 온택트 G-KPOP 콘서트'의 두 번째 주자로 참가하게 된 베리베리(VERIVERY)는 이번 콘서트에서 한층 더 정교해진 퍼포먼스와 압도적인 무대로 '칼군무'다운 면모를 보여줄 예정이다.

특히 지난 3월 발매한 두 번째 싱글 앨범 'SERIES 'O' [ROUND 1: HALL]' 이후 베리베리(VERIVERY)의 무대를 기다려온 팬들에게 선물 같은 공연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베리베리(VERIVERY)는 매 앨범마다 차별화된 콘셉트와 화려한 퍼포먼스, 작사와 작곡은 물론 콘텐츠

제작 등으로 주목을 받았다.

뿐만 아니라 지난 미니 5집 타이틀곡 'G.B.T.B.'로 빌보드 차트 1위에 첫 진입한 이후 두 번째 싱글 앨범 타이틀곡 'Get Away' 역시 월드 디지털 송 세일즈 차트 1위에 오르는 등 국내는 물론 해외 케이팝 팬들의 마음까지 사로잡은 대세돌로 떠오르고 있다.

한편, '2021 온택트 G-KPOP 콘서트'는 '2021 온택트 G-KPOP 콘서트'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강남구와 한국무역협회가 주최한 비대면 콘서트로 총 12팀으로 구성된 케이팝 스타들의 화려한 무대를 5월 한 달 간 매주 토요일 감상할 수 있다.

또한 베리베리(VERIVERY)의 무대는 오는 15일 유튜브 채널 '강남구청' 및 'thek(원더케이 오리지널)'을 통해 감상할 수 있으며 숏 비디오 플랫폼 '트릴러'에서도 함께 송출될 예정이다.

현유주/기자



'대화의 희열' 책으로 만난다, 아이유→백종원 등 11명 출연진 '인세 기부'

단독 토크쇼의 명맥을 묵직하게 이어가고 있는 KBS 2TV '대화의 희열'이 시즌3 첫 방송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책 출간 소식을 알려 이목을 집중시킨다. '대화의 희열'은 시대를 움직이는 단 한 사람의 명사를 초대해 대화를 나누는 원나잇 토크쇼. 사라졌던 1인 게스트 토크쇼를 부활시키며, 2018년 시즌1, 2019년 시즌2 모두 시청자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다.

이런 가운데 '대화의 희열' 시즌 1, 2를 빛낸 출연자들과의 대화를 담은 책 '사는 게 정답이 있으려나?'(포르체 출판사)가 오는 5월 12일 출간된다. 싱어송라이터 겸 배우 아이유, 성악가 조수미, 래퍼이자 프로듀서 지코, 배우 이정은, 요리연구가이자 외식경영전문가 백종원, 희극인 김숙, 가수 겸 라디오 DJ 배철수, 범죄 심리학자 이수정, 축구 감독 박항서, 안무가 리아킵, 작

가 유시민, 대한민국 각 분야의 명사라 불리는 이들과 만나 '사는 것'에 대해 나누는 이야기를 책에 담았다.

이 책은 11명의 명사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저마다의 답을 우리에게 전한다. 누군가는 인생의 가치를 말하고, 누군가는 인생관을 전하고 누군가는 삶의 태도를 이야기한다. 슬럼프를 극복한 멘탈 관리 비법을 말하는 아이유, 인생의 큰 굴곡 속에서 기회를 찾은 축구 감독 박항서, 훌륭한 삶보다는 나에게 맞는 삶을 살고 싶다는 유시민 작가 등. 이들이 전하는 '삶의 이야기', '인생 명언'들이 책으로 담기며, 방송과는 또 다른 깊은 감동을 전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특히 '대화의 희열' 11명의 출연자들은 인세를 '아동학대피해예방기금'으로 기부를 결정했다는 전언. 책으로 만나는 대화의 희열 '사는 게



정답이 있으려나?'는 5월 12일부터 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 인터파크에서 판매된다.

한편, KBS 2TV '대화의 희열' 시즌3는 5월 13일 목요일 밤 10시 40분 첫 방송된다.

현유주/기자

'모범택시' 배우람, 안방극장 사로잡은 개미지옥 매력포인트 셋

SBS 금토드라마 '모범택시'에서 배우람은 무지개 운수의 엔지니어 박진언으로 분해, 적재적소에 맹활약을 펼치며 감칠맛 나는 연기로 시선을 사로잡았다. 이에 개미지옥 같은 매력을 가진 박진언의 매력포인트를 짚어봤다.

싱크로율 200%
박진언은 과거의 아픔은 있지만 우리 주변에 있을 법한 성격의 소유자로 방송 시작과 동시에 관심을 모았다. 특히 가발이라고 오해할만한 짧은 바가지 헤어스타일로 변신, 순박하고 정 넘치는 박진언이라는 캐릭터를 입체적으로 그려내며 안방극장을 때려잡고 있다.

재미 폭발
박진언은 최경구(장혁진 분)와 만났다 하면 찰떡 케미를 뽐냈다. 언제 나 2인 1조로 움직이며 티격태격하지만, 항상 서로를 걱정하고 위하는 마음은 누구보다 크다. 이러한 과정에서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 최경구와의 예측 불가 환상의 티키타카는 보는 재미를 더하기도.

반전 매력
박진언은 자신이 하는 일에서는 프로페셔널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무지개 운수의 엔지니어로서 정비나 새로운 장비에 관해서 자신



감 있는 말투와 행동을 보여주고 있는 것. 그런가 하면 허당미 가득하고 무서움도 많은 면모로 반전 매력을 선사하고 있다. 사적 복수 대행 작전을 수행하며 최경구에게 구박을 받는 것은 물론, 무서운 상황에서는 불안해하며 한탄하는 극과 극의 면모로 인물의 매력을 극대화했다.

이처럼 무궁무진한 매력을 지닌 박진언은 배우람의 열연으로 완성

됐다. 특히 신을 더욱 풍성하게 만드는 특유의 실감 나는 표정과 연기인지 실제인지 분간이 안 갈 정도의 현실감 넘치는 연기력이 이목을 사로잡았다. 이에 앞으로의 전개 속에서 빛날 배우람의 존재감이 시청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모범택시'는 매주 금, 토 밤 10시에 방송된다.

최재은/기자

MBC '웃소매 붉은 끝동' 이준호-이세영, 캐스팅 최종 확정

MBC 2021 하반기 기대작 '웃소매 붉은 끝동'에 이준호, 이세영이 캐스팅을 최종 확정했다.

2021년 하반기 첫 방송 예정인 MBC 새 수목드라마 '웃소매 붉은 끝동'은 자신이 선택한 삶을 지키고자 한 궁녀와 사랑보다 나라가 우선이었던 제왕의 애절한 궁중 로맨스 기록.

뜨거운 인기를 구가한 강미강 작가의 동명의 소설을 원작으로 하며, '자체 발광 오피스', '손 꼭 잡고, 지는 석양을 바라보자'를 연출한 정지인 감독과 '군주-가면의 주인'을 공동 집필한 정혜리 작가가 의기투합한 작품이다.

특히 '명실상부 사극의 명가' MBC가 심혈을 기울여 선보이는 정통 사극으로, MBC 사극 역사에 신선한 새 바람을 불어올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이에 탄탄한 연기력과 폭발하는 비주얼 케미스트리까지 겸비한 이준호와 이세영의 만남이 벌써부터 시청자들의 열광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다.

이준호는 간간하고 오만한 완벽주의 왕세손 '이산' 역을 맡았다. 그는 성군이 되고자 끊임없이 노력하지만 아버지의 죽음이 가슴속 트라우마로 남은 인물.

그러나 당찬 궁녀 성덕임을 만나면서 자신도 몰랐던 사랑은 면모를 서툴게 드러내기 시작한다. 훗날 조선의 왕 '정조'가 되는 그는 한 나라 군주의 차가운 이성과 한 남자의 뜨거운 사랑 사이에서 갈등하게 된다.

이준호는 드라마 '그냥 사랑하는 사이', '기름진 멜로', '자백', '김과장' 등을



통해 안정적인 연기력을 바탕으로 멜로부터 코믹, 장르물까지 완벽하게 소화하는 연기 스펙트럼을 자랑하는 명실상부 밈고 보는 배우.

그런 그가 전역 후 복귀작인 '웃소매 붉은 끝동'을 통해 새로운 정조의 탄생을 알릴 예정이다. 카리스마 넘치는 냉철한 군주와 깊은 눈빛 속에 사랑을 담은 한 남자의 모습을 오가며 거부할 수 없는 매력을 선보일 이준호 '정조 이산'에 기대가 모인다.

이세영은 왕의 무수히 많은 여인 중 한 명이 아닌,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선택하고자 하는 궁녀 '성덕임' 역을 맡았다.

훗날 '의민 성씨'가 되는 덕임은 치열하고 긴박한 정치가 오가는 궁중 안에서 자신만의 '소, 화, 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추구하는 인물. 그러나 평화로운 일상을 보내던 그녀 앞에 왕세손 이산이 나타나면서 그녀의 인생은 격변하게 된다.

연기 경력 25년의 이세영은 드라마

'왕이 된 남자', '의사요한', '메모리스트', '카이로스' 등 수많은 작품을 통해 탄탄한 연기력과 끝없는 매력을 선보인 베테랑 배우. 전작 '카이로스'에서 데뷔 이래 첫 숏컷 변신과 함께 보여준 섬세한 연기로 강렬한 인상을 남기며 더욱더 신뢰감을 주는 배우로 우뚝 서 있다. 이번 '웃소매 붉은 끝동'을 통해 조선의 왕까지 사랑에 빠져들게 하는 당찬 궁녀 '성덕임'으로 변신을 예고해 기대를 높인다.

MBC '웃소매 붉은 끝동' 제작진은 "뛰어난 연기력과 독보적인 매력까지 갖춘 이준호와 이세영이라는 최고의 배우들의 만남만으로도 설레고 기쁘다"고 운을 뗀 뒤 "2021년 하반기 시청자의 심장을 정 조준하는 제대로 된 정동 멜로 사극으로 찾아 볼 테니 많은 기대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MBC 새 수목드라마 '웃소매 붉은 끝동'은 2021년 하반기 첫 방송된다.

전순희/기자

'컴백홈' 쌈디X그레이, 대한민국 힙합씬 대표 출격!

KBS 2TV '컴백홈'에 대한민국 힙합씬의 대표 쌈디-그레이가 게스트로 출격한다.

청춘들의 서울살이를 응원하는 명랑힐링쇼 KBS 2TV '컴백홈'(연출 박민정) 7회가 오는 15일(토) 밤 10시 30분에 방송되는 가운데, 일곱 번째 집 돌아온 게스트로 힙합 레이블 AOMG 크루이자 대세 뮤지션 사이먼 도미닉(이하 쌈디)과 그레이가 출연한다. 두 사람은 힙합 열정으로 가득했던 무명 시절 보금자리이자 K-힙합의 역사 그 자체인 '당산동 옥탑방'과 '홍대 옥탑방'에 돌아갈 예정이다.

최근 진행된 녹화에서 쌈디는 인간미 넘치는 상경 스토리로 눈길을 끌었다. 서울에 올라오기 전 고향인 부산에서 언더그라운드 래퍼로 이미 실력을 인정 받은 쌈디는 "사실 당시 엄마한테 기획사 2-3곳에서 연락을 받았다고 거짓말 하고 무작정 상경한 것"이라며 14년간 숨겨왔던 불효

를 털어놔 웃음을 자아냈다. 나아가 쌈디는 "엄마에게 20만원을 타서 서울에 왔는데 도착하자마자 클럽에서 탕진했다"고 덧붙여 폭소를 유발했다.

그런가 하면 그레이는 "당시 쌈디는 래퍼들의 연예인이었다"면서 흥대 언더그라운드 킥 시절 쌈디의 위상을 증언했다. 이에 쌈디는 "주로 공연의 라스트맨 역할을 했는데 출연료가 고작 3만 8천원이었다"며 뉴욕 특이 않았던 언더 생활을 회상하면서도 "공연 끝나면 근처 마트에 가서 하루 출연료를 다 썼다"며 포기할 수 없는 '플렉스 본능'을 드러내 현장을 웃음바다로 만들었다는 후문.

한편 이날 쌈디는 "이제부터 효도를 하려한다"고 공언했다. 이어 "조카 체제의 첫돌 기념으로 500만원을 쾌척 했다"고 밝히며 가족사랑 플렉스까지 펼쳤다고. 이에 쌈디의 개랄 같은 플렉스대 웃음을 더할 '컴백홈'

본 방송에 기대감이 고조된다.

KBS 2TV '컴백홈' 7회는 오는 15일(토) 밤 10시 30분에 방송된다.

현유주/기자





국기원, 에이브람스 한미연합사령관에게 명예단증 수여

국기원이 로버트 B. 에이브람스 (Gen. Robert B. Abrams) 한미연합사령관에게 명예단증을 수여했다. 이동섭 국기원장은 5월 13일 오전 8시 밀레니엄 힐튼 서울(중구) 호텔에서 열린 '로버트 에이브람스 한미연합사령관 환송 행사'에서 에이브람스 한미연합사령관에게 명예

단증을 수여하고, 태권도복을 증정했다. 국기원은 지난 약 30개월 동안 대한민국 안보와 한미동맹 강화를 위하여 태권도 발전에 아낌없는 성원과 적극적인 활동으로 태권도 저변확대에 이바지한 에이브람스 사령관에게 감사를 표했다.

최재은기자

충남도청 근대5종팀, 전국대회서 '맹활약'

제8회 한국실업연맹회장배 개인·단체전 금·은·동 1 획득

충남도청 근대5종팀이 지난달 말 열린 전국 선수권대회에 이어 전국 대회에서 또 한 번 우수한 성적을 달성하며 위상을 떨쳤다. 도는 도청 근대5종팀이 지난 9일부터 13일까지 전남 해남군과 경북 문경시 일원에서 열린 '제8회 한국실업연맹회장배 대회'에 참가해 금 2, 은 2, 동 1개를 획득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대회에서는 남자 일반부 근대4종 개인전에서 박동수 선수가 금메달을, 남자 일반부 근대5종 개인전에서 최창민 선수가 동메달

을, 여자 일반부 근대4종 개인전에서 한예원 선수가 은메달을 획득했다. 또 남자 일반부 근대5종 단체전(최창민, 송준민)에서 은메달을, 여자 일반부 근대4종 단체전(김소원, 한예원, 최은)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도 관계자는 "도청 소속 선수들이 앞으로도 전국 유수의 대회에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할 것"이라며 선수단에 축하와 감사를 전했다.

김원호기자



음성군청 정구팀, 실업소프트테니스 연맹전 개인복식 우승 쾌거

음성군청 정구팀이 2021 옥천 춘계 한국 실업소프트테니스 연맹전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는 쾌거를 올렸다. 음성군청 정구팀은 5월 10일부터 14일까지 충북 옥천군에서 개최된 2021 옥천 춘계 한국 실업소프트테니스 연맹전에 참가해 박환, 이요한 선수가 개인복식 종목 우승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특히, 박환, 이요한 선수는 지난 4월 전북 순창에서 열린 2021년도 정구 국가대표선수 분선 최종 선발전에서 우승을 차지해 국가대표로 선발되는 등 뛰어난 기량을 보여주고 있다. 남상수 음성군청 정구팀 감독은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후원해주는 음성군에 감사드린다"며 "음성군청 정구팀이 전국에서 알아주는 명문팀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계속 정진하겠다"고 밝혔

다. 조병옥 음성군수는 "음성군청 정구팀이 좋은 성적을 올린 것에 감독님을 비롯한 선수들에게 축하드린다"며 "앞으로도 음성군 체육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최만식기자



'최경주캐디백' 매던 이성관의 도전, "묵묵히 최선 다한다면 기회는 찾아올 것"



KPGA 코리안투어에서는 '캐디 출신' 선수들이 좋은 활약을 펼칠 때가 많다. 또 한 명의 '캐디'였던 선수가 묵묵히 새로운 꿈을 향한 도전을 준비하고 있다. 그 주인공은 바로 '한국프로골프의 만능' 최경주(51.SK텔레콤)가 최근 국내 대회를 치를 때마다 그의 옆을 지켰던 이성관(31)이다. 이성관은 15세 때 처음으로 골프채를 손에 잡았지만 집안의 경제적 약화로 인해 한동안 골프를 그만 두게 됐다. 2009년 해병대 2사단으로 군 입대 뒤 2011년 전역한 그는 이후 전북 군산 소재 군산컨트리클럽

의 캐디로 근무하며 골프 선수의 꿈을 이어갔다. 그는 "국가 유공자 집안으로 군면제를 받은 상황이었지만 아버지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의무를 다해라'면서 입대를 권유하셨다"며 "군복무를 마친 뒤에는 군산컨트리클럽의 캐디로 일하기 시작했다"고 이야기했다. 캐디 생활을 하는 동안 이성관은 2016년 KPGA 프로(준회원), 2017년 KPGA 투어프로(정회원) 자격을 획득하며 골프와 끈을 놓지 않았다. 그러던 중 이성관은 우연히 2006년 '신한동해오픈' 우승자 강지만

(45)을 만났고 2017년부터 강지만의 전담 캐디로 활동했다. 당시 '현대해상 최경주 인비테이셔널'에서 강지만은 대회 호스트인 최경주와 함께 연습라운드를 하게 됐는데 이성관과 최경주의 인연은 그 때부터 시작했다. 이성관은 "강지만 선수가 최경주 선수에게 '이 친구가 골프 선수로서 상당히 큰 재능을 갖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후 최경주재단에 소속되면서 이성관은 "어려운 집안 사정으로 인해 정식 레슨을 받은 적이 없지만 최경주재단에서 많은 것을 배웠다. 스승이자 은인인 강지만 선수, 최경주 선수께 고마움을 전한다"고 말했다. 주로 2부투어인 '스릭스투어'에서 활동하던 이성관은 최경주의 권유로 2018년과 2019년 '현대해상 최경주 인비테이셔널', 2019년 '제네시스 챔피언십'에서 최경주의 캐디로 대회에 출전했다. 이성관은 "캐디로 참가했지만 최경주 선수의 플레이를 보면서 경기 운영 방법, bunker샷 등 많은 것을 배웠다"며 "실전에서 따라해 보기도 하면서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한 노

력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해 'KPGA 코리안투어 QT' 최종전에서 공동 70위의 성적을 적어낸 이성관은 현재 시드 대기자 신분이다. '제16회 DB손해보험 프로미오픈'과 'KPGA 군산CC 오픈'에서는 모두 월요 예선(만테이)에 나서며 대회 출전권을 거머쥐는 데 성공했다. 이성관은 "스릭스투어"에서 꾸준한 성적을 거둬 2022년 KPGA 코리안투어에 데뷔하는 것이 현실적인 목표다"라며 "하지만 월요예선을 거쳐 출전하게 되는 대회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싶은 바람도 있다"는 소망을 나타냈다. 이어 "현재 위치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한다면 언젠가 기회가 올 것이라고 믿는다"며 "나와 비슷한 환경에서 골프를 시작하고 골프 선수의 꿈을 키우고 있는 학생들에게 좋은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선수가 되고 싶다"는 목표를 밝혔다.

전순희기자

서울시, 도심 속 스포츠 클라이밍 메카 '산악문화체험센터' 13일 개관식

스포츠 클라이밍 체험과 산악문화, 커뮤니티가 결합된 복합문화공간 서울 '산악문화체험센터'가 시범운영을 마치고, 13일 개관식을 갖는다. 서울시는 13일 오후 4시 김도식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도종환·정청래·이우진·임오경·오영환 국회의원, 유동균 마포구청장 등 각 분야 인사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특별시 산악문화체험센터'(이하 '산악문화체험센터') 개관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개관식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발열체크, 거리두기 등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간소하게 진행됐다. 개관식 순서는 산악문화체험센터의 발전을 기원하는 식전행사와 본행사, 시설관람 순으로 진행된다. 식전행사로 전국 최초로 스포츠 클라이밍부를 창단해(19년) 국가대표 및 올림픽 출전 선수를 배출한 저력을 지닌 서울 신성고등학교 학생들이 스포츠 클라이밍 시범을 보여 참석자들의 눈길을 끈다.



지하1층 어드벤처 체험장에서 센터 회원들의 이벤트 클라이밍(12m)과 하늘오르기(7m) 시범, 1층 상설 전시실에서 증강현실(AR)로 만나보는 히말라야 14좌 모형 전시, 2층 기획전시실에선 인류 최초로 산악그랜

드슬램을 달성한 고(故) 박영석 대장 전시전 등이 진행돼 '산악문화체험센터'를 보다 다채롭고 풍성하게 채울 예정이다. 지난 32일 간(3.25~4.30)의 시범운영 기간 동안 '산악문화체험센터'엔 일평균 122명, 총 4,000여명의 시민 발길이 이어졌다. 이중 절반이 넘는 2,397명(일평균 75명)은 직접 체험활동에 참여해 스포츠클라이밍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매우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스포츠라는 점에서 많은 방문객들의 관심과 호응을 얻었다는 평가다. 특히 코로나19로 운동시설 이용이 어려운 여건인 만큼 어린이들에게는 색다른 놀이공간으로, 학생들에게는 현장체험학습 공간으로, 또한 직장인 등 성인들에게는 체력단련 및 여가 공간으로 자리매김 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광수기자

한남대, 호원대에 3-1 역전승... 권역 선두

한남대가 권역 1위였던 호원대를 짜릿한 역전승으로 잡고 권역 1위로 올라섰다. 14일 대전 안영생활체육공원 1구장에서 열린 2021 U리그 6권역 6라운드 경기에서 한남대가 호원대에 3-1 역전승을 거두며 3승 3무로 권역 선두로 올라섰다. 지난 한산대 접기 춘계대학축구연맹전 16강에서도 호원대를 2-1로 이긴 바 있는 한남대는 6권역 선두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며 선두였던 호원대에 첫 패배를 안겼다. 경기 초반 양 팀은 탐색전을 펼치며 조심스럽게 경기를 운영했다. 중원에서 공수 전환이 자주 일어났지만, 양 팀 모두 골문 앞까지 연결되는 날카로운 공격 전개는 없었다. 전반 중반 이후 호원대가 강한 압박으로 한남대 진영에서 볼을 탈취하며 자주 공격 기회를 맞이했다. 공격 기회를 늘려나가던 호원대

가 결국 선제골에 성공했다. 전반 43분 오른쪽 페널티박스 안에서 침투 패스를 받은 김동주가 수비수 한명을 제치고 강하게 때린 슈팅이 골문 왼쪽으로 빨려 들어갔다. 김동주는 이번 득점으로 개인득점 선두에 올라섰다. 호원대는 한남대의 전반 막판 공세를 잘 막아내며 1-0으로 전반전을 마쳤다. 전반 막판 일격을 당한 한남대는 후반 시작과 함께 거세게 호원대를 몰아붙이며 이른 시간 동점골을 만들어냈다. 후반 6분 한남대의 역습 과정에서 교체 투입된 박세웅이 오른쪽 사이드에서 빠르게 침투하며 동물을 받았고, 골키퍼와의 1대1 상황에서 침착하게 골로 연결시켰다. 2002년생 새내기 U리그 데뷔골이었다. 골이 호원대에서 치명적인 실수가 나왔다. 후반 9분 한남대 배도현이 수비 진영에서 호원대 진영으로 길게 때린 볼을 골키퍼가 잡지



못해 그대로 골인됐다. 행운의 골까지 더해 한남대는 2-1 역전에 성공했다. 순식간에 리드를 뺏긴 호원대는 동점골을 만들기 위해 고군분투했다. 후반 19분 호원대 김동주가 페널티박스 안에서 찬 슈팅이 몸을 던진 골키퍼에게 막히며 탄식을 자아냈다. 후반 중반 이후 호원대의 공격

이 거셌지만, 한남대는 집중력으로 잘 막아냈다. 후반 막판에는 한남대가 오히려 프리킥 기회를 여러 차례 만들어내며 경기를 주도했다. 경기 종료 직전 터진 최원준의 추가골까지 더해 한남대는 3-1 승리를 거두며 무패행진을 이어나갔다.

전순희기자

모두를 위한 안전벨트, 양쪽 귀에 걸어주세요



마스크 착용은 코로나19를 예방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우리의 가족과 이웃의 건강을 위해
모두가 함께 마스크 착용에 동참해 주세요.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